

ETHER LIBRARY

0028

논어

論語

공자

Confucius · c. 5th c. BC

철학 · 종교

논어

論語

공자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論語 (논어). 20편

지은이 공자(孔子, 기원전 551~479)의 말과 행적을 제자와 그 문인들이 엮었다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성립 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와 그다음 세대의 문인들이 스승의 말을 모아 엮기 시작해, 전국 시대를 거쳐 한나라 때 지금의 20편으로 굳었다. 남송의 주희(朱熹)가 주를 단 『논어집주(論語集注)』가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읽힌 표준이 되었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공자(孔子)의 말과 행적을 제자들이 엮은 『논어(論語)』 20편 499장을 한문 원전에서 직접 옮긴 완역본입니다. 영어 번역을 거쳐 옮긴 중역이 아닙니다. 저본은 지금 널리 통행하는 20편 본문의 전자 텍스트로, 글자는 남송 주희(朱熹)의 『논어집주(論語集注)』가 실은 통행본과 같습니다. 제임스 레그(James Legge)의 영어 번역(1861, 개정 1893)은 뜻을 확인하는 대조에만 썼고, 레그가 덧붙인 풀이와 해설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장 나눔과 번호

장은 주희 『논어집주』의 나눔을 따랐습니다. 모두 499장이며, 편마다 장 수는 학이 16 · 위정 24 · 팔일 26 · 이인 26 · 공야장 27 · 옹야 28 · 술이 37 · 태백 21 · 자한 30 · 향당 18 · 선진 25 · 안연 24 · 자로 30 · 헌문 47 · 위령공 41 · 계씨 14 · 양화 26 · 미자 11 · 자장 25 · 요왈 3장입니다. 레그의 영어 번역도 이 나눔을 따릅니다. 장 번호는 「편.장」으로 달았습니다(1.1은 제1편 학이의 첫째 장). 요즘 흔히 쓰는 양백준(楊伯峻)의 『논어역주』는 몇 장을 더 잘게 나누어 모두 512장으로 세므로, 공야장·옹야·술이·자한·향당·선진·헌문·위령공·양화편에서는 장 번호가 한두 개씩 어긋날 수 있습니다. 향당편은 집주를 따라 18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원문과 번역

장마다 한문 원문을 먼저 싣고 그 아래에 번역을 실었습니다. 원문은 구절마다 한 줄로 끊었고, 번역도 원문 한 줄에 한 줄씩 맞추었습니다. 원문의 어느 구절이

번역의 어느 줄인지 줄을 세어 찾을 수 있습니다.

저본 전자 텍스트에는 인코딩 과정에서 글자가 빠져 빈칸으로 남은 자리(亹·橆·泹·斖 등 일곱 자리)와 오식이 있었습니다. 빈칸은 통행본 글자로 채웠고, 뜻이 뒤집히는 오식(「無所禱」를 「吾所禱」로, 「其恕乎」를 「其怒乎」로 적은 것 따위)과 부호의 잘못은 통행본에 따라 바로잡아 원문에 실었습니다. 바로잡은 곳은 모두 서른 자리 남짓이며, 글자를 판본에 따라 달리 읽는 자리는 통행본대로 두고 필요한 곳에만 각주를 달았습니다.

문체와 말투

원문의 「子曰」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로 옮겼습니다. 「子」는 엮은 제자들이 스승을 부른 말이지만, 이 책을 읽는 이는 그 문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대화 속에서 공자를 부르는 「夫子」에 남겨 두었습니다.

서술에서는 공자만 높였습니다(「~께서」 「~하셨다」). 제자와 임금, 대부는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말투는 사이마다 정해 두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공자가 제자에게는 「너」라 부르며 해라체로, 임금에게는 합쇼체로, 대부와 낯선 이에게는 「그대」라 부르며 하오체로 말합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합쇼체로, 동문끼리는 하게체로 말합니다. 임금과 대부는 공자에게 하오체로 말합니다.

공자의 혼잣말과 잠언은 하다체로 짧게 옮겼고, 원문의 대구는 우리말에서도 같은 틀로 되풀이했습니다. 같은 구절이 여러 편에 거듭 나오면(「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사람 가운데 어진 이는 드물다」 등) 번역도 같은 글로 맞추었습니다.

낱말

『논어』를 꿰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로 옮겼습니다. 仁은 덕목을 가리킬 때는 **인**으로, 사람을 그릴 때는 「어질다」 「어진 사람」으로

옮겼습니다. 「인을 행하는 근본」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가 그 예입니다.

禮는 **예**, 君子와 小人은 **군자**와 **소인**, 學은 **배움**, 道는 **도**, 德은 **덕**, 天命은 **천명**입니다.

孝는 효·효도, 弟(悌)는 형과 어른을 공경하는 **공손**, 忠은 남과 일에 제 마음을 다하는 **충실함**, 恕는 제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는 **서**, 信은 **미더움**, 義는 **의로움**, 知는 앎과 지혜입니다. 「충성」은 임금에게만 좁아지기 쉬워 쓰지 않았습니다.

『시』 『서』 『역』은 오늘의 『시경』 『서경』 『주역』입니다.

사람 이름

원문은 한 사람을 자(字)로도, 이름으로도, 다른 호칭으로도 부릅니다. 번역은 원문이 부른 대로 읽었고, 사람마다 처음 나오는 자리에 각주를 한 번 달았습니다. 자주 나오는 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	성과 이름	원문에서 부르는 이름
안연(顔淵)	안회(顔回)	안연, 안회, 회
자로(子路)	중유(仲由)	자로, 계로, 유, 중유
자공(子貢)	단목사(端木賜)	자공, 사
증자(曾子)	증삼(曾參)	증자, 삼
자하(子夏)	복상(卜商)	자하, 상
자유(子游)	언언(言偃)	자유, 언유, 언
자장(子張)	전손사(顓孫師)	자장, 사(師)
염유(冉有)	염구(冉求)	염유, 염구, 구, 염자
중궁(仲弓)	염옹(冉雍)	중궁, 옹
재아(宰我)	재여(宰予)	재아, 재여, 여
유자(有子)	유약(有若)	유자, 유약
공서화(公西華)	공서적(公西赤)	공서화, 자화, 적
번지(樊遲)	번수(樊須)	번지, 번수
민자건(閔子騫)	민손(閔損)	민자건, 민자

자공의 이름 「賜」와 자장의 이름 「師」는 우리말로 모두 「사」 이므로, 자장을 가리키는 자리에는 「사(師)」로 한자를 붙였습니다.

각주

각주는 모두 옮긴이가 붙였습니다(모두 193개). 대부분은 사람과 땅 이름을 처음 나오는 자리에서 한 번 밝힌 것이고, 그 밖에 팔일무나 목탁처럼 모르면

문장이 읽히지 않는 옛 제도와 사물, 그리고 읽기가 크게 갈리는 자리에만 짧게 달았습니다. 읽기가 갈리는 곳은 집주의 읽기를 본문에 따르고 다른 읽기를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공자의 뜻을 풀이한 옛 주석가들의 해설과 레그의 해설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차례

제1편 학이(學而) 11

제2편 위정(為政) 18

제3편 팔일(八佾) 28

제4편 이인(里仁) 40

제5편 공야장(公冶長) 48

제6편 옹야(雍也) 62

제7편 술이(述而) 75

제8편 태백(泰伯) 88

제9편 자한(子罕) 97

제10편 향당(鄕黨) 110

제11편 선진(先進) 121

제12편 안연(顔淵) 136

제13편 자로(子路) 149

제14편 헌문(憲問) 164

제15편 위령공(衛靈公) 184

제16편 계씨(季氏) 199

제17편 양화(陽貨) 209
제18편 미자(微子) 222
제19편 자장(子張) 231
제20편 요왈(堯曰) 242

제1편 학이(學而)

1.1

子曰：「學而時習之，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1.2

有子曰：「其為人也孝弟，而好犯上者，鮮矣；
不好犯上，而好作亂者，未之有也。
君子務本，本立而道生。
孝弟也者，其為仁之本與！」

유자가 말했다.[1] "사람됨이 효도하고 공손하면서 윗사람 거스르기를 좋아하는 이는 드물다.
윗사람 거스르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이는 아직 없었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서면 도가 생겨난다.
효도와 공손이야말로 인(仁)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

1.3

子曰：「巧言、令色，鮮矣仁！」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사람 가운데 어진 이는 드물다!"

1.4

曾子曰：「吾日三省吾身，為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증자가 말했다.[2]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나 자신을 돌아본다. 남을 위해 일을 꾀하면서 충실하지 않았는가?
벗과 사귀면서 미덥지 않았는가?
전해 받은 가르침을 익히지 않았는가?"

1.5

子曰：「道千乘之國，敬事而信，節用而愛人，使民以時。」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병거 천 대를 내는 나라를 다스리려면[3] 일을 삼가 받들어 미덥게 하고, 쓰임을 아끼며 사람을 아끼고, 백성을 부리되 때를 가려야 한다."

1.6

子曰：「弟子入則孝，出則弟，謹而信，汎愛眾，而親仁。
行有餘力，則以學文。」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는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공손하며, 삼가고 미덥게 하며, 뭇사람을 널리 아끼되 어진 이를 가까이해야 한다.
그렇게 행하고도 힘이 남으면 글을 배운다."

1.7

子夏曰：「賢賢易色，事父母能竭其力，事君能致其身，
與朋友交言而有信，雖曰未學，吾必謂之學矣。」

자하가 말했다.[4]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기를 미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꾸고[5], 부모를 섬기되 힘을 다하고, 임금을 섬기되 몸을 바치고, 벗과 사귀되 말에 미더움이 있다면, 배우지 않았다고들 해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운 사람이라 하겠다."

1.8

子曰：「君子不重，則不威，學則不固。
主忠信，無友不如己者，過則勿憚改。」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무겁지 않으면 위엄이 없고, 배워도 굳건하지 못하다.
충실함과 미더움을 으뜸으로 삼고, 나만 못한 이를 벗으로 삼지 말며,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1.9

曾子曰：「慎終追遠，民德歸厚矣。」

증자가 말했다. "돌아가신 어버이를 삼가 보내 드리고 먼 조상을 정성껏 기리면, 백성의 덕이 두터운 데로 돌아갈 것이다."

1.10

子禽問於子貢曰：「夫子至於是邦也，必聞其政，求之與？
抑與之與？」
子貢曰：「夫子溫良恭儉讓以得之，夫子之求之也，
其諸異乎人之求之與？」

자금이 자공에게 물었다.[6] "선생님께서는 어느 나라에 가시든 반드시 그 나라의 정사를 들으시는데, 선생님께서 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들려준 것입니까?"
자공이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온화하고, 어질고, 공손하고, 검소하고, 겸양하셔서 그것을 얻으시네. 선생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아마 남들이 구하는 것과는 다를 걸세."

1.11

子曰：「父在觀其志，父沒觀其行，三年無改於父之道，可謂孝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 사람의 뜻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사람의 행실을 본다. 삼 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않으면 효도한다고 할 만하다."

1.12

有子曰：「禮之用，和為貴。
先王之道，斯為美，小大由之，有所不行，知和而和，不以禮節之，
亦不可行也。」

유자가 말했다. "예를 쓸 때는 조화가 귀하다.
옛 임금들의 도는 이것을 아름답게 여겨 작은 일도 큰일도 이를 따랐다.
그래도 통하지 않는 데가 있으니, 조화를 알아 조화만 꾀하고 예로
절제하지 않으면 그 또한 통하지 않는다."

1.13

有子曰：「信近於義，言可復也。
恭近於禮，遠恥辱也。
因不失其親，亦可宗也。」

유자가 말했다. "약속이 의로움에 가까우면 그 말을 지킬 수 있다.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부끄러움과 욕됨을 멀리할 수 있다.
기댈 때 친할 만한 사람을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으뜸으로 받들 수
있다."

1.14

子曰：「君子食無求飽，居無求安，敏於事而慎於言，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먹을 때 배부르기를 구하지 않고 거처할
때 편안하기를 구하지 않으며, 일에는 재빠르고 말은 삼가며, 도가 있는

이에게 나아가 자신을 바로잡는다. 이러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 만하다."

1.15

子貢曰：「貧而無諂，富而無驕，何如？」
子曰：「可也，未若貧而樂，富而好禮者也。」
子貢曰：「詩云：『如切如磋，如琢如磨』，其斯之謂與？」
子曰：「賜也，始可與言詩已矣，告諸往而知來者。」

자공이 말했다.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괜찮다.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만은 못하다."
자공이 말했다. "『시』에 '자르는 듯 가는 듯, 쪼는 듯 닦는 듯'이라 했는데[7],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이제 너와 『시』를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지나간 것을 일러 주니 올 것을 아는구나."

1.16

子曰：「不患人之不己知，患不知人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

1. 공자의 제자 유약(有若). 『논어』는 증삼과 그를 「선생(子)」을 붙여 부른다.
2. 공자의 제자 증삼(曾參). 자는 자여(子輿). 효로 이름났다.

3. 승(乘)은 말 네 마리가 끄는 병거 한 대. 병거 천 대를 낼 수 있는 나라는 제후의 큰 나라다.

4. 공자의 제자 복상(卜商). 자하는 그의 자다. 글과 학문에 뛰어났다.

5. 집주의 읽기를 따랐다. 「아내를 대할 때 얼굴보다 덕을 본다」로 읽는 설도 있다.

6. 자금은 진항(陳亢)의 자. 공자의 제자라고도 하고 자공의 제자라고도 한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 단목사(端木賜)의 자로, 말재주와 장사 수완이 뛰어났다.

7. 『시』는 오늘의 『시경』. 이 구절은 위풍(衛風) 「기욱(淇奧)」에서 뼈와 상아와 옥을 다듬는 모습으로 군자의 수양을 기린 것이다.

제2편 위정(為政)

2.1

子曰：「為政以德，譬如北辰，居其所而眾星共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뭇별이 그를 향해 도는 것과 같다."

2.2

子曰：「詩三百，一言以蔽之，曰：思無邪。」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 삼백 편을 한마디로 덮어 말하면 '생각에 삿됨이 없다'는 것이다."

2.3

子曰：「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
道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가지런히 하면 백성은 벌을 면하려고만 할 뿐 부끄러움이 없다.
덕으로 이끌고 예로 가지런히 하면 부끄러움을 알고 또 바르게 된다."

2.4

子曰：「吾十有五而志于學，三十而立，四十而不惑，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열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었고, 서른에 섰으며, 마흔에 미혹되지 않았고, 쉰에 천명을 알았으며, 예순에 귀가 순해졌고, 일흔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2.5

孟懿子問孝。
子曰：「無違。」
樊遲御，子告之曰：「孟孫問孝於我，我對曰，『無違。』」
樊遲曰：「何謂也？」
子曰：「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祭之以禮。」

맹의자가 효를 물었다.[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김이 없어야 하오."
번지가 수레를 몰고 있었는데, 공자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2] "맹손이 나에게 효를 묻기에 '어김이 없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번지가 말했다. "무슨 뜻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살아 계실 때는 예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 장사 지내고 예로 제사 지내는 것이다."

2.6

孟武伯問孝。
子曰：「父母唯其疾之憂。」

맹무백이 효를 물었다.[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까 그것을 걱정하오."

2.7

子游問孝。
子曰：「今之孝者，是謂能養。
至於犬馬，皆能有養；
不敬，何以別乎。」

자유가 효를 물었다.[4]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요즘의 효는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을 이른다.
그러나 개와 말도 모두 먹여 기르지 않느냐.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느냐?"

2.8

子夏問孝。
子曰：「色難。
有事，弟子服其勞；
有酒食，先生饌，曾是以為孝乎？」

자하가 효를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얼굴빛이 어렵다.

일이 있으면 젊은이가 그 수고를 맡고,
술과 밥이 있으면 어른께 먼저 드리는 것, 고작 이것을 효라 여기느냐?"

2.9

子曰：「吾與回言終日，不違如愚。
退而省其私，亦足以發，回也不愚。」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회와 온종일 이야기를 해도 어기는 데가 없어 어리석은 사람 같았다.[5]
그런데 물러간 뒤 혼자 지내는 것을 살펴보니 내 말을 넉넉히 펴 내고 있었다. 회는 어리석지 않다."

2.10

子曰：「視其所以，觀其所由，察其所安。
人焉廋哉？
人焉廋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하는 일을 보고, 그 일을 하는 까닭을 살피고, 그가 무엇에 편안해하는지 헤아려 보라.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2.11

子曰：「溫故而知新，可以為師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만하다."

2.12

子曰：「君子不器。」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2.13

子貢問君子。
子曰：「先行其言，而後從之。」

자공이 군자를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할 것을 먼저 행하고, 말은 그 뒤에 따르게 한다."

2.14

子曰：「君子周而不比，小人比而不周。」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두루 어울리되 편을 가르지 않고, 소인은 편을 가르되 두루 어울리지 않는다."

2.15

子曰：「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2.16

子曰：「攻乎異端，斯害也已。」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단을 파고들면 해로울 뿐이다."[6]

2.17

子曰：「由！
誨女知之乎！
知之為知之，不知為不知，是知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7]
너에게 안다는 것을 가르쳐 주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2.18

子張學干祿。
子曰：「多聞闕疑，慎言其餘，則寡尤。
多見闕殆，慎行其餘，則寡悔。
言寡尤，行寡悔，祿在其中矣。」

자장이 녹봉 구하는 법을 배우려 했다.[8]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많이 듣되 의심스러운 것은 빼 두고 나머지를 삼가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이 보되 위태로운 것은 빼 두고 나머지를 삼가 행하면 뉘우칠 일이

적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실에 뉘우침이 적으면 녹봉은 그 안에 있다."

2.19

哀公問曰：「何為則民服？」
孔子對曰：「舉直錯諸枉，則民服；
舉枉錯諸直，則民不服。」

애공이 물었다.[9] "어떻게 하면 백성이 따르겠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곧은 사람을 들어 써서 굽은 사람 위에 두면 백성이 따르고,
굽은 사람을 들어 써서 곧은 사람 위에 두면 백성이 따르지 않습니다."

2.20

季康子問：「使民敬忠以勸，如之何？」
子曰：「臨之以莊則敬，孝慈則忠，舉善而教不能則勸。」

계강자가 물었다.[10] "백성이 공경하고 충실하며 서로 힘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중하게 임하면 공경하고, 효도하고 자애로우면 충실하고, 착한 이를 들어 쓰고 못하는 이를 가르치면 힘쓰게 되오."

2.21

或謂孔子曰：「子奚不為政？」
子曰：「書云：『孝乎惟孝，友于兄弟，施於有政。』
是亦為政，奚其為為政？」

어떤 사람이 공자께 말했다. "선생은 어째서 정치를 하지 않으시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서』에 '효도하라, 오직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하라. 그것을 정치에 베푼다'고 했소.[11]
이것도 정치를 하는 것인데, 어찌 벼슬자리에 나서야만 정치를 한다 하겠소?"

2.22

子曰：「人而無信，不知其可也。
大車無輗，小車無軏，其何以行之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미더움이 없으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큰 수레에 끌채 고리가 없고 작은 수레에 멍에 고리가 없으면 무엇으로 굴러가겠느냐?"[12]

2.23

子張問：「十世可知也？」
子曰：「殷因於夏禮，所損益可知也；
周因於殷禮，所損益可知也。
其或繼周者，雖百世，可知也。」

자장이 물었다. "열 세대 뒤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이어받았으니 덜고 더한 것을 알 수 있다.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이어받았으니 덜고 더한 것을 알 수 있다.
누군가 주나라를 잇는다면 백 세대 뒤라도 알 수 있다."

2.24

子曰：「非其鬼而祭之，諂也。
見義不為，無勇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 조상의 혼령이 아닌데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이다.
의로운 일을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

1. 노나라의 대부 중손하기(仲孫何忌). 맹손씨 집안의 우두머리로, 아래 「맹손」도 그를 가리킨다.

2. 공자의 제자 번수(樊須). 번지는 그의 자다.

3. 맹의자의 아들 중손체(仲孫彘).

4. 공자의 제자 언언(言偃). 자유는 그의 자다. 자하와 함께 글과 학문으로 꼽혔다.

5. 회(回)는 공자가 가장 아낀 제자 안회. 자는 자연(子淵)으로, 안연(顔淵)이라고도 부른다.

6. 공(攻)을 「파고들어 익히다」로 읽는 집주를 따랐다. 「이단을 공격하면 해가 그친다」로 읽는 설도 있다.

7. 유(由)는 공자의 제자 중유(仲由)의 이름. 자는 자로(子路), 계로(季路)라고도 한다. 용맹하고 성미가 곧았다.

8. 공자의 제자 전손사(顓孫師). 자장은 그의 자다.

9. 노나라 임금. 재위 기원전 494~468년. 공자 만년의 임금이다.

10. 노나라의 실권을 쥔 계손씨(季孫氏) 집안의 우두머리 계손비(季孫肥).

11. 『서』는 오늘의 『서경』. 이 구절은 지금 전하는 『서경』에 그대로는 없다.

12. 큰 수레는 소가 끄는 짐수레, 작은 수레는 말이 끄는 수레다. 고리(輗·軏)는 끌채와 멍에를 잇는 쐐기로, 이것이 없으면 수레를 끌 수 없다.

제3편 팔일(八佾)

3.1

孔子謂季氏,「八佾舞於庭，是可忍也，孰不可忍也？」

공자께서 계씨를 두고 말씀하셨다.[1] "팔일무를 제 집 뜰에서 추게 하다니, 이것을 차마 한다면 무엇인들 차마 못 하겠는가?"[2]

3.2

三家者以雍徹。
子曰：「『相維辟公，天子穆穆』，奚取於三家之堂？」

세 집안이 「옹」을 부르며 제사 상을 거두었다.[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후들이 제사를 돕고 천자는 엄숙하시다'는 노래를 어찌 세 집안의 사당에서 쓴단 말인가?"

3.3

子曰：「人而不仁，如禮何？
人而不仁，如樂何？」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예가 무슨 소용인가?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음악이 무슨 소용인가?"

3.4

林放問禮之本。
子曰：「大哉問！
禮，與其奢也，寧儉；
喪，與其易也，寧戚。」

임방이 예의 근본을 물었다.[4]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그 물음이!
예는 사치하기보다 차라리 검소해야 하고,
상은 매끄럽게 치르기보다 차라리 슬퍼해야 한다."

3.5

子曰：「夷狄之有君，不如諸夏之亡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랑캐에게 임금이 있어도 중원 나라들에 임금이 없는 것만 못하다."[5]

3.6

季氏旅於泰山，子謂冉有曰：「女弗能救與？」
對曰：「不能。」
子曰：「嗚呼！
曾謂泰山不如林放乎？」

계씨가 태산에서 여제를 지내려 하자[6] 공자께서 염유에게 말씀하셨다.[7]
"너는 막을 수 없었느냐?"
염유가 대답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아!
태산의 신이 임방만도 못하다고 여긴단 말이냐?"

3.7

子曰：「君子無所爭，必也射乎！
揖讓而升，下而飮。
其爭也君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다투는 일이 없으나, 꼭 있다면 활쏘기일 것이다!
서로 읍하고 사양하며 당에 오르고, 내려와서는 벌주를 마신다.
그 다툼이 군자답다."

3.8

子夏問曰：「巧笑倩兮，美目盼兮，素以為絢兮。
何謂也？」
子曰：「繪事後素。」
曰：「禮後乎？」
子曰：「起予者商也！
始可與言詩矣。」

자하가 물었다. "'방긋 웃는 입가 곱기도 하고, 아름다운 눈 또렷하기도 하네. 흰 바탕에 고운 빛깔이로구나.'
무슨 뜻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뒤에 한다."
자하가 말했다. "예가 나중이라는 말씀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일깨우는 사람은 상이로구나!
이제 너와 『시』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3.9

子曰：「夏禮，吾能言之，杞不足徵也；
殷禮，吾能言之，宋不足徵也。
文獻不足故也。
足，則吾能徵之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기나라로는 증거를 대기에 모자란다.
은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송나라로는 증거를 대기에 모자란다.[8]
기록과 아는 사람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넉넉하다면 내가 증거를 댈 수 있을 것이다."

3.10

子曰：「禘自既灌而往者，吾不欲觀之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체 제사는 강신주를 붓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보고 싶지 않다."[9]

3.11

或問禘之說。
子曰：「不知也。
知其說者之於天下也，其如示諸斯乎！」
指其掌。

어떤 사람이 체 제사의 뜻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모르오.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천하를 대하는 것은 여기에 올려놓고 보는 것과 같을 것이오!"
그러고는 손바닥을 가리키셨다.

3.12

祭如在，祭神如神在。
子曰：「吾不與祭，如不祭。」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이 그 자리에 계신 듯이 하셨고,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신이 그 자리에 있는 듯이 하셨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몸소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

3.13

王孫賈問曰：「與其媚於奧，寧媚於灶，何謂也？」
子曰：「不然，獲罪於天，無所禱也。」

왕손가가 물었다.[10] "'아랫목 신에게 잘 보이느니 차라리 부뚜막 신에게 잘 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소.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데가 없소."

3.14

子曰：「周監於二代，郁郁乎文哉！
吾從周。」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주나라는 두 왕조를 거울삼았으니, 찬란하구나, 그 문화여!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3.15

子入太廟，每事問。
或曰：「孰謂鄹人之子知禮乎？
入太廟，每事問。」
子聞之，曰：「是禮也。」

공자께서 태묘에 들어가 일마다 물으셨다.[11]
어떤 사람이 말했다. "누가 추 땅 사람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했는가?[12]
태묘에 들어가서 일마다 묻더라."
공자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예다."

3.16

子曰：「射不主皮，為力不同科，古之道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활쏘기에서 과녁 가죽 뚫기를 으뜸으로 치지 않는 것은 사람마다 힘이 같은 등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옛날의 도이다."

3.17

子貢欲去告朔之餼羊。
子曰：「賜也！
爾愛其羊，我愛其禮。」

자공이 초하루를 고하는 의식에 바치는 양을 없애려 했다.[1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를 아낀다."

3.18

子曰：「事君盡禮，人以為諂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을 섬기면서 예를 다하면 사람들은 아첨한다고 여긴다."

3.19

定公問：「君使臣，臣事君，如之何？」
孔子對曰：「君使臣以禮，臣事君以忠。」

정공이 물었다.[14]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오?"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은 신하를 예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3.20

子曰：「關雎，樂而不淫，哀而不傷。」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저」는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슬프면서도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15]

3.21

哀公問社於宰我。
宰我對曰：「夏后氏以松，殷人以柏，周人以栗，曰，使民戰栗。」
子聞之，曰：「成事不說，遂事不諫，既往不咎。」

애공이 재아에게 사(社)의 신주를 물었다.[16]
재아가 대답했다. "하후씨는 소나무를 썼고, 은나라 사람은 측백나무를 썼고,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를 썼으니, 백성을 두려워 떨게 하려는 것이라 합니다."
공자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고, 끝난 일은 간하지 않으며,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 법이다."

3.22

子曰：「管仲之器小哉。」
或曰：「管仲儉乎？」
曰：「管氏有三歸，官事不攝，焉得儉？」
「然則管仲知禮乎？」
曰：「邦君樹塞門，管氏亦樹塞門。
邦君為兩君之好，有反坫，管氏亦有反坫。
管氏而知禮，孰不知禮？」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은 그릇이 작구나."[17]
어떤 사람이 물었다. "관중은 검소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씨는 삼귀를 두었고 가신에게 일을 겸하게 하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하다 하겠소?"[18]
"그러면 관중은 예를 알았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의 임금이라야 문 앞에 가림벽을 세우는데 관씨도 가림벽을 세웠소.
나라의 임금이라야 두 임금이 우의를 다질 때 술잔 받침대를 두는데 관씨도 그 받침대를 두었소.
관씨가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소?"

3.23

子語魯大師樂，曰：「樂其可知也：始作，翕如也；
從之，純如也，皦如也，繹如也，以成。」

공자께서 노나라 태사에게 음악을 이야기하셨다.[19] "음악은 알 만하오.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소리가 한데 모이고,
이어서 풀어 놓으면 고르게 어울리고, 또렷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며 한 곡을 이루오."

3.24

儀封人請見，曰：「君子之至於斯也，吾未嘗不得見也。」
從者見之。
出曰：「二三子何患於喪乎？
天下之無道也久矣，天將以夫子為木鐸。」

의 땅의 국경지기가 뵙기를 청하며 말했다. "군자가 이곳에 오시면 내가 뵙지 못한 적이 없소."
따르던 제자들이 그를 뵙게 해 주었다.
그가 나와서 말했다. "그대들은 선생께서 벼슬을 잃으신 것을 어찌 걱정하시오?
천하에 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으니, 하늘이 선생을 목탁으로 삼으려는 것이오."[20]

3.25

子謂韶，「盡美矣，又盡善也。」
謂武，「盡美矣，未盡善也。」

공자께서 소를 두고 말씀하셨다.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좋다."
무를 두고 말씀하셨다. "더없이 아름다우나 더없이 좋지는 않다."[21]

3.26

子曰：「居上不寬，為禮不敬，臨喪不哀，吾何以觀之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 예를 행하면서 공경하지 않고, 상을 당해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를 보겠는가?"

---

1. 노나라 대부 집안 계손씨. 여기서는 공자 당시 그 우두머리(계평자 또는 계환자)를 가리킨다.

2. 일(佾)은 춤추는 사람의 한 줄 여덟 명. 여덟 줄 예순네 명이 추는 팔일무는 천자의 춤이고, 대부는 네 줄을 쓴다. 「이런 일을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참지 못하겠는가」로 읽는 설도 있다.

3. 세 집안은 노나라의 실권을 나눠 쥔 맹손·숙손·계손씨. 「옹」은 『시』 주송(周頌)의 한 편으로, 천자가 종묘 제사를 마치고 상을 거둘 때 부르는 노래다. 다음 줄의 인용이 그 노래의 구절이다.

4. 노나라 사람. 이 밖의 일은 전하지 않는다.

5. 문법대로 옮겼다. 정자(程子)는 「오랑캐에게도 임금이 있으니, 중원 나라들이 위아래 없이 어지러운 것과는 같지 않다」로 읽었다.

6. 여(旅)는 산천에 지내는 제사. 태산의 제사는 제후만 지낼 수 있었다.

7. 공자의 제자 염구(冉求). 자는 자유(子有)로 염유(冉有)라 부른다. 이때 계씨의 가신이었다.

8. 기(杞)는 하나라 후손의 나라, 송(宋)은 은나라 후손의 나라다.

9. 체(禘)는 임금이 시조를 받드는 큰 제사다. 노나라는 주공의 공덕으로 이 제사를 허락받았다고 한다. 강신주(灌)는 제사 처음에 술을 땅에 부어 신을 내려오게 하는 절차다.

10. 위(衛)나라의 대부. 위 영공 때 군사를 맡았다. 아랫목(奧)은 방의 서남쪽 귀퉁이로 집안의 높은 신을 모시는 자리, 부뚜막 신은 낮지만 실제로 끼니를 맡은 신이다.

11. 태묘(太廟)는 나라 시조의 사당. 노나라의 태묘는 주공의 사당이다.

12. 추(鄹)는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 고을. 공자의 아버지 숙량흘(叔梁紇)이 그곳의 대부였다. 「추 땅 사람의 아들」은 공자를 낮추어 부른 말이다.

13. 제후는 매달 초하루 사당에 양을 바치고 그달의 정사를 고했다. 노나라에서는 임금이 이 의식에 나오지 않게 되었는데도 양만은 바치고 있었다.

14. 노나라 임금. 재위 기원전 509~495년. 공자가 이때 노나라에서 벼슬했다.

15. 「관저(關雎)」는 『시』의 첫 편. 물수리 우는 물가에서 군자가 좋은 짝을 그리는 노래다.

16. 사(社)는 토지신, 그 신주로 나무를 심거나 깎아 세웠다. 재아는 공자의 제자 재여(宰予)로, 말재주가 좋았다. 밤나무(栗)의 율과 두려워 떤다(慄)는 소리가 같아 재아가 말을 끌어다 붙였다.

17. 제나라 환공을 도와 그를 패자(霸者)로 만든 재상 관이오(管夷吾). 중(仲)은 그의 자다.

18. 삼귀(三歸)는 세 성씨의 여자를 아내로 들인 것이라고도 하고, 세 군데 저택이나 누대라고도 한다.

19. 태사(大師)는 악관의 우두머리.

20. 의(儀)는 위나라 국경의 고을. 목탁(木鐸)은 나무 혀를 단 쇠방울로, 나라에서 법령을 알릴 때 흔들고 다녔다. 하늘이 공자를 세상을 깨우치는 사람으로 삼으려 한다는 말이다.

21. 소(韶)는 순임금의 음악, 무(武)는 주나라 무왕의 음악이다.

제4편 이인(里仁)

4.1

子曰：「里仁為美。
擇不處仁，焉得知？」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마을은 인이 있는 곳이 아름답다.
가려서 어진 곳에 머물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4.2

子曰：「不仁者，不可以久處約，不可以長處樂。
仁者安仁，知者利仁。」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곤궁한 처지에 오래 있지
못하고, 즐거운 처지에도 오래 있지 못한다.
어진 사람은 인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

4.3

子曰：「惟仁者，能好人，能惡人。」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4.4

子曰：「苟志於仁矣，無惡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인에 뜻을 두면 악한 일이 없다."

4.5

子曰：「富與貴，是人之所欲也，不以其道得之，不處也。
貧與賤，是人之惡也，不以其道得之，不去也。
君子去仁，惡乎成名。
君子無終食之間違仁，造次必於是，顛沛必於是。」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이 바라는 것이지만, 그 도로 얻은 것이 아니면 누리지 않는다.
가난함과 천함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 도로 얻은 것이 아니라도 떠나려 하지 않는다.
군자가 인을 버리면 어디서 이름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 한 끼 먹는 사이에도 인을 어기지 않는다. 다급할 때도 반드시 여기에 있고, 넘어지고 엎어질 때도 반드시 여기에 있다."

4.6

子曰：「我未見好仁者，惡不仁者。
好仁者，無以尚之；
惡不仁者，其為仁矣，不使不仁者加乎其身。
有能一日用其力於仁矣乎？
我未見力不足者。
蓋有之矣，我未之見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인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질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어질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인을 행하면서, 어질지 못한 것이 제 몸에 닿지 않게 한다.
하루라도 인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힘이 모자라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아마 있기는 하겠지만,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4.7

子曰：「人之過也，各於其黨。
觀過，斯知仁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허물은 저마다 그 무리를 따른다.
허물을 보면 그 사람이 어진지 알 수 있다."

4.8

子曰：「朝聞道，夕死可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4.9

子曰：「士志於道，而恥惡衣惡食者，未足與議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가 도에 뜻을 두고서 허름한 옷과 거친 밥을 부끄러워한다면 함께 의논할 만하지 못하다!"

4.10

子曰：「君子之於天下也，無適也，無莫也，義之與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천하의 일에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도 없고 결코 안 된다는 것도 없다. 오직 의로움을 따를 뿐이다."

4.11

子曰：「君子懷德，小人懷土；
君子懷刑，小人懷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을 생각하며, 군자는 법을 생각하고 소인은 은혜를 생각한다."

4.12

子曰：「放於利而行，多怨。」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익만 좇아 행하면 원망이 많다."

4.13

子曰：「能以禮讓為國乎，何有！
不能以禮讓為國，如禮何！」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와 사양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예와 사양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가 무슨 소용인가!"

4.14

子曰：「不患無位，患所以立；
不患莫己知，求為可知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리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만한 바탕을 걱정하라.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알려질 만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

4.15

子曰：「參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唯。」
子出。
門人問曰：「何謂也？」
曾子曰：「夫子之道，忠恕而已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아!
내 도는 하나로 꿰어져 있다."
증자가 말했다. "예."
공자께서 나가셨다.
문인들이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증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도는 충(忠)과 서(恕)일 뿐이다."[1]

4.16

子曰：「君子喻於義，小人喻於利。」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4.17

子曰：「見賢思齊焉，見不賢而內自省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진 이를 보면 그와 같아지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이를 보면 속으로 나 자신을 돌아본다."

4.18

子曰：「事父母幾諫，見志不從，又敬不違，勞而不怨。」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섬길 때는 허물이 있으면 넌지시 간하고,
내 뜻을 따르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 더욱 공경하여 거스르지 않으며,
애가 쓰이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4.19

子曰：「父母在，不遠遊，遊必有方。」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가 살아 계시면 멀리 나가 노닐지 않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 둔다."

4.20

子曰：「三年無改於父之道，可謂孝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 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않으면 효도한다고 할 만하다."

4.21

子曰：「父母之年，不可不知也：一則以喜，一則以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의 나이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다."

4.22

子曰：「古者言之不出，恥躬之不逮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사람이 말을 함부로 내지 않은 것은 몸이 말을 따르지 못할까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4.23

子曰：「以約失之者，鮮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스스로 단속하다가 잃는 사람은 드물다."

4.24

子曰：「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행동은 재빠르게 하고자 한다."

4.25

子曰：「德不孤，必有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4.26

子游曰：「事君數，斯辱矣；
朋友數，斯疏矣。」

자유가 말했다. "임금을 섬기면서 자주 간하면 욕을 보고,
벗과 사귀면서 자주 충고하면 멀어진다."

---

1. 충(忠)은 제 마음을 다하는 것, 서(恕)는 제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집주는 풀었다.

제5편 공야장(公冶長)

5.1

子謂公冶長,「可妻也。
雖在縲紲之中,非其罪也。」
以其子妻之。
子謂南容,「邦有道不廢,邦無道免於刑戮。」
以其兄之子妻之。

공자께서 공야장을 두고 말씀하셨다.[1] "사위로 삼을 만하다.
옥에 갇힌 적이 있으나 그의 죄가 아니었다."
그러고는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공자께서 남용을 두고 말씀하셨다.[2]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버려지지 않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형벌을 면할 사람이다."
그러고는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5.2

子謂子賤,「君子哉若人!
魯無君子者,斯焉取斯?」

공자께서 자천을 두고 말씀하셨다.[3] "군자로구나, 이 사람은!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덕을 얻었겠는가?"

5.3

子貢問曰：「賜也何如？」
子曰：「女器也。」
曰：「何器也？」
曰：「瑚璉也。」

자공이 물었다. "저는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릇이다."
자공이 말했다. "무슨 그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호련이다."[4]

5.4

或曰：「雍也仁而不佞。」
子曰：「焉用佞？
御人以口給，屢憎於人。
不知其仁，焉用佞？」

어떤 사람이 말했다. "옹은 어질지만 말재주가 없소."[5]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재주를 어디에 쓰겠소?
약삭빠른 말로 남을 상대하면 자주 미움을 받을 뿐이오.
그가 어진지는 모르겠으나, 말재주를 어디에 쓰겠소?"

5.5

子使漆雕開仕。
對曰：「吾斯之未能信。」
子說。

공자께서 칠조개에게 벼슬을 하게 하셨다.[6]
칠조개가 대답했다. "저는 아직 그 일에 자신이 없습니다."
공자께서 기뻐하셨다.

5.6

子曰：「道不行，乘桴浮於海。
從我者，其由與？」
子路聞之喜。
子曰：「由也好勇過我，無所取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나겠다.
나를 따를 사람은 아마 유일 것이다."
자로가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는 용기를 좋아하기가 나보다 낫지만, 뗏목 재목을 구할 데가 없구나."

5.7

孟武伯問：「子路仁乎？」
子曰：「不知也。」
又問。
子曰：「由也，千乘之國，可使治其賦也，不知其仁也。」
「求也何如？」
子曰：「求也，千室之邑，百乘之家，可使為之宰也，不知其仁也。」
「赤也何如？」
子曰：「赤也，束帶立於朝，可使與賓客言也，不知其仁也。」

맹무백이 물었다. "자로는 어진 사람이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모르겠소."
다시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는 병거 천 대를 내는 나라에서 군사와 세금을 맡길 만하오. 어진지는 모르겠소."
"구는 어떻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는 천 호의 고을이나 병거 백 대를 내는 집안에서 우두머리로 삼을 만하오. 어진지는 모르겠소."
"적은 어떻소?"[7]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적은 띠를 매고 조정에 서서 손님을 맞아 이야기하게 할 만하오. 어진지는 모르겠소."

5.8

子謂子貢曰：「女與回也，孰愈？」
對曰：「賜也，何敢望回？
回也，聞一以知十，賜也聞一知二。」
子曰：「弗如也，吾與女，弗如也。」

공자께서 자공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회 가운데 누가 나으냐?"
자공이 대답했다. "제가 어찌 감히 회를 바라보겠습니까?
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압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만 못하다. 나도 너도 그만 못하다."[8]

5.9

宰予晝寢。
子曰：「朽木不可雕也，糞土之牆不可杇也。
於予與何誅？」
子曰：「始吾於人也，聽其言而信其行；
今吾於人也，聽其言而觀其行。
於予與改是。」

재여가 낮잠을 잤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할 수 없고, 거름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손질할 수 없다.
여를 꾸짖어 무엇 하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처음에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말을 듣고 그 행실을 믿었다.
이제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말을 듣고 그 행실을 살핀다.
여 때문에 이렇게 바꾸었다."

5.10

子曰：「吾未見剛者。」
或對曰：「申棖。」
子曰：「棖也慾，焉得剛？」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굳센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대답했다. "신정이 있지 않습니까?"[9]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은 욕심이 많으니 어찌 굳세다 하겠는가?"

5.11

子貢曰：「我不欲人之加諸我也，吾亦欲無加諸人。」
子曰：「賜也，非爾所及也。」

자공이 말했다. "저는 남이 저에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을 저도 남에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그것은 네가 미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5.12

子貢曰：「夫子之文章，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與天道，不可得而聞也。」

자공이 말했다. "선생님의 문장은 들을 수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본성과 하늘의 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수 없었다."

5.13

子路有聞，未之能行，唯恐有聞。

자로는 들은 것이 있는데 아직 행하지 못했으면, 또 다른 것을 듣게 될까 두려워했다.

5.14

子貢問曰：「孔文子何以謂之文也？」
子曰：「敏而好學，不恥下問，是以謂之文也。」

자공이 물었다. "공문자는 무엇 때문에 시호를 문(文)이라 했습니까?"[10]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영민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 그래서 문이라 한 것이다."

5.15

子謂子產有君子之道四焉：其行己也恭，其事上也敬，其養民也惠，其使民也義。

공자께서 자산을 두고 말씀하셨다.[11] "그에게는 군자의 도가 네 가지 있었다. 몸가짐은 공손했고, 윗사람을 섬길 때는 공경했고, 백성을 기를 때는 은혜로웠고, 백성을 부릴 때는 의로웠다."

5.16

子曰：「晏平仲善與人交，久而敬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평중은 남과 잘 사귀었다. 오래 사귀어도 공경했다."[12]

5.17

子曰：「藏文仲居蔡，山節藻棁，何如其知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문중은 큰 거북을 모셔 두고, 기둥머리에는 산을 새기고 동자기둥에는 마름풀을 그렸으니,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13]

5.18

子張問曰：「令尹子文三仕為令尹，無喜色；
三已之，無慍色。
舊令尹之政，必以告新令尹。
何如？」
子曰：「忠矣。」
曰：「仁矣乎？」
曰：「未知，焉得仁！」
「崔子弑齊君，陳文子有馬十乘，棄而違之。
至於他邦，則曰，『猶吾大夫崔子也。』
違之，之一邦，則又曰：『猶吾大夫崔子也。』
違之。
何如？」
子曰：「清矣。」
曰：「仁矣乎？」
子曰：「未知，焉得仁？」

자장이 물었다. "영윤 자문은 세 번 영윤이 되었으나 기쁜 기색이 없었고,[14]
세 번 물러났으나 성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옛 영윤의 정사를 반드시 새 영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실하다."
"어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다. 어찌 어질다 하겠느냐?"
"최자가 제나라 임금을 죽이자, 진문자는 말 마흔 필을 가지고 있었으나 버리고 떠났습니다.[15]
다른 나라에 이르러 '이곳도 우리 대부 최자와 같다'고 하고,
그곳을 떠나 또 한 나라에 가서도 '이곳도 우리 대부 최자와 같다'고

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깨끗하다."
"어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모르겠다. 어찌 어질다 하겠느냐?"

5.19

季文子三思而後行。
子聞之，曰：「再斯可矣。」

계문자는 세 번 생각한 뒤에 행했다.[16]
공자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두 번이면 된다."

5.20

子曰：「甯武子，邦有道則知，邦無道則愚。
其知可及也，其愚不可及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영무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지혜로웠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어리석었다.[17]
그 지혜로움은 따라갈 수 있지만, 그 어리석음은 따라갈 수 없다."

5.21

子在陳曰：「歸與！
歸與！
吾黨之小子狂簡，斐然成章，不知所以裁之。」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실 때 말씀하셨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 고장의 젊은이들은 뜻은 크나 거칠고, 문채는 찬란하게 이루었으나 그것을 마름질할 줄 모른다."

5.22

子曰：「伯夷叔齊，不念舊惡，怨是用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이와 숙제는 지난날의 미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원망이 드물었다."[18]

5.23

子曰：「孰謂微生高直？
或乞醯焉，乞諸其鄰而與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미생고를 곧다고 하는가?[19]
어떤 사람이 식초를 얻으러 오자 이웃집에서 얻어다 주더라."

5.24

子曰：「巧言、令色、足恭，左丘明恥之，丘亦恥之。
匿怨而友其人，左丘明恥之，丘亦恥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꾸미며 지나치게 공손한 것을 좌구명은 부끄러워했고, 나도 부끄러워한다.[20] 원망을 감추고 그 사람과 벗하는 것을 좌구명은 부끄러워했고, 나도 부끄러워한다."

5.25

顏淵、季路侍。
子曰：「盍各言爾志？」
子路曰：「願車馬、衣輕裘，與朋友共，敝之而無憾。」
顏淵曰：「願無伐善，無施勞。」
子路曰：「願聞子之志。」
子曰：「老者安之，朋友信之，少者懷之。」

안연과 계로가 곁에 모시고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저마다 너희 뜻을 말해 보지 않겠느냐?"
자로가 말했다. "수레와 말과 가벼운 갖옷을 벗과 함께 쓰다가 해져도 아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연이 말했다. "제 잘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제 수고를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로가 말했다. "선생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늙은이는 편안하게 해 주고, 벗은 미덥게 해 주고, 젊은이는 품어 주고 싶다."

5.26

子曰：「已矣乎！
吾未見能見其過，而內自訟者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다 되었구나!
나는 제 허물을 보고 속으로 스스로를 꾸짖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5.27

子曰：「十室之邑，必有忠信如丘者焉，不如丘之好學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열 집 사는 고을에도 반드시 나만큼 충실하고 미더운 사람은 있겠지만,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1. 공자의 제자이자 사위. 새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2. 공자의 제자 남궁괄(南宮适). 자는 자용(子容). 노나라 대부 남궁경숙과 같은 사람으로 보는 설이 있다.

3. 공자의 제자 복부제(宓不齊). 자천은 그의 자다. 선보(單父)의 읍재로 이름이 났다.

4. 호련(瑚璉)은 종묘에서 곡식을 담아 올리던 귀한 제기다.

5. 옹(雍)은 공자의 제자 염옹(冉雍). 자는 중궁(仲弓)이다.

6. 공자의 제자. 자는 자개(子開) 또는 자약(子若)이라 한다.

7. 구(求)는 염유, 적(赤)은 공자의 제자 공서적(公西赤)의 이름이다. 공서적의 자는 자화(子華)로, 공서화(公西華)라 부른다. 의례에 밝았다.

8. 「나는 네가 그만 못하다는 말을 인정한다」로 읽는 설도 있다(與를 「인정하다」로).

9. 공자의 제자. 자는 주(周)라고 한다.

10. 위나라 대부 공어(孔圉). 문(文)은 죽은 뒤에 받은 시호다.

11. 정(鄭)나라의 재상 공손교(公孫僑). 자산은 그의 자로, 기원전 6세기 정나라를 잘 다스린 것으로 이름났다.

12. 제나라의 재상 안영(晏嬰). 평은 시호, 중은 자다.

13. 노나라 대부 장손진(臧孫辰). 채(蔡)는 점을 치는 큰 거북으로, 제후만 둘 수 있었다. 기둥머리와 동자기둥의 장식은 천자의 사당에 하는 것이다.

14. 영윤(令尹)은 초나라의 재상. 자문은 투곡오도(鬪穀於菟)의 자다.

15. 최자는 제나라 대부 최저(崔杼). 기원전 548년에 임금 장공을 죽였다. 진문자는 제나라 대부 진수무(陳須無). 말 마흔 필은 원문의 십승(十乘), 곧 말 네 마리씩 수레 열 대분이다.

16. 노나라 대부 계손행보(季孫行父).

17. 위나라 대부 영유(甯兪).

18. 은나라 말 고죽국 임금의 두 아들. 나라를 서로 사양하고 떠났으며, 주 무왕이 은나라를 치자 말렸고, 끝내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고 한다.

19. 노나라 사람. 곧기로 이름났다.

20. 노나라 사람. 『춘추좌씨전』을 지었다는 좌구명과 같은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제6편 옹야(雍也)

6.1

子曰：「雍也可使南面。」
仲弓問子桑伯子。
子曰：「可也簡。」
仲弓曰：「居敬而行簡，以臨其民，不亦可乎？
居簡而行簡，無乃大簡乎？」
子曰：「雍之言然。」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옹은 남면하게 할 만하다."[1]
중궁이 자상백자에 대해 물었다.[2]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괜찮다. 간소하다."
중궁이 말했다. "몸가짐을 공경스럽게 하면서 일을 간소하게 행하여 백성에게 임한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몸가짐도 간소하고 일도 간소하게 행한다면 너무 간소하지 않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옹의 말이 옳다."

6.2

哀公問：「弟子孰為好學？」
孔子對曰：「有顏回者好學，不遷怒，不貳過。
不幸短命死矣，今也則亡，未聞好學者也。」

애공이 물었다. "제자 가운데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오?"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안회라는 사람이 배우기를 좋아했습니다.
노여움을 옮기지 않았고,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명이 짧아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으니,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사람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6.3

子華使於齊，冉子為其母請粟。
子曰：「與之釜。」
請益。
曰：「與之庾。」
冉子與之粟五秉。
子曰：「赤之適齊也，乘肥馬，衣輕裘。
吾聞之也：君子周急不繼富。」
原思為之宰，與之粟九百，辭。
子曰：「毋！
以與爾鄰里鄉黨乎！」

자화가 제나라에 심부름을 가게 되자, 염자가 그 어머니를 위해 곡식을 청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한 부를 주어라."[3]
더 청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한 유를 주어라."

염자는 곡식 다섯 병을 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적은 제나라에 갈 때 살진 말을 타고 가벼운 갖옷을 입었다.
내가 듣기로, 군자는 다급한 사람을 돕지 부유한 사람에게 보태 주지 않는다."
원사가 공자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4] 곡식 구백을 주시자 사양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양하지 마라!
네 이웃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지 않느냐!"

6.4

子謂仲弓，曰：「犁牛之子騂且角，雖欲勿用，山川其舍諸？」

공자께서 중궁을 두고 말씀하셨다. "얼룩소의 새끼라도 털이 붉고 뿔이 반듯하면, 사람이 쓰지 않으려 해도 산과 냇물의 신이 어찌 그것을 버리겠느냐?"[5]

6.5

子曰：「回也，其心三月不違仁，其餘則日月至焉而已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회는 그 마음이 석 달 동안 인을 어기지 않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나 한 달에 한 번 이를 뿐이다."

6.6

季康子問：「仲由可使從政也與？」
子曰：「由也果，於從政乎何有？」
曰：「賜也可使從政也與？」
曰：「賜也達，於從政乎何有？」
曰：「求也可使從政也與？」
曰：「求也藝，於從政乎何有？」

계강자가 물었다. "중유에게 정사를 맡길 만하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는 결단력이 있으니, 정사를 맡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소?"
"사에게 정사를 맡길 만하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는 사리에 통달했으니, 정사를 맡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소?"
"구에게 정사를 맡길 만하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는 재주가 많으니, 정사를 맡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소?"

6.7

季氏使閔子騫為費宰。
閔子騫曰：「善為我辭焉！
如有復我者，則吾必在汶上矣。」

계씨가 민자건을 비 땅의 읍재로 삼으려 했다.[6]
민자건이 말했다. "저를 위해 잘 사양해 주시오!
다시 나를 부르러 온다면 나는 반드시 문수 가에 가 있을 것이오."[7]

6.8

伯牛有疾，子問之，自牖執其手，曰：「亡之，命矣夫！
斯人也，而有斯疾也！
斯人也，而有斯疾也！」

백우가 병이 들자 공자께서 문병을 가셔서 창문 너머로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8] "잃게 되었구나. 명이로구나!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병이 들다니!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병이 들다니!"

6.9

子曰：「賢哉，回也！
一簞食，一瓢飲，在陋巷，人不堪其憂，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질구나, 회는!
한 그릇 밥과 한 바가지 물로 누추한 골목에 살면 남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는데, 회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다.
어질구나, 회는!"

6.10

冉求曰：「非不說子之道，力不足也。」
子曰：「力不足者，中道而廢。
今女畫。」

염구가 말했다.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이 모자랍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힘이 모자라는 사람은 가다가 중도에 그만둔다. 지금 너는 스스로 선을 긋고 있다."

6.11

子謂子夏曰：「女為君子儒！
無為小人儒！」

공자께서 자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군자다운 선비가 되어라! 소인 같은 선비가 되지 마라!"

6.12

子游為武城宰。
子曰：「女得人焉爾乎？」
曰：「有澹臺滅明者，行不由徑，非公事，未嘗至於偃之室也。」

자유가 무성의 읍재가 되었다.[9]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거기서 사람을 얻었느냐?"
자유가 말했다.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길을 갈 때 지름길로 다니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제 방에 온 적이 없습니다."[10]

6.13

子曰：「孟之反不伐，奔而殿，將入門，策其馬，曰：『非敢後也，
馬不進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맹지반은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11] 패주할 때 맨 뒤에서 막다가 성문에 들어서려 할 때 제 말에 채찍질을 하며 말했다. '감히 뒤처지려 한 것이 아니라, 말이 나아가지 않았소.'"

6.14

子曰：「不有祝鮀之佞，而有宋朝之美，難乎免於今之世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축타의 말재주가 없고 송조의 미모만 있다면, 지금 세상에서 화를 면하기 어렵다."[12]

6.15

子曰：「誰能出不由戶？
何莫由斯道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갈 때 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찌 아무도 이 도를 거치지 않는가?"

6.16

子曰：「質勝文則野，文勝質則史。
文質彬彬，然後君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바탕(質)이 꾸밈(文)을 이기면 촌스럽고, 꾸밈이 바탕을 이기면 겉만 번지르르하다.
꾸밈과 바탕이 고루 어우러진 뒤에야 군자다."

6.17

子曰：「人之生也直，罔之生也幸而免。」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곧게 살아야 한다. 곧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요행히 화를 면하고 있을 뿐이다."

6.18

子曰：「知之者不如好之者，好之者不如樂之者。」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6.19

子曰：「中人以上，可以語上也；
中人以下，不可以語上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보통 이상인 사람에게는 높은 것을 말해 줄 수 있지만,
보통 이하인 사람에게는 높은 것을 말해 줄 수 없다."

6.20

樊遲問知。
子曰：「務民之義，敬鬼神而遠之，可謂知矣。」
問仁。
曰：「仁者先難而後獲，可謂仁矣。」

번지가 지혜를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면 지혜롭다고 할 만하다."
인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은 뒤로 미룬다. 그러면 어질다고 할 만하다."

6.21

子曰：「知者樂水，仁者樂山。
知者動，仁者靜。
知者樂，仁者壽。」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고, 어진 사람은 고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

6.22

子曰：「齊一變，至於魯；
魯一變，至於道。」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나라가 한 번 바뀌면 노나라에 이르고,
노나라가 한 번 바뀌면 도에 이를 것이다."

6.23

子曰：「觚不觚，觚哉！
觚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모난 술잔이 모나지 않으니, 그것이 모난 술잔인가!
그것이 모난 술잔인가!"[13]

6.24

宰我問曰：「仁者，雖告之曰，『井有仁焉。』
其從之也？」
子曰：「何為其然也？
君子可逝也，不可陷也；
可欺也，不可罔也。」

재아가 물었다. "어진 사람은 누가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일러 주면,
따라 들어가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그러겠느냐?
군자는 우물까지 가게 할 수는 있어도 빠지게 할 수는 없고,
속일 수는 있어도 터무니없는 말로 홀릴 수는 없다."

6.25

子曰：「君子博學於文，約之以禮，亦可以弗畔矣夫！」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글을 널리 배우고 예로 단속한다면
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6.26

子見南子，子路不說。
夫子矢之曰：「予所否者，天厭之！
天厭之！」

공자께서 남자를 만나시자 자로가 기뻐하지 않았다.[14]
공자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셨다. "내가 잘못된 짓을 했다면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

6.27

子曰：「中庸之為德也，其至矣乎！
民鮮久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용(中庸)의 덕은 지극하구나!
백성 가운데 그것을 지닌 이가 드물어진 지 오래되었다."

6.28

子貢曰：「如有博施於民，而能濟眾，何如？
可謂仁乎？」
子曰：「何事於仁，必也聖乎！
堯舜其猶病諸！
夫仁者，己欲立而立人，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可謂仁之方也已。」

자공이 말했다. "백성에게 널리 베풀어 뭇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어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인에 그치겠느냐? 반드시 성인일 것이다!
요임금과 순임금도 그것을 어렵게 여겼다!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 주고, 자기가 이루고 싶으면 남을 이루게 해 준다.
가까운 데서 미루어 견줄 수 있으면 인을 행하는 방법이라 할 만하다."

---

1. 남면(南面)은 임금이나 고을의 우두머리가 남쪽을 향해 앉아 다스리는 것이다.

2. 노나라 사람. 『장자』에 나오는 자상호(子桑戶)와 같은 사람으로 보는 설이 있다.

3. 자화는 공서적, 염자는 염유다. 부(釜)·유(庾)·병(秉)은 곡식을 되는 단위로, 부는 여섯 말 넉 되, 유는 열여섯 말, 병은 백예순 말이라 한다.

4. 공자의 제자 원헌(原憲). 자는 자사(子思). 공자가 노나라 사구(司寇)로 있을 때 그 집안일을 맡았다.

5. 붉은 털에 뿔이 반듯한 소는 제사에 쓰는 소다. 중궁의 아버지는 천했으나 중궁이 어질었으므로 한 말이라고 집주는 풀었다.

6. 공자의 제자 민손(閔損). 자건은 그의 자다. 효로 이름났다. 비(費)는 계씨의 근거지인 고을이다.

7. 문수(汶水)는 노나라와 제나라의 경계를 흐르는 강. 노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가겠다는 말이다.

8. 공자의 제자 염경(冉耕). 백우는 그의 자다. 덕행으로 꼽혔다. 그가 앓은 병은 문둥병이었다고 전한다.

9. 무성(武城)은 노나라의 작은 고을.

10. 무성 사람으로, 뒤에 공자의 제자가 되었다. 자는 자우(子羽).

11. 노나라 대부. 기원전 484년 제나라와의 싸움에서 노나라 군대가 패주할 때 맨 뒤에서 적을 막았다.

12. 축타(祝鮀)는 위나라의 축관으로 말재주가 뛰어났다. 송조(宋朝)는 송나라 공자로 미모로 이름났다.

13. 고(觚)는 모서리가 진 술잔. 이름과 실제가 맞지 않음을 한탄한 말이다.

14. 위나라 영공의 부인.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평판이 있었다.

제7편 술이(述而)

7.1

子曰：「述而不作，信而好古，竊比於我老彭。」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전하되 지어내지 않고, 옛것을 믿고 좋아하니, 가만히 나를 우리 노팽에 견주어 본다."[1]

7.2

子曰：「默而識之，學而不厭，誨人不倦，何有於我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없이 마음에 새기고, 배우되 싫증 내지 않고, 남을 가르치되 지치지 않는 것,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나에게 있겠는가?"

7.3

子曰：「德之不修，學之不講，聞義不能徙，不善不能改，是吾憂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을 닦지 못하는 것, 배운 것을 익혀 밝히지 못하는 것, 의로운 일을 듣고도 그리로 옮겨 가지 못하는 것, 좋지 못한 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내 걱정이다."

7.4

子之燕居，申申如也，夭夭如也。

공자께서 한가로이 계실 때는 느긋하고 화평하셨다.

7.5

子曰：「甚矣吾衰也！
久矣吾不復夢見周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심하구나, 나의 쇠약함이!
오래되었구나, 내가 다시는 꿈에 주공을 뵙지 못한 지가!"[2]

7.6

子曰：「志於道，據於德，依於仁，游於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에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고, 인에 기대고,
예(藝)에서 노닌다."[3]

7.7

子曰：「自行束修以上，吾未嘗無誨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육포 한 묶음이라도 예물로 갖추어 온
사람이라면 나는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7.8

子曰：「不憤不啟，不悱不發。
舉一隅不以三隅反，則不復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알고 싶어 애태우지 않으면 열어 주지 않고,
말하고 싶어 더듬거리지 않으면 이끌어 주지 않는다.
한 귀퉁이를 들어 보였는데 나머지 세 귀퉁이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일러 주지 않는다."

7.9

子食於有喪者之側，未嘗飽也。
子於是日哭，則不歌。

공자께서는 상을 당한 사람 곁에서 식사하실 때 배불리 드신 적이 없었다.
공자께서는 곡을 하신 날에는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다.

7.10

子謂顏淵曰：「用之則行，舍之則藏，惟我與爾有是夫。」
子路曰：「子行三軍，則誰與？」
子曰：「暴虎馮河，死而不悔者，吾不與也。
必也臨事而懼，好謀而成者也。」

공자께서 안연에게 말씀하셨다. "써 주면 나아가 행하고 버리면 물러나 숨는 것은 오직 나와 너만이 할 수 있겠구나."
자로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삼군을 거느리신다면 누구와 함께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맨손으로 범을 잡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다
죽어도 뉘우치지 않을 사람과는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반드시 일에 임해서는 두려워하고, 꾀하기를 좋아하여 일을 이루는
사람과 함께하겠다."

7.11

子曰：「富而可求也，雖執鞭之士，吾亦為之。
如不可求，從吾所好。」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를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채찍을 잡는
천한 일이라도 나는 하겠다.
구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겠다."

7.12

子之所慎：齊，戰，疾。

공자께서 삼가신 것은 재계와 전쟁과 질병이었다.

7.13

子在齊聞韶，三月不知肉味，曰：「不圖為樂之至於斯也。」

공자께서 제나라에서 소를 들으시고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모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음악이 이런 경지에 이를 줄은 생각지 못했다."

7.14

冉有曰：「夫子為衛君乎？」
子貢曰：「諾，吾將問之。」
入曰：「伯夷、叔齊何人也？」
曰：「古之賢人也。」
曰：「怨乎？」
曰：「求仁而得仁，又何怨？」
出曰：「夫子不為也。」

염유가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위나라 임금을 도우시겠나?"[4]
자공이 말했다. "좋네, 내가 여쭈어 보겠네."
자공이 들어가 여쭈었다. "백이와 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의 현명한 사람이다."
"원망했습니까?"
"인을 구하여 인을 얻었는데 또 무엇을 원망했겠느냐?"
자공이 나와서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돕지 않으실 걸세."

7.15

子曰：「飯疏食，飲水，曲肱而枕之，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굽혀 베개 삼아도 즐거움은 그 안에 있다.
의롭지 못하게 얻은 부와 귀는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

7.16

子曰：「加我數年，五十以學易，可以無大過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몇 해를 더 주어 쉰에 『역』을 배우게 한다면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5]

7.17

子所雅言，詩、書、執禮，皆雅言也。

공자께서 늘 표준말로 하신 것은 『시』와 『서』, 그리고 예를 집행할 때였다. 이때는 모두 표준말로 하셨다.[6]

7.18

葉公問孔子於子路，子路不對。
子曰：「女奚不曰，其為人也，發憤忘食，樂以忘憂，不知老之將至云爾。」

섭공이 자로에게 공자에 대해 물었는데 자로가 대답하지 않았다.[7]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됨이 분발하면 먹는 것도 잊고, 즐거우면 근심도 잊어, 늙음이 닥쳐오는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7.19

子曰：「我非生而知之者，好古，敏以求之者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나면서부터 안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찾아 구한 사람이다."

7.20

子不語怪力亂神。

공자께서는 괴이한 일, 힘쓰는 일, 어지러운 일, 귀신에 관한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7.21

子曰：「三人行，必有我師焉：擇其善者而從之，其不善者而改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가운데 내 스승이 있다. 그 좋은 점을 가려 따르고, 좋지 못한 점으로는 나를 고친다."

7.22

子曰：「天生德於予，桓魋其如予何？」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려 주셨으니 환퇴가 나를 어찌하겠는가?"[8]

7.23

子曰：「二三子以我為隱乎？
吾無隱乎爾。
吾無行而不與二三子者，是丘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무언가 숨긴다고 여기느냐?
나는 너희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나는 무엇을 하든 너희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것이 나다."

7.24

子以四教：文，行，忠，信。

공자께서는 네 가지로 가르치셨다. 글과 행실과 충실함과 미더움이다.

7.25

子曰：「聖人，吾不得而見之矣，得見君子者，斯可矣。」
子曰：「善人，吾不得而見之矣，得見有恒者，斯可矣。
亡而為有，虛而為盈，約而為泰，難乎有恒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성인은 내가 만나 볼 수 없으니, 군자를 만나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착한 사람은 내가 만나 볼 수 없으니,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없으면서 있는 체하고, 비었으면서 가득 찬 체하고, 쪼들리면서 넉넉한 체하니, 한결같기가 어렵다."

7.26

子釣而不綱，弋不射宿。

공자께서는 낚시는 하셨으나 그물질은 하지 않으셨고, 주살을 쏘셨으나 둥지에 깃든 새는 쏘지 않으셨다.

7.27

子曰：「蓋有不知而作之者，我無是也。
多聞，擇其善者而從之。
多見而識之，知之次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알지도 못하면서 지어내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지만,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많이 듣고 그 가운데 좋은 것을 가려 따르고,
많이 보고 마음에 새겨 두니, 이것이 나면서 아는 것의 다음이다."

7.28

互鄉難與言，童子見，門人惑。
子曰：「與其進也，不與其退也，唯何甚？
人潔己以進，與其潔也，不保其往也。」

호향 사람들과는 말을 나누기 어려웠는데, 그곳 소년이 공자를 뵈러 오자 문인들이 의아해했다.[9]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아오는 것을 받아 주는 것이지 물러가는 것을 받아 주는 것이 아니다. 어찌 그리 심하게 구느냐?
사람이 제 몸을 깨끗이 하고 나아오면 그 깨끗함을 받아 줄 뿐, 지난날의 일까지 떠맡는 것은 아니다."

7.29

子曰：「仁遠乎哉？
我欲仁，斯仁至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은 멀리 있는가?
내가 인을 바라면 인은 곧 이른다."

7.30

陳司敗問昭公知禮乎，孔子曰：「知禮。」
孔子退，揖巫馬期而進之曰：「吾聞君子不黨，君子亦黨乎？
君取於吳，為同姓，謂之吳孟子。
君而知禮，孰不知禮？」
巫馬期以告。
子曰：「丘也幸，苟有過，人必知之。」

진나라의 사패가 소공이 예를 알았느냐고 묻자[10]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를 아셨소."
공자께서 물러나시자 사패가 무마기에게 읍하고 나아오게 하여
말했다.[11] "내가 듣기로 군자는 편들지 않는다는데, 군자도 편을 드는가?
임금께서 오나라에서 아내를 맞으셨는데, 같은 성이라 오맹자라
불렀네.[12]
임금께서 예를 아신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나?"
무마기가 이 말을 알려 드렸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운이 좋구나. 허물이 있으면 남들이 꼭
알아차려 주니."

7.31

子與人歌而善，必使反之，而後和之。

공자께서는 남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그가 잘 부르면 반드시 다시 부르게 하시고, 그 뒤에 따라 부르셨다.

7.32

子曰：「文，莫吾猶人也。
躬行君子，則吾未之有得。」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글이라면 나도 남만큼은 할 것이다.
그러나 몸소 군자의 도를 행하는 일은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7.33

子曰：「若聖與仁，則吾豈敢？
抑為之不厭，誨人不倦，則可謂云爾已矣。」
公西華曰：「正唯弟子不能學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성인이나 어진 사람이라면 내가 어찌 감히 그렇다 하겠느냐?
다만 그 도를 행하기에 싫증 내지 않고 남을 가르치기에 지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있을 뿐이다."
공서화가 말했다. "바로 그것이 저희 제자들이 배우지 못하는 점입니다."

7.34

子疾病，子路請禱。
子曰：「有諸？」
子路對曰：「有之。
誄曰：『禱爾于上下神祇。』」
子曰：「丘之禱久矣。」

공자께서 병이 깊어지자 자로가 기도를 드리겠다고 청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일이 있느냐?"
자로가 대답했다. "있습니다.
뇌문에 '너를 위해 하늘과 땅의 신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1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기도한 지 오래되었다."

7.35

子曰：「奢則不孫，儉則固。
與其不孫也，寧固。」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치하면 공손하지 못하고, 검소하면 고루하다.
공손하지 못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편이 낫다."

7.36

子曰：「君子坦蕩蕩，小人長戚戚。」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너그럽고 넉넉하며, 소인은 늘 근심하고 초조하다."

7.37

子溫而厲，威而不猛，恭而安。

공자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엄숙하셨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으셨고, 공손하면서도 편안하셨다.

---

1. 노팽(老彭)은 은나라의 현명한 대부로, 옛것을 잘 전했다고 한다. 노자와 팽조로 나누어 읽는 설도 있다.

2. 주나라 무왕의 아우 희단(姬旦). 조카 성왕을 도와 주나라의 예악을 세웠고, 노나라의 시조가 되었다. 공자가 가장 높이 받든 옛사람이다.

3. 예(藝)는 여섯 가지 기예, 곧 예법·음악·활쏘기·말 몰기·글씨·셈을 말한다.

4. 위나라 임금 출공(出公) 첩(輒). 할아버지 영공이 죽자 임금이 되었는데, 쫓겨났던 아버지 괴외(蒯聵)가 돌아와 자리를 다투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라를 다툰 일을, 나라를 서로 사양한 백이·숙제에 견주어 물은 것이다.

5. 「五十以學易」를 노논어(魯論語)는 「亦可以學」(이렇게 배우면)으로 적었다고 한다. 그러면 『역』이 나오지 않는다.

6. 아언(雅言)은 주나라 왕도의 바른 말. 평소에는 노나라 말을 쓰셨다는 뜻이다.

7. 섭공은 초나라 섭(葉) 땅의 장관 심제량(沈諸梁). 스스로 공(公)이라 일컬었다.

8. 송나라의 사마(司馬). 공자가 송나라를 지날 때 나무 아래서 제자들과 예를 익히자, 그 나무를 베어 넘기며 공자를 죽이려 했다고 한다.

9. 호향(互鄕)은 고을 이름.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10. 사패(司敗)는 진(陳)나라의 법관 벼슬. 소공은 노나라 임금(재위 기원전 541~510년)으로, 예에 밝다는 평판이 있었다.

11. 공자의 제자 무마시(巫馬施). 무마기는 그의 자다.

12. 주나라 예법은 같은 성끼리 혼인하지 않는다. 노나라와 오나라는 모두 희(姬)성이라, 오나라 공주를 성 대신 오맹자라 불러 감추었다.

13. 뇌(誄)는 죽은 이를 기리거나 신에게 복을 비는 글. 원문의 上下神祇는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다.

제8편 태백(泰伯)

8.1

子曰：「泰伯其可謂至德也已矣。
三以天下讓，民無得而稱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태백은 지극한 덕을 지녔다고 할 만하다.[1]
세 번이나 천하를 사양했는데, 백성은 그를 기릴 길조차 찾지 못했다."

8.2

子曰：「恭而無禮則勞，慎而無禮則葸，勇而無禮則亂，直而無禮則絞。
君子篤於親，則民興於仁。
故舊不遺，則民不偷。」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손하되 예가 없으면 수고롭고, 삼가되 예가 없으면 겁을 내고, 용감하되 예가 없으면 어지럽고, 곧되 예가 없으면 각박하다.
군자가 어버이에게 도타우면 백성 사이에 인이 일어나고,
옛 벗을 버리지 않으면 백성이 야박해지지 않는다."

8.3

曾子有疾，召門弟子曰：「啟予足！
啟予手！
詩云：『戰戰兢兢，如臨深淵，如履薄冰。』
而今而後，吾知免夫！
小子！」

증자가 병이 들자 문하의 제자들을 불러 말했다. "내 발을 펴 보아라!
내 손을 펴 보아라!
『시』에 '두려워하고 조심하기를 깊은 못가에 선 듯,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라 했다.
이제야 나는 몸을 상하게 할까 하는 걱정을 면한 줄 알겠다!
얘들아!"[2]

8.4

曾子有疾，孟敬子問之。
曾子言曰：「鳥之將死，其鳴也哀；
人之將死，其言也善。
君子所貴乎道者三：動容貌，斯遠暴慢矣；
正顏色，斯近信矣；
出辭氣，斯遠鄙倍矣。
籩豆之事，則有司存。」

증자가 병이 들자 맹경자가 문병을 왔다.[3]
증자가 말했다. "새가 죽을 때는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착하다고 하오.
군자가 도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 있소. 몸가짐을 움직일 때는 사납고 거만함을 멀리하고,

얼굴빛을 바로 할 때는 미더움에 가깝게 하고,
말을 낼 때는 비루하고 이치에 어긋남을 멀리하는 것이오.
제기를 벌이는 일 같은 것은 맡은 관리가 있소."

8.5

曾子曰：「以能問於不能，以多問於寡，有若無，實若虛，犯而不校，
昔者吾友，嘗從事於斯矣。」

증자가 말했다. "능하면서도 능하지 못한 이에게 묻고, 많이 알면서도 적게 아는 이에게 묻고, 있어도 없는 듯하고, 꽉 찼어도 빈 듯하며, 누가 덤벼도 따지지 않는 것, 예전에 내 벗이 이렇게 살았다."[4]

8.6

曾子曰：「可以託六尺之孤，可以寄百里之命，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君子人也。」

증자가 말했다. "여섯 자 키의 어린 임금을 맡길 수 있고, 사방 백 리 나라의 명운을 부탁할 수 있으며, 큰일에 닥쳐서도 그 뜻을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다운 사람인가? 군자다운 사람이다."[5]

8.7

曾子曰：「士不可以不弘毅，任重而道遠。
仁以為己任，不亦重乎，死而後已，不亦遠乎。」

증자가 말했다. "선비는 뜻이 넓고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
인을 제 짐으로 삼았으니 무겁지 않은가? 죽은 뒤에야 그치니 멀지 않은가?"

8.8

子曰：「興於詩，立於禮，成於樂。」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에서 일어나고, 예에서 서며, 음악에서 이룬다."

8.9

子曰：「民可使由之，不可使知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은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까닭을 다 알게 할 수는 없다."

8.10

子曰：「好勇疾貧，亂也。
人而不仁，疾之已甚，亂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좋아하면서 가난을 싫어하면 난을 일으킨다.
사람이 어질지 못하다고 너무 심하게 미워해도 난을 일으킨다."

8.11

子曰：「如有周公之才之美，使驕且吝，其餘不足觀也已。」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주공만 한 재주와 아름다움이 있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

8.12

子曰：「三年學，不至於穀，不易得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 년을 배우고도 녹봉에 뜻이 이르지 않는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없다."

8.13

子曰：「篤信好學，守死善道。
危邦不入，亂邦不居，天下有道則見，無道則隱。
邦有道，貧且賤焉，恥也，邦無道，富且貴焉，恥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타이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죽음으로 지켜 도를 잘 행한다.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머물지 않으며,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 드러내고 도가 없으면 숨는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 가난하고 천하면 부끄러운 일이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부유하고 귀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8.14

子曰：「不在其位，不謀其政。」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꾀하지 않는다."

8.15

子曰：「師摯之始，關雎之亂，洋洋乎盈耳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악사 지가 연주를 시작할 때부터 「관저」의 끝 악장에 이르기까지, 넘실넘실 귀에 가득하구나."[6]

8.16

子曰：「狂而不直，侗而不愿，悾悾而不信，吾不知之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뜻만 크고 곧지 않으며, 미련하면서 성실하지 않으며, 무능하면서 미덥지도 않은 사람은 나도 어찌할 줄 모르겠다."

8.17

子曰：「學如不及，猶恐失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움은 따라가지 못할까 하듯 하고, 그러고도 잃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8.18

子曰：「巍巍乎，舜禹之有天下也，而不與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드높구나, 순임금과 우임금은 천하를 가지고도 그것에 매이지 않으셨다."[7]

8.19

子曰：「大哉堯之為君也，巍巍乎，唯天為大，唯堯則之，蕩蕩乎，
民無能名焉。
巍巍乎，其有成功也，煥乎，其有文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위대하구나, 요임금의 임금 노릇이여! 드높구나, 오직 하늘만이 크신데 오직 요임금만이 그것을 본받으셨다. 넓고도 넓어 백성이 이름 붙일 수조차 없었다.
드높구나, 그 이루신 공이여! 빛나는구나, 그 문물이여!"

8.20

舜有臣五人，而天下治。
武王曰：「予有亂臣十人。」
孔子曰：「才難，不其然乎，唐虞之際，於斯為盛，有婦人焉，九人而已。
三分天下有其二，以服事殷，周之德，其可謂至德也已矣。」

순임금에게는 신하 다섯 사람이 있어 천하가 다스려졌다.[8]
무왕이 말했다. "나에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 열 사람이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재를 얻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요임금과 순임금 이래로 이때가 가장 성했으나, 그 가운데 부인이 한 사람 있었으니 아홉 사람일 뿐이다.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그 둘을 가지고도 은나라를 섬겼으니, 주나라의 덕은 지극한 덕이라 할 만하다."[9]

8.21

子曰：「禹吾無間然矣，菲飲食，而致孝乎鬼神，惡衣服，而致美乎黻冕，

卑宮室，而盡力乎溝洫，禹吾無間然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임금은 내가 흠잡을 데가 없다. 음식은 소박하게 하면서 귀신에게는 효성을 다했고, 의복은 검소하게 하면서 제례 때 입는 슬갑과 면류관은 아름다움을 다했고, 궁실은 낮게 지으면서 봇도랑을 내는 데는 힘을 다했다. 우임금은 내가 흠잡을 데가 없다."

---

1. 주나라 태왕(太王)의 맏아들. 태왕이 셋째 아들 계력(季歷)과 그 아들 창(昌, 뒤의 문왕)에게 나라를 물려주려 하자, 아우 중옹과 함께 남쪽 오랑캐 땅으로 떠나 자리를 사양했다.

2.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 다치지 않게 지키는 것을 효의 시작으로 여겼다. 『시』의 구절은 소아(小雅) 「소민(小旻)」이다.

3. 노나라 대부 중손첩(仲孫捷). 맹무백의 아들이다.

4. 이 벗을 집주는 안연으로 본다.

5. 여섯 자 키는 열너덧 살 된 아이를 말한다. 그 무렵의 한 자는 지금보다 짧았다.

6. 지(摯)는 노나라의 태사(악관의 우두머리). 난(亂)은 곡의 끝 악장이다.

7. 순은 요에게서, 우는 순에게서 천하를 물려받은 옛 성왕이다.

8. 우(禹)·직(稷)·설(契)·고요(皐陶)·백익(伯益)이라 한다.

9. 부인은 무왕의 어머니 태사(太姒) 또는 아내 읍강(邑姜)이라 한다. 천하의 셋 가운데 둘을 가지고도 은나라를 섬긴 것은 문왕의 일이다.

제9편 자한(子罕)

9.1

子罕言利，與命與仁。

공자께서는 이익과 명과 인을 드물게 말씀하셨다.[1]

9.2

達巷黨人曰，「大哉孔子，博學而無所成名。」
子聞之，謂門弟子曰，「吾何執？
執御乎，執射乎？
吾執御矣。」

달항 마을 사람이 말했다.[2] "위대하구나, 공자는! 널리 배웠으나 어느 한 가지로 이름을 이루지는 않았구나."
공자께서 그 말을 듣고 문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무엇을 잡을까?
말 몰기를 잡을까, 활쏘기를 잡을까?
나는 말 몰기를 잡겠다."

9.3

子曰：「麻冕，禮也。
今也純儉，吾從眾。
拜下，禮也。
今拜乎上，泰也，雖違眾，吾從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베로 짠 관을 쓰는 것이 예다.
지금은 명주로 쓰니 검소하다. 나는 여러 사람을 따르겠다.
당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다.
지금은 당 위에서 절하니 교만하다. 여러 사람과 어긋나더라도 나는 당 아래에서 절하겠다."

9.4

子絕四，毋意，毋必，毋固，毋我。

공자께서는 네 가지를 끊으셨다. 억측하지 않으셨고, 꼭 그래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고, 고집하지 않으셨고, 나를 내세우지 않으셨다.

9.5

子畏於匡。
曰：「文王既沒，文不在茲乎，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斯文也。
匡人其如予何。」

공자께서 광 땅에서 위험에 처하셨다.[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문왕께서 돌아가셨으니 문화가 여기 나에게 있지

않겠느냐? 하늘이 이 문화를 없애려 했다면,
뒤에 죽는 나는 이 문화에 함께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늘이 이 문화를 아직 없애지 않으려 하니,
광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9.6

大宰問於子貢曰：「夫子聖者與！
何其多能也？」
子貢曰：「固天縱之將聖，又多能也。」
子聞之曰：「大宰知我乎？
吾少也賤，故多能鄙事。
君子多乎哉？
不多也！」
牢曰：「子云：『吾不試，故藝。』」

태재가 자공에게 물었다.[4] "그대의 선생은 성인이시오?
어찌 그리 재주가 많으시오?"
자공이 말했다. "본디 하늘이 놓아주어 성인이 되게 하셨고, 또 재주도 많으십니다."
공자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태재가 나를 아는구나.
나는 어려서 천했기 때문에 비천한 일에 재주가 많다.
군자는 재주가 많아야 하는가?
많지 않아도 된다."
뇌가 말했다.[5] "선생님께서 '나는 등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재주를 익혔다'고 말씀하셨다."

9.7

子曰：「吾有知乎哉？
無知也。
有鄙夫問於我，空空如也；
我叩其兩端而竭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아는 것이 없다.
어떤 촌사람이 나에게 물었는데 텅 비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 물음의 양 끝을 두드려 다 밝혀 주었을 뿐이다."

9.8

子曰：「鳳鳥不至，河不出圖，吾已矣乎！」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봉황새도 오지 않고 황하에서 그림도 나오지 않으니, 나는 끝났구나!"[6]

9.9

子見齊衰者，冕衣裳者，與瞽者見之，雖少必作，過之必趨。

공자께서는 상복을 입은 사람, 관복을 갖추어 입은 사람, 눈먼 사람을 보시면 그가 비록 젊더라도 반드시 일어나셨고, 그 앞을 지나실 때는 반드시 종종걸음을 하셨다.

9.10

顏淵喟然嘆曰：「仰之彌高，鑽之彌堅，瞻之在前，忽焉在後！
夫子循循然善誘人，博我以文，約我以禮。
欲罷不能，既竭吾才，如有所立，卓爾。
雖欲從之，末由也已！」

안연이 한숨 쉬며 감탄했다.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굳으며, 바라보면 앞에 있다가 홀연 뒤에 있구나!
선생님께서는 차근차근 사람을 잘 이끄시어, 글로 나를 넓혀 주시고 예로 나를 단속해 주신다.
그만두려 해도 그만둘 수 없어 내 재주를 다하고 나면, 무언가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인다.
그것을 따르려 해도 따라갈 길이 없구나!"

9.11

子疾病，子路使門人為臣，病間曰：「久矣哉，由之行詐也！
無臣而為有臣，吾誰欺？
欺天乎？
且予與其死於臣之手也，無寧死於二三子之手乎？
且予縱不得大葬，予死於道路乎？」

공자께서 병이 깊어지자 자로가 문인들을 가신으로 삼았다. 병이 조금 나아지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래되었구나, 유가 속임수를 쓴 지가! 가신이 없는데 가신이 있는 체하니 내가 누구를 속이겠느냐?
하늘을 속이겠느냐?
게다가 나는 가신의 손에서 죽기보다 차라리 너희 손에서 죽겠다.
또 내가 큰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 해도 길바닥에서 죽기야 하겠느냐?"[7]

9.12

子貢曰：「有美玉於斯，韞匱而藏諸？
求善賈而沽諸？」
子曰：「沽之哉！
沽之哉！
我待賈者也！」

자공이 말했다. "여기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궤에 넣어 감추어
두시겠습니까?
좋은 값을 쳐줄 사람을 찾아 파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팔아야지!
팔아야지!
나는 값을 쳐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9.13

子欲居九夷。
或曰：「陋，如之何？」
子曰：「君子居之，何陋之有！」

공자께서 구이에 가서 살고 싶어 하셨다.[8]
어떤 사람이 말했다. "누추한 곳인데 어찌하시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거기 살면 무슨 누추함이 있겠소!"

9.14

子曰：「吾自衛反魯，然後樂正，雅頌，各得其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뒤에야 음악이 바로잡혀 아(雅)와 송(頌)이 저마다 제자리를 찾았다."[9]

9.15

子曰：「出則事公卿，入則事父兄，喪事不敢不勉，不為酒困，
何有於我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가서는 공경을 섬기고, 들어와서는 아버지와 형을 섬기고, 상을 당하면 감히 힘쓰지 않을 수 없고, 술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나에게 있겠는가!"

9.16

子在川上曰：「逝者如斯夫！
不舍晝夜。」

공자께서 냇가에서 말씀하셨다. "가는 것은 이와 같구나!
밤낮을 쉬지 않는다."

9.17

子曰：「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덕을 좋아하기를 미색 좋아하듯 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9.18

子曰：「譬如為山，未成一簣，止，吾止也！
譬如平地，雖覆一簣，進，吾往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산을 쌓는데 한 삼태기가 모자라 이루지 못했어도, 그만두었다면 내가 그만둔 것이다!
비유하자면 땅을 고르는데 겨우 한 삼태기를 부었어도, 나아갔다면 내가 나아간 것이다!"

9.19

子曰：「語之而不惰者，其回也與？」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해 주면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회일 것이다."

9.20

子謂顔淵曰：「惜乎！
吾見其進也，吾未見其止也！」

공자께서 안연을 두고 말씀하셨다. "아깝구나!
나는 그가 나아가는 것은 보았어도 멈추는 것은 보지 못했다!"

9.21

子曰：「苗而不秀者，有矣夫！
秀而不實者，有矣夫！」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싹이 트고도 꽃이 피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꽃이 피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9.22

子曰：「後生可畏，焉知來者之不如今也？
四十五十而無聞焉，斯亦不足畏也已！」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뒤에 난 사람이 두렵다. 앞으로 올 사람이 지금 사람만 못하리라고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마흔, 쉰이 되어도 이름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또한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

9.23

子曰：「法語之言，能無從乎？
改之為貴！
巽與之言，能無說乎？
繹之為貴！
說而不繹，從而不改，吾末如之何也已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바른말로 일러 주면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고치는 것이 귀하다!
부드럽게 이끌어 주는 말을 들으면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뜻을 풀어 헤아리는 것이 귀하다!
기뻐하면서 헤아리지 않고, 따르면서 고치지 않는다면 나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

9.24

子曰：「主忠信，毋友不如己者，過則勿憚改。」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실함과 미더움을 으뜸으로 삼고, 나만 못한 이를 벗으로 삼지 말며,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9.25

子曰：「三軍可奪帥也，匹夫不可奪志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군의 장수는 빼앗을 수 있어도, 한 사내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

9.26

子曰：「衣敝縕袍，與衣狐貉者立，而不恥者，其由也與！
不忮不求，何用不臧？」
子路終身誦之。
子曰：「是道也，何足以臧！」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해진 솜옷을 입고 여우 갖옷과 담비 갖옷을 입은 사람과 나란히 서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유일 것이다! '남을 해치지 않고 탐내지 않으니 어찌 착하지 않으랴?'"
자로가 이 구절을 평생 외우려 했다.[10]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 도이긴 하나 어찌 그것만으로 착하다 하겠느냐!"

9.27

子曰：「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날이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

9.28

子曰：「知者不惑，仁者不憂，勇者不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9.29

子曰：「可與共學，未可與適道；
可與適道，未可與立；
可與立，未可與權。」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함께 배울 수는 있어도 함께 도로 나아갈 수는 없는 사람이 있고,
함께 도로 나아갈 수는 있어도 함께 설 수는 없는 사람이 있고,
함께 설 수는 있어도 함께 저울질할 수는 없는 사람이 있다."[11]

9.30

「唐棣之華，偏其反而，豈不爾思？
室是遠而。」
子曰：「未之思也，夫何遠之有？」

"산앵두나무 꽃이 펄럭펄럭 나부끼네. 어찌 그대를 그리워하지 않으랴만,
집이 너무 멀구나."[12]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워한다면 무엇이 멀겠는가?"

---

1. 집주의 읽기를 따랐다. 여(與)를 「 함께하다 」 로 읽어 「 이익은 드물게 말씀하셨으나 명과 인은 늘 함께하셨다」로 읽는 설도 있다.

2. 달항(達巷)은 마을 이름. 당(黨)은 오백 집을 이르는 마을 단위다.

3. 광(匡)은 위나라의 고을. 노나라의 양호(陽虎)가 이곳 사람들을 괴롭힌 일이 있었는데, 공자의 생김새가 양호와 닮아 광 사람들이 공자를 에워쌌다.

4. 태재(大宰)는 벼슬 이름. 어느 나라의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5. 공자의 제자 금뢰(琴牢)라고 한다. 자는 자개(子開).

6. 봉황과 황하의 그림(하도, 河圖)은 성왕이 나타날 때 보인다는 상서로운 징조다.

7. 공자는 이때 대부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어 가신을 둘 수 없었다. 자로가 대부의 예로 장례를 치르려고 문인들을 가신으로 꾸민 것이다.

8. 구이(九夷)는 동쪽의 여러 오랑캐 나라.

9. 아(雅)와 송(頌)은 『시』의 갈래로, 아는 조정의 노래, 송은 종묘 제사의 노래다.

10. 작은따옴표 안의 구절은 『시』 패풍(邶風) 「웅치(雄雉)」에서 온 것이다.

11. 권(權)은 저울추. 때와 형편에 맞게 가볍고 무거움을 헤아리는 일이다.

12. 지금 전하는 『시』에 없는 노래다.

제10편 향당(鄕黨)

10.1

孔子於鄕黨，恂恂如也，似不能言者。
其在宗廟朝廷，便便言，唯謹爾。

공자께서는 고향 마을에서는 공손하고 수수하여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같으셨다.
종묘와 조정에서는 말을 또렷하고 거침없이 하시되 오직 삼가셨다.

10.2

朝與下大夫言，侃侃如也；
與上大夫言，闇闇如也。
君在，踧踖如也，與與如也。

조정에서 하대부와 말씀하실 때는 부드럽고 즐거운 모습이셨고,
상대부와 말씀하실 때는 온화하면서도 바른 모습이셨다.
임금이 계실 때는 공경스러워 몸을 조심하시면서도 몸가짐이 알맞으셨다.

10.3

君召使擯，色勃如也。
足躩如也，揖所與立，左右手，衣前後，襜如也。
趨進，翼如也。
賓退，必復命，曰：「賓不顧矣。」

임금이 불러 손님을 맞게 하시면 얼굴빛이 긴장해 바뀌셨고,
걸음은 조심스러워 머뭇거리셨다. 함께 선 이들에게 읍할 때는 손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모으셨는데, 옷자락 앞뒤가 가지런히 흔들렸다.
종종걸음으로 나아가실 때는 새가 날개를 편 듯하셨다.
손님이 물러가면 반드시 임금께 돌아가 아뢰셨다. "손님께서 돌아보지
않고 가셨습니다."

10.4

入公門，鞠躬如也，如不容。
立不中門，行不履閾。
過位，色勃如也，足躩如也，其言似不足者。
攝齊升堂，鞠躬如也，屛氣似不息者。
出，降一等，逞顏色，怡怡如也；
沒階趨進，翼如也；
復其位，踧踖如也。

궁궐 문에 들어설 때는 몸을 굽히시어, 문이 몸을 다 받아 주지 못하는
듯하셨다.
문 한가운데에 서지 않으셨고, 다니실 때 문지방을 밟지 않으셨다.
임금의 빈자리를 지나실 때는 얼굴빛이 긴장해 바뀌셨고, 걸음은
조심스러워 머뭇거리셨으며, 말씀은 모자란 듯하셨다.
옷자락을 들고 당에 오르실 때는 몸을 굽히시고, 숨을 죽여 쉬지 않는

듯하셨다.
나오셔서 한 계단을 내려서면 얼굴빛을 펴시어 기쁘고 편안한 모습이셨다.
계단을 다 내려와 종종걸음으로 나아가실 때는 새가 날개를 편 듯하셨고,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다시 공경스러워 몸을 조심하셨다.

10.5

執圭，鞠躬如也；
如不勝。
上如揖，下如授，勃如戰色，足縮縮如有循。
享禮有容色，私覿愉愉如也。

규(圭)를 잡으실 때는 몸을 굽히시어,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듯하셨다.[1]
위로 들 때는 읍하는 듯, 아래로 내릴 때는 무엇을 건네는 듯하셨고,
얼굴빛은 떨리는 듯 긴장하셨으며, 걸음은 발꿈치를 끌듯 종종거리며 줄을 따르는 듯하셨다.
예물을 드리는 의식에서는 얼굴빛이 온화하셨고, 사사로이 만나 뵐 때는 즐겁고 화기로우셨다.

10.6

君子不以紺緅飾，紅紫不以為褻服；
當暑，袗絺綌，必表而出之。
緇衣羔裘，素衣麑裘，黃衣狐裘。
褻裘長，短右袂。
必有寢衣，長一身有半。
狐貉之厚以居。
去喪無所不佩。
非帷裳，必殺之。
羔裘玄冠，不以弔。
吉月，必朝服而朝。

군자는 감색과 검붉은 비단으로 옷깃을 꾸미지 않았고, 붉은색과 자주색으로 평상복을 짓지 않았다.[2]
더운 철에는 홑겹 칡베옷을 입되 반드시 겉옷을 걸치고 나가셨다.
검은 옷에는 검은 염소 갖옷을, 흰 옷에는 새끼 사슴 갖옷을, 누런 옷에는 여우 갖옷을 받쳐 입으셨다.
평상시의 갖옷은 길게 하되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하셨다.
반드시 잠옷을 두셨는데 길이가 키의 한 배 반이었다.
여우와 담비의 두꺼운 털가죽을 깔고 지내셨다.
상을 벗으면 차지 않는 패물이 없으셨다.
조회와 제사 때 입는 치마가 아니면 반드시 폭을 줄여 지으셨다.
검은 염소 갖옷과 검은 관 차림으로는 조문하지 않으셨다.
초하루에는 반드시 조복을 입고 조회에 나가셨다.

10.7

齊，必有明衣布。
齊，必變食。
居，必遷坐。

재계할 때는 반드시 깨끗한 베로 지은 목욕옷을 두셨다.
재계할 때는 반드시 음식을 바꾸셨고,
거처할 때도 반드시 자리를 옮기셨다.

10.8

食不厭精，膾不厭細。
食饐而餲，魚餒而肉敗不食，色惡不食，臭惡不食，失飪不食，
不時不食，割不正不食，不得其醬不食。
肉雖多，不使勝食氣。
惟酒無量，不及亂。
沽酒，市脯，不食。
不撤薑食。
不多食。
祭於公，不宿肉。
祭肉，不出三日；
出三日，不食之矣。
食不語，寢不言。
雖疏食，菜羹，瓜祭，必齊如也。

밥은 정한 쌀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회는 가늘게 썬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밥이 쉬어 맛이 변한 것, 생선이 상하고 고기가 썩은 것은 드시지
않았다. 빛깔이 나쁜 것도, 냄새가 나쁜 것도, 제대로 익히지 않은 것도,

제철이 아닌 것도, 반듯하게 썰지 않은 것도, 알맞은 장이 없는 것도 드시지 않았다.
고기가 많아도 밥 기운을 넘지 않게 하셨다.
오직 술만은 양을 정해 두지 않으셨으나 어지러운 데까지 이르지는 않으셨다.
사 온 술과 저자에서 산 육포는 드시지 않았다.
생강은 물리지 않고 드셨으나,
많이 드시지는 않았다.
나라의 제사를 돕고 받은 고기는 밤을 넘기지 않으셨다.
집안 제사의 고기는 사흘을 넘기지 않으셨고,
사흘이 지나면 드시지 않았다.
드실 때는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잠자리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거친 밥과 나물국이라도 먼저 덜어 고수레하시되 반드시 재계한 듯 엄숙하셨다.[3]

10.9

席不正不坐。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

10.10

鄕人飮酒，杖者出，斯出矣。
鄕人儺，朝服而立於阼階。

마을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는 지팡이 짚은 노인이 나가면 그제야 나가셨다.
마을 사람들이 역귀를 쫓는 굿을 하면 조복을 입고 동쪽 섬돌에 서 계셨다.[4]

10.11

問人於他邦，再拜而送之。
康子饋藥，拜而受之，曰：「丘未達，不敢嘗。」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안부를 물을 때는 심부름 가는 사람에게 두 번 절하고 보내셨다.
강자가 약을 보내오자 절하고 받으시며 말씀하셨다.[5] "나는 이 약을 잘 알지 못하니 감히 맛보지 못하겠소."

10.12

廐焚，子退朝，曰：「傷人乎？」
不問馬。

마구간에 불이 났다. 공자께서 조정에서 물러 나와 말씀하셨다. "사람이 다쳤느냐?"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10.13

君賜食，必正席先嘗之。
君賜腥，必熟而薦之。
君賜生，必畜之。
侍食於君，君祭先飯。
疾君視之，東首，加朝服拖紳。
君命召，不俟駕行矣。

임금이 음식을 내리시면 반드시 자리를 바로 하고 먼저 맛보셨다.
임금이 날고기를 내리시면 반드시 익혀 조상께 올리셨다.
임금이 산 짐승을 내리시면 반드시 기르셨다.
임금을 모시고 식사할 때는 임금이 고수레하는 동안 먼저 밥을 드셨다.[6]
병이 들어 임금이 문병을 오시면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조복을 몸 위에 덮고 큰 띠를 그 위에 걸쳐 두셨다.
임금이 명하여 부르시면 수레에 말 매기를 기다리지 않고 걸어서 가셨다.

10.14

入大廟，每事問。

태묘에 들어가 일마다 물으셨다.

10.15

朋友死，無所歸，曰：「於我殯。」
朋友之饋，雖車馬，非祭肉，不拜。

벗이 죽었는데 거두어 줄 사람이 없으면 말씀하셨다. "우리 집에 빈소를 차려라."
벗이 보낸 선물은 수레와 말이라도 제사 고기가 아니면 절하지 않으셨다.

10.16

寢不尸，居不容。
見齊衰者，雖狎必變。
見冕者與瞽者，雖褻必以貌。
凶服者式之；
式負版者，有盛饌，必變色而作。
迅雷風烈必變。

잠잘 때는 송장처럼 눕지 않으셨고, 집에 계실 때는 꾸민 몸가짐을 하지 않으셨다.
상복 입은 사람을 보시면 허물없는 사이라도 반드시 얼굴빛을 바꾸셨다.
관을 쓴 사람과 눈먼 사람을 보시면 자주 만나는 사이라도 반드시 예모를 갖추셨다.
상복 입은 사람에게는 수레 앞 가로대를 잡고 몸을 굽히셨고,
나라의 호적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도 몸을 굽히셨다. 성대한 음식을 대접받으면 반드시 얼굴빛을 바꾸고 일어나셨다.
갑작스러운 우레와 사나운 바람에는 반드시 얼굴빛을 바꾸셨다.

10.17

升車，必正立執綏。
車中不內顧，不疾言，不親指。

수레에 오를 때는 반드시 바로 서서 손잡이 끈을 잡으셨다.
수레 안에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고, 말을 빨리 하지 않으셨고,
손가락으로 이것저것 가리키지 않으셨다.

10.18

色斯舉矣，翔而後集。
曰：「山梁雌雉，時哉時哉！」
子路共之，三嗅而作。

사람의 낌새를 보자 새가 날아올라 빙빙 돌다가 내려앉았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산골짜기 다리 위의 까투리여, 때를 아는구나,
때를 아는구나!"
자로가 그 새에게 손을 모으자, 세 번 냄새를 맡고는 날아갔다.[7]

---

1. 규(圭)는 제후가 임금의 사신으로 갈 때 받들고 가는 옥으로 된 홀이다.

2. 이 편의 「군자」는 공자를 가리킨다. 감색과 검붉은빛은 재계와 상례의 빛깔이고, 붉은색과 자주색은 정색이 아닌 사이 빛깔이라 평상복에 쓰지 않았다고 한다.

3. 고수레(祭)는 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 덜어 처음 음식을 만든 이에게 바치는 예다. 원문의 「瓜祭」는 「必祭」의 잘못이라는 설을 따랐다.

4. 나(儺)는 섣달에 역귀를 쫓는 굿. 동쪽 섬돌(阼階)은 주인이 서는 자리로, 조상의 신령이 놀라지 않게 지킨 것이라 한다.

5. 노나라 대부 계강자.

6. 임금이 고수레할 때 먼저 밥을 드신 것은 맛을 보아 드리는 예라고 한다.

7. 이 장은 앞뒤에 빠진 글이 있는 듯해 읽기가 크게 갈린다. 공(共)을 「손을 모으다」로, 嗅를 「냄새 맡다」로 읽었다. 자로가 새를 잡아 바치자 공자가 세 번 냄새만 맡고 일어나셨다고 읽는 설도 있다.

제11편 선진(先進)

11.1

子曰：「先進於禮樂，野人也；
後進於禮樂，君子也。
如用之，則吾從先進。」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와 음악에서 앞 세대 사람들은 촌사람이요,
예와 음악에서 뒤 세대 사람들은 군자라 한다.
그러나 내가 쓴다면 나는 앞 세대 사람들을 따르겠다."

11.2

子曰：「從我於陳蔡者，皆不及門也。」
德行：顏淵、閔子騫、冉伯牛、仲弓；
言語：宰我、子貢；
政事：冉有、季路；
文學：子游、子夏。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나를 따르던 이들이 이제 모두 내 문하에 없구나."[1]
덕행에는 안연·민자건·염백우·중궁이 있었고,
언변에는 재아·자공이 있었고,

정사에는 염유·계로가 있었고,
글과 학문에는 자유·자하가 있었다.

11.3

子曰：「回也，非助我者也！
於吾言，無所不說。」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
내 말이라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구나."

11.4

子曰：「孝哉閔子騫，人不間於其父母昆弟之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효성스럽구나, 민자건은! 남들이 그 부모와
형제가 그를 칭찬하는 말에 토를 달지 못한다."

11.5

南容三復白圭，孔子以其兄之子妻之。

남용이 「백규」의 구절을 하루에 세 번씩 되풀이해 외우자, 공자께서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2]

11.6

季康子問：「弟子孰為好學？」
孔子對曰：「有顏回者好學，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

계강자가 물었다. "제자 가운데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오?"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안회라는 사람이 배우기를 좋아했는데, 불행히도 명이 짧아 죽었소!
지금은 없소."

11.7

顏淵死，顏路請子之車以為之椁。
子曰：「才不才，亦各言其子也。
鯉也死，有棺而無椁；
吾不徒行，以為之椁，以吾從大夫之後，不可徒行也。」

안연이 죽자 안로가 공자의 수레를 팔아 덧널을 마련하게 해 달라고 청했다.[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재주가 있든 없든 저마다 제 자식을 말하는 법이오.
내 아들 리가 죽었을 때도 널은 있었으나 덧널은 없었소.[4]
내가 걸어 다니면서 덧널을 마련해 주지 않은 것은, 나도 대부의 뒤를 따르는 몸이라 걸어 다닐 수 없기 때문이오."

11.8

顏淵死，子曰：「噫！
天喪予！
天喪予！」

안연이 죽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아!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11.9

顏淵死，子哭之慟。
從者曰：「子慟矣！」
曰：「有慟乎！
非夫人之為慟而誰為！」

안연이 죽자 공자께서 곡을 하시며 몹시 애통해하셨다.
따르던 사람들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너무 애통해하십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무 애통해했느냐?
이 사람을 위해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 애통해하겠느냐!"

11.10

顏淵死，門人欲厚葬之，子曰：「不可。」
門人厚葬之。
子曰：「回也，視予猶父也，予不得視猶子也。
非我也，夫二三子也。」

안연이 죽자 문인들이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려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 된다."
문인들은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회는 나를 아버지처럼 여겼는데, 나는 그를 아들처럼 대하지 못했구나.
내 탓이 아니라 너희 탓이다."

11.11

季路問事鬼神。
子曰：「未能事人，焉能事鬼？」
「敢問死？」
曰：「未知生，焉知死？」

계로가 귀신 섬기는 일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
"감히 죽음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삶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11.12

閔子侍側，誾誾如也；
子路，行行如也；
冉有、子貢，侃侃如也。
子樂。
若由也，不得其死然。

민자는 곁에 모실 때 온화하면서도 바른 모습이었고,
자로는 꿋꿋하고 굳센 모습이었으며,

염유와 자공은 부드럽고 즐거운 모습이었다.
공자께서 즐거워하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유 같은 사람은 제명에 죽지 못할 것 같구나."

11.13

魯人為長府。
閔子騫曰：「仍舊貫，如之何？
何必改作！」
子曰：「夫人不言，言必有中。」

노나라 사람들이 장부라는 창고를 새로 지으려 했다.
민자건이 말했다. "옛것을 그대로 쓰면 어떻겠소?
어찌 꼭 고쳐 지어야 하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저 사람은 말을 잘 하지 않지만, 말을 하면
반드시 이치에 맞는다."

11.14

子曰：「由之瑟，奚為於丘之門？」
門人不敬子路。
子曰：「由也升堂矣！
未入於室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의 거문고 소리가 어찌 내 문에서 나는가?"
그러자 문인들이 자로를 공경하지 않았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는 대청에는 올랐다!
아직 방에 들어오지 못했을 뿐이다!"

11.15

子貢問：「師與商也孰賢？」
子曰：「師也過，商也不及。」
曰：「然則師愈與？」
子曰：「過猶不及。」

자공이 물었다. "사(師)와 상 가운데 누가 낫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
자공이 말했다. "그러면 사가 낫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11.16

季氏富於周公，而求也為之聚斂而附益之。
子曰：「非吾徒也，小子鳴鼓而攻之可也！」

계씨는 주공보다 부유한데 구가 그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 재산을 더 불려 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우리 무리가 아니다. 얘들아, 북을 울리며 그를 성토해도 좋다!"

11.17

柴也愚，參也魯，師也辟，由也喭。

시는 어리석고, 삼은 둔하고, 사(師)는 치우쳤고, 유는 거칠다.[5]

11.18

子曰：「回也其庶乎！
屢空，賜不受命，而貨殖焉；
億則屢中。」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회는 도에 가까웠구나!
그런데 자주 끼니가 비었다. 사는 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물을
불렸는데,
헤아리면 자주 들어맞았다."

11.19

子張問善人之道。
子曰：「不踐跡，亦不入於室。」

자장이 착한 사람의 도를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앞사람의 발자취를 밟지 않으니, 또한 방에도
들어오지 못한다."

11.20

子曰：「論篤是與，君子者乎？
色莊者乎？」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이 도탑다고 해서 그를 인정한다면, 그가
군자인가?
겉모습만 점잖은 사람인가?"

11.21

子路問：「聞斯行諸？」
子曰：「有父兄在，如之何其聞斯行之！」
冉有問：「聞斯行諸？」
子曰：「聞斯行之！」
公西華曰：「由也問：『聞斯行諸？』
子曰：『有父兄在。』
求也問：『聞斯行諸？』
子曰：『聞斯行之。』
赤也惑，敢問。」
子曰：「求也退，故進之；
由也兼人，故退之。」

자로가 물었다. "들으면 곧바로 행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형이 계신데 어찌 듣는 대로 곧바로 행하겠느냐!"
염유가 물었다. "들으면 곧바로 행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들으면 곧바로 행해야 한다!"
공서화가 말했다. "유가 '들으면 곧바로 행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는
선생님께서 '아버지와 형이 계시다'고 하셨고,
구가 '들으면 곧바로 행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는
선생님께서 '들으면 곧바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헷갈려 감히 여쭙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는 물러서는 성미라 나아가게 한 것이고,
유는 남보다 두 몫을 하려 드니 물러서게 한 것이다."

11.22

子畏於匡，顏淵後。
子曰：「吾以女為死矣！」
曰：「子在，回何敢死！」

공자께서 광 땅에서 위험에 처하셨을 때 안연이 뒤처졌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다!"
안연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11.23

季子然問：「仲由、冉求，可謂大臣與？」
子曰：「吾以子為異之問，曾由與求之問。
所謂大臣者，以道事君，不可則止；
今由與求也，可謂具臣矣。」
曰：「然則從之者與？」
子曰：「弒父與君，亦不從也。」

계자연이 물었다.[6] "중유와 염구는 대신이라 할 만하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가 남다른 것을 물으리라 여겼는데,
고작 유와 구를 묻는구려.
이른바 대신이란 도로 임금을 섬기다가 그럴 수 없으면 그만두는
사람이오.
지금 유와 구는 자리만 채운 신하라 할 만하오."
계자연이 말했다. "그렇다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이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임금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들도 따르지
않을 것이오."

11.24

子路使子羔為費宰。
子曰：「賊夫人之子！」
子路曰：「有民人焉，有社稷焉，何必讀書，然後為學？」
子曰：「是故惡夫佞者。」

자로가 자고를 비 땅의 읍재로 삼았다.[7]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의 집 자식을 해치는구나!"
자로가 말했다. "거기에는 백성이 있고 사직이 있는데, 어찌 꼭 글을 읽은 뒤라야 배운다고 하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래서 나는 말 잘하는 자를 미워한다."

11.25

子路、曾晳、冉有、公西華侍坐。
子曰：「以吾一日長乎爾，毋吾以也。
居則曰：『不吾知也！』
如或知爾，則何以哉？」
子路率爾而對曰：「千乘之國，攝乎大國之間，加之以師旅，因之以饑饉，
由也為之，比及三年，可使有勇，且知方也。」
夫子哂之。
「求，爾何如？」
對曰：「方六七十，如五六十，求也為之，比及三年，可使足民；
如其禮樂，以俟君子。」
「赤，爾何如？」
對曰：「非曰能之，願學焉！
宗廟之事，如會同，端章甫，願為小相焉。」
「點，爾何如？」
鼓瑟希，鏗爾，舍瑟而作。
對曰：「異乎三子者之撰。」
子曰：「何傷乎？
亦各言其志也。」
曰：「莫春者，春服既成；
冠者五六人，童子六七人，浴乎沂，風乎舞雩，詠而歸。」
夫子喟然嘆曰：「吾與點也！」
三子者出，曾晳後。
曾晳曰：「夫三子者之言何如？」
子曰：「亦各言其志也已矣！」
曰：「夫子何哂由也？」
曰：「為國以禮，其言不讓，是故哂之。」
「唯求則非邦也與？」
「安見方六七十，如五六十，而非邦也者。」
「唯赤，非邦也與？」

「宗廟會同，非諸侯而何？
赤也為之小，孰能為之大！」

자로·증석·염유·공서화가 공자를 모시고 앉아 있었다.[8]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보다 나이가 조금 많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늘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누군가 너희를 알아준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자로가 불쑥 나서서 대답했다. "병거 천 대를 내는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 끼여 있고, 군대의 침략을 받는 데다 기근까지 겹쳤다 해도, 제가
다스린다면 삼 년이면 백성을 용감하게 하고 또 바른 도리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 빙그레 웃으셨다.
"구야, 너는 어떠냐?"
염유가 대답했다. "사방 육칠십 리나 오륙십 리쯤 되는 나라를 제가
다스린다면, 삼 년이면 백성을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와 음악 같은 것은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적아, 너는 어떠냐?"
공서화가 대답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싶습니다.
종묘의 일이나 제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검은 예복을 입고 예관을 쓰고
작은 의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점아, 너는 어떠냐?"
증석은 비파를 타다가 소리를 늦추더니 쨍 하고 줄을 울리고는 비파를
내려놓고 일어났다.
증석이 대답했다. "세 사람이 말한 것과는 다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이 해롭겠느냐?
저마다 제 뜻을 말하는 것이다."
증석이 말했다. "늦봄에 봄옷이 다 지어지면,

관을 쓴 어른 대여섯 명, 아이 예닐곱 명과 함께 기수에서 몸을 씻고,
무우에서 바람을 쐬고, 노래를 읊으며 돌아오겠습니다."[9]
공자께서 크게 감탄하며 말씀하셨다. "나는 점과 함께하겠다!"
세 사람이 나가고 증석이 뒤에 남았다.
증석이 말했다. "저 세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저마다 제 뜻을 말했을 뿐이다."
증석이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어찌 유의 말에 웃으셨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는 예로 다스려야 하는데 그 말에 사양함이 없기에 웃었다."
"구가 말한 것은 나라가 아닙니까?"
"사방 육칠십 리나 오륙십 리라면서 어찌 나라가 아니라 하겠느냐?"
"적이 말한 것은 나라가 아닙니까?"
"종묘의 일과 제후들의 모임이 제후의 일이 아니면 무엇이냐?
적이 작은 일을 한다면 누가 큰일을 하겠느냐!"

---

1. 공자는 기원전 489년 무렵 진(陳)나라와 채(蔡)나라 사이에서 양식이 떨어져 고난을 겪었다(15.1). 「문하에 없다」를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다」로 읽는 설도 있다.

2. 「백규」는 『시』 대아(大雅) 「억(抑)」의 한 구절. 흰 옥의 티는 갈아 없앨 수 있지만 말의 흠은 어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3. 안로(顔路)는 안연의 아버지로, 그 역시 공자의 제자였다. 덧널(槨)은 널을 담는 바깥 관이다.

4. 리(鯉)는 공자의 아들 공리(孔鯉). 자는 백어(伯魚). 안연보다 먼저 죽었다.

5. 시(柴)는 공자의 제자 고시(高柴), 자는 자고(子羔). 삼은 증자, 사(師)는 자장, 유는 자로다. 이 장 앞에 「子曰」이 빠졌다고 보는 설이 있다.

6. 노나라 계씨 집안의 자제. 이때 중유와 염구가 계씨의 가신으로 있었다.

7. 고시(11.17). 이때 아직 나이가 어렸다.

8. 증석은 증자의 아버지 증점(曾點)으로, 그도 공자의 제자였다. 석(晳)은 그의 자다.

9. 기수(沂水)는 노나라 도성 남쪽의 강, 무우(舞雩)는 비를 비는 제단이 있던 언덕이다.

제12편 안연(顔淵)

12.1

顔淵問仁。
子曰：「克己復禮，為仁。
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焉。
為仁由己，而由人乎哉？」
顔淵曰：「請問其目？」
子曰：「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
顔淵曰：「回雖不敏，請事斯語矣！」

안연이 인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라도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온다.
인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서 비롯하지 남에게서 비롯하겠느냐?"
안연이 말했다. "그 조목을 여쭙고 싶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안연이 말했다. "저는 비록 둔하지만 이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12.2

仲弓問仁。
子曰：「出門如見大賓，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勿施於人。
在邦無怨，在家無怨。」
仲弓曰：「雍雖不敏，請事斯語。」

중궁이 인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문을 나서면 큰 손님을 뵙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라.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나라에서도 원망이 없고 집안에서도 원망이 없다."
중궁이 말했다. "저는 비록 둔하지만 이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12.3

司馬牛問仁。
子曰：「仁者，其言也訒。」
曰：「斯言也訒，斯謂之仁矣乎？」
子曰：「為之難，言之得無訒乎？」

사마우가 인을 물었다.[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진 사람은 말을 참아서 한다."
사마우가 말했다. "말을 참아서 하면 그것을 어질다고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행하기가 어려우니 말을 참아서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12.4

司馬牛問君子。
子曰：「君子不憂不懼。」
曰：「不憂不懼，斯謂之君子矣乎？」
子曰：「內省不疚，夫何憂何懼？」

사마우가 군자를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마우가 말했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군자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속으로 돌아보아 거리낌이 없는데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12.5

司馬牛憂曰：「人皆有兄弟，我獨亡！」
子夏曰：「商聞之矣：『死生有命，富貴在天』。
君子敬而無失，與人恭而有禮；
四海之內，皆兄弟也。
君子何患乎無兄弟也？」

사마우가 근심하며 말했다. "남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만 없구나!"
자하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렸고, 부유함과 귀함은 하늘에 있다'고 했네.
군자가 삼가서 잃음이 없고, 남과 사귀되 공손하고 예가 있으면,
온 세상 사람이 모두 형제일세.
군자가 어찌 형제 없음을 걱정하겠나?"

12.6

子張問「明」。
子曰：「浸潤之譖，膚受之愬，不行焉，可謂明也已矣。
浸潤之譖，膚受之愬，不行焉，可謂遠也已矣。」

자장이 밝음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물이 스며들 듯 서서히 젖어 드는 헐뜯음과 살갗에 닿듯 절박한 하소연이 통하지 않는다면 밝다고 할 만하다. 물이 스며들 듯 서서히 젖어 드는 헐뜯음과 살갗에 닿듯 절박한 하소연이 통하지 않는다면 멀리 본다고 할 만하다."

12.7

子貢問「政」。
子曰：「足食，足兵，民信之矣。」
子貢曰：「必不得已而去，於斯三者何先？」
曰：「去兵。」
子貢曰：「必不得已而去，於斯二者何先？」
曰：「去食。
自古皆有死，民無信不立。」

자공이 정치를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먹을 것을 넉넉히 하고, 군비를 넉넉히 하면, 백성이 믿을 것이다."
자공이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한다면 이 셋 가운데 무엇을 먼저 버립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비를 버린다."
자공이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한다면 이 둘 가운데 무엇을 먼저 버립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먹을 것을 버린다.
예로부터 누구에게나 죽음은 있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

12.8

棘子成曰：「君子質而已矣，何以文為？」
子貢曰：「惜乎，夫子之說君子也，駟不及舌！
文猶質也，質猶文也；
虎豹之鞟，猶犬羊之鞟。」

극자성이 말했다.[2] "군자는 바탕만 있으면 그만이지 꾸밈은 무엇 하겠소?"
자공이 말했다. "애석하구려, 그대가 군자를 말하는 것이!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도 혀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이오.
꾸밈은 바탕과 같고 바탕은 꾸밈과 같소.
범과 표범의 무두질한 가죽도 털을 뽑으면 개와 양의 무두질한 가죽과 같다오."

12.9

哀公問於有若曰：「年饑，用不足，如之何？」
有若對曰：「盍徹乎！」
曰：「二，吾猶不足，如之何其徹也？」
對曰：「百姓足，君孰與不足？
百姓不足，君孰與足？」

애공이 유약에게 물었다. "흉년이 들어 쓸 것이 모자라니 어찌하면 좋겠소?"

유약이 대답했다. "어찌 철법을 쓰지 않으십니까?"[3]
애공이 말했다. "열에 둘을 거두어도 나는 오히려 모자라는데 어찌 철법을 쓰겠소?"
유약이 대답했다. "백성이 넉넉하다면 임금께서는 누구와 더불어 모자라시겠습니까?
백성이 모자란다면 임금께서는 누구와 더불어 넉넉하시겠습니까?"

12.10

子張問「崇德，辨惑。」
子曰：「主忠信，徙義崇德也。
愛之欲其生，惡之欲其死；
既欲其生，又欲其死，是惑也！」
誠不以富，亦祇以異。

자장이 덕을 높이고 미혹을 가리는 법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실함과 미더움을 으뜸으로 삼고 의로움으로 옮겨 가는 것이 덕을 높이는 것이다.
사랑할 때는 살기를 바라고 미워할 때는 죽기를 바란다.
살기를 바라다가 또 죽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미혹이다!"
'참으로 부유해서가 아니라 다만 남다르기 때문이다.'[4]

12.11

齊景公問政於孔子。
孔子對曰：「君君，臣臣，父父，子子。」
公曰：「善哉！
信如君不君，臣不臣，父不父，子不子，雖有粟，吾得而食諸？」

제나라 경공이 공자께 정치를 물었다.[5]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합니다."
경공이 말했다. "좋은 말씀이오!
참으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다면, 곡식이 있다 한들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겠소?"

12.12

子曰：「片言可以折獄者，其由也與！」
子路無宿諾。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한마디 말로 송사를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유일 것이다!"
자로는 승낙한 일을 묵혀 두는 법이 없었다.

12.13

子曰：「聽訟，吾猶人也，必也使無訟乎！」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송사를 듣는 일은 나도 남과 같다. 반드시 송사가 없게 해야 한다!"

12.14

子張問「政」。
子曰：「居之無倦，行之以忠。」

자장이 정치를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리에 있을 때는 게을리하지 말고, 일을 행할 때는 충실하게 하라."

12.15

子曰：「博學於文，約之以禮，亦可以弗畔矣夫。」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글을 널리 배우고 예로 단속한다면 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12.16

子曰：「君子成人之美，不成人之惡。
小人反是。」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이루어 주고 남의 나쁜 점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
소인은 이와 반대다."

12.17

季康子問政於孔子，孔子對曰：「政者正也，子帥以正，孰敢不正？」

계강자가 공자께 정치를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정치(政)란 바로잡음(正)이오. 그대가 바르게 이끈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소?"

12.18

季康子患盜，問於孔子。
孔子對曰：「苟子之不欲，雖賞之不竊。」

계강자가 도둑이 많은 것을 걱정하여 공자께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진실로 그대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상을 준다 해도 훔치지 않을 것이오."

12.19

季康子問政於孔子曰：「如殺無道，以就有道，何如？」
孔子對曰：「子為政，焉用殺？
子欲善，而民善矣！
君子之德風，小人之德草，草上之風必偃。」

계강자가 공자께 정치를 물었다. "도가 없는 자를 죽여 도가 있는 이를 이루게 하면 어떻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그대가 정치를 하는데 어찌 죽이는 일을 쓰겠소? 그대가 착해지려 하면 백성도 착해질 것이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니,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는 법이오."

12.20

子張問士：「何如斯可謂之達矣？」
子曰：「何哉？
爾所謂達者！」
子張對曰：「在邦必聞，在家必聞。」
子曰：「是聞也，非達也。
夫達也者，質直而好義，察言而觀色，慮以下人；
在邦必達，在家必達。
夫聞也者：色取仁而行違，居之不疑；
在邦必聞，在家必聞。」

자장이 선비에 대해 물었다. "어떠해야 통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이냐?
네가 말하는 통달이란!"
자장이 대답했다. "나라에서도 반드시 이름이 나고, 집안에서도 반드시 이름이 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이름이 나는 것이지 통달이 아니다.
통달한 사람은 바탕이 곧고 의로움을 좋아하며, 남의 말을 살피고 얼굴빛을 보며, 생각을 깊이 하여 남에게 자신을 낮춘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반드시 통달하고 집안에서도 반드시 통달한다.
이름이 나는 사람은 얼굴빛으로는 인을 취하나 행실은 어긋나고, 그렇게 지내면서 스스로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반드시 이름이 나고 집안에서도 반드시 이름이 난다."

12.21

樊遲從遊於舞雩之下。
曰：「敢問崇德、修慝、辨惑？」
子曰：「善哉問！
先事後得，非崇德與？
攻其惡，無攻人之惡，非修慝與？
一朝之忿，忘其身以及其親，非惑與？」

번지가 공자를 따라 무우 아래를 거닐었다.
번지가 말했다. "덕을 높이고, 숨은 악을 다스리고, 미혹을 가리는 법을 감히 여쭙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좋구나, 그 물음이!
할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로 하는 것이 덕을 높이는 것 아니겠느냐?
제 악을 꾸짖고 남의 악을 꾸짖지 않는 것이 숨은 악을 다스리는 것 아니겠느냐?
하루아침의 분노로 제 몸을 잊고 그 화가 어버이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미혹이 아니겠느냐?"

12.22

樊遲問「仁」。
子曰：「愛人。」
問「知」。
子曰：「知人。」
樊遲未達。
子曰：「舉直錯諸枉，能使枉者直。」
樊遲退，見子夏曰：「鄉也，吾見於夫子而問『知』。
子曰：『舉直錯諸枉，能使枉者直。』
何謂也？」
子夏曰：「富哉言乎！
舜有天下，選於眾，舉皋陶，不仁者遠矣；
湯有天下，選於眾，舉伊尹，不仁者遠矣。」

번지가 인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혜를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아는 것이다."
번지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곧은 사람을 들어 써서 굽은 사람 위에 두면,
굽은 사람도 곧게 만들 수 있다."
번지가 물러 나와 자하를 만나 말했다. "아까 내가 선생님을 뵙고 지혜를 여쭈었더니,
선생님께서 '곧은 사람을 들어 써서 굽은 사람 위에 두면 굽은 사람도 곧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네.
무슨 뜻인가?"
자하가 말했다. "참으로 넉넉한 말씀일세!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뭇사람 가운데서 골라 고요를 들어 쓰니

어질지 못한 자들이 멀어졌고,[6]
탕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뭇사람 가운데서 골라 이윤을 들어 쓰니
어질지 못한 자들이 멀어졌다네."[7]

12.23

子貢問「友」。
子曰：「忠告而善道之，不可則止，毋自辱焉。」

자공이 벗 사귀는 법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심으로 일러 주고 잘 이끌어 주되, 듣지 않으면 그만두어 스스로 욕을 보지 마라."

12.24

曾子曰：「君子以文會友，以友輔仁。」

증자가 말했다. "군자는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

---

1. 공자의 제자 사마경(司馬耕). 자는 자우(子牛). 형 환퇴(7.22)가 송나라에서 난을 일으켜, 형제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았다(12.5).

2. 위나라의 대부.

3. 철(徹)은 수확의 열에 하나를 거두는 주나라의 세법이다.

4. 『시』 소아 「아행기야(我行其野)」의 구절. 집주는 이 두 구절이 16.12 앞에 있어야 할 것이 잘못 끼어든 것이라 보았다.

5. 제나라 임금. 재위 기원전 547~490년.

6. 고요(皐陶)는 순임금의 신하로 형벌과 옥사를 맡았다.

7. 탕(湯)은 은나라를 세운 임금, 이윤(伊尹)은 그를 도운 재상이다.

제13편 자로(子路)

13.1

子路問「政」。
子曰：「先之，勞之。」
請益。
曰：「無倦。」

자로가 정치를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앞장서고, 몸소 수고하라."
더 말씀해 주시기를 청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게을리하지 마라."

13.2

仲弓為季氏宰，問「政」。
子曰：「先有司，赦小過，舉賢才。」
曰：「焉知賢才而舉之？」
曰：「舉爾所知，爾所不知，人其舍諸！」

중궁이 계씨의 가신 우두머리가 되어 정치를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맡은 관리들을 앞세우고, 작은 허물은 용서하고, 어질고 재능 있는 이를 들어 써라."
중궁이 말했다. "어질고 재능 있는 이를 어떻게 알아보고 들어 씁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아는 이를 들어 써라. 네가 모르는 이를 남들이 버려두겠느냐!"

13.3

子路曰：「衛君待子而為政，子將奚先？」
子曰：「必也正名乎！」
子路曰：「有是哉？
子之迂也！
奚其正？」
子曰：「野哉，由也！
君子於其所不知，蓋闕如也。
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事不成，則禮樂不興；
禮樂不興，則刑罰不中；
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
故君子名之必可言也，言之必可行也。
君子於其言，無所苟而已矣！」

자로가 말했다. "위나라 임금께서 선생님을 기다려 정치를 맡기신다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겠다!"
자로가 말했다. "그런 것입니까?
선생님께서 너무 에두르십니다!
무엇을 바로잡으신다는 말씀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거칠구나, 유는!
군자는 자기가 모르는 일에는 말을 비워 두는 법이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하지 않고,
말이 순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와 음악이 일어나지 않고,
예와 음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알맞지 않고,
형벌이 알맞지 않으면 백성이 손발 둘 데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름을 붙이면 반드시 말할 수 있게 하고, 말하면
반드시 행할 수 있게 한다.
군자는 제 말에 구차한 데가 없게 할 따름이다!"

13.4

樊遲請學稼，子曰：「吾不如老農。」
請學為圃，曰：「吾不如老圃。」
樊遲出，子曰：「小人哉，樊須也！
上好禮，則民莫敢不敬；
上好義，則民莫敢不服；
上好信，則民莫敢不用情。
夫如是，則四方之民，襁負其子而至矣；
焉用稼！」

번지가 농사짓는 법을 배우겠다고 청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
채소 가꾸는 법을 배우겠다고 청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늙은 채마지기만 못하다."
번지가 나가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소인이로구나, 번수는!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백성이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의로움을 좋아하면 백성이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미더움을 좋아하면 백성이 감히 진심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사방의 백성이 자식을 포대기에 업고 모여들 것이다.
어찌 농사를 짓겠느냐!"

13.5

子曰：「誦詩三百，授之以政，不達；
使於四方，不能專對。
雖多，亦奚以為？」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 삼백 편을 외우더라도 정사를 맡겼는데 해내지 못하고,
사방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혼자 응대하지 못한다면,
많이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13.6

子曰：「其身正，不令而行；
其身不正，雖令不從。」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제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

13.7

子曰：「魯衛之政，兄弟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치는 형제와 같다."[1]

13.8

子謂衛公子荊善居室：「始有，曰『苟合矣』；
少有，曰『苟完矣』；
富有，曰『苟美矣。』」

공자께서 위나라 공자 형을 두고, 집안 살림을 잘한다고 말씀하셨다.[2]
"처음 조금 가졌을 때는 '그런대로 모였다'고 했고,
조금 더 가졌을 때는 '그런대로 갖추어졌다'고 했고,
넉넉히 가졌을 때는 '그런대로 아름답다'고 했다."

13.9

子適衛，冉有僕。
子曰：「庶矣哉！」
冉有曰：「既庶矣，又何加焉？」
曰：「富之。」
曰：「既富矣，又何加焉？」
曰：「教之。」

공자께서 위나라에 가실 때 염유가 수레를 몰았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많구나!"
염유가 말했다. "사람이 많아지면 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넉넉하게 해 주어야 한다."
염유가 말했다. "넉넉해지면 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쳐야 한다."

13.10

子曰：「苟有用我者，期月而已可也，三年有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를 써 준다면 한 해만 지나도 그런대로 될 것이고, 삼 년이면 이루는 것이 있을 것이다."

13.11

子曰：「『善人為邦百年，亦可以勝殘去殺矣。』
誠哉是言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착한 사람이 나라를 백 년 다스리면 잔혹함을 이겨 내고 사형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13.12

子曰：「如有王者，必世而後仁。」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왕도를 행하는 임금이 있다 해도 반드시 한 세대가 지난 뒤에야 인이 이루어질 것이다."[3]

13.13

子曰：「苟正其身矣，於從政乎何有？
不能正其身，如正人何？」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제 몸을 바르게 한다면 정사를 맡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제 몸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남을 어떻게 바르게 하겠는가?"

13.14

冉子退朝，子曰：「何晏也？」
對曰：「有政。」
子曰：「其事也！
如有政，雖不吾以，吾其與聞之！」

염자가 조정에서 물러 나오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늦었느냐?"
염자가 대답했다. "정사가 있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집안일이었겠지!
나라의 정사였다면 내가 쓰이지 않고 있더라도 나도 들었을 것이다!"[4]

13.15

定公問：「一言而可以興邦，有諸？」
孔子對曰：「言不可以若是其幾也！
人之言曰：『為君難，為臣不易。』
如知為君之難也，不幾乎一言而興邦乎？」
曰：「一言而喪邦，有諸？」
孔子對曰：「言不可以若是其幾也！
人之言曰：『予無樂乎為君，唯其言而莫予違也。』
如其善而莫之違也，不亦善乎？
如不善而莫之違也，不幾乎一言而喪邦乎？」

정공이 물었다.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는데, 그런 것이 있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말이 그처럼 딱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임금 노릇 하기 어렵고, 신하 노릇 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임금 노릇 하기 어려움을 안다면,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키는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정공이 말했다.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을 수 있다는데, 그런 것이 있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말이 그처럼 딱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나는 임금 노릇에 즐거움이 없고, 오직 내가 말하면 아무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즐거울 뿐이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옳아서 아무도 거스르지 않는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옳지 않은데도 아무도 거스르지 않는다면,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는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13.16

葉公問政。
子曰：「近者說，遠者來。」

섭공이 정치를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찾아오게 하는 것이오."

13.17

子夏為莒父宰問政。
子曰：「無欲速，無見小利。
欲速則不達，見小利則大事不成。」

자하가 거보의 읍재가 되어 정치를 물었다.[5]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빨리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지 마라. 빨리 하려 하면 이르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13.18

葉公語孔子曰：「吾黨有直躬者，其父攘羊而子證之。」
孔子曰：「吾黨之直者異於是，父為子隱，子為父隱，直在其中矣。」

섭공이 공자께 말했다. "우리 고장에 몸가짐이 곧은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것을 증언했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고장의 곧은 사람은 그와 다르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숨겨 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 주니, 곧음은 그 안에 있소."

13.19

樊遲問仁。
子曰：「居處恭，執事敬，與人忠，雖之夷狄，不可棄也。」

번지가 인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집에 있을 때는 공손하고, 일을 맡으면 공경하며, 남과 사귈 때는 충실하라. 오랑캐 땅에 가더라도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13.20

子貢問曰：「何如斯可謂之士矣？」
子曰：「行己有恥，使於四方，不辱君命，可謂士矣。」
曰：「敢問其次？」
曰：「宗族稱孝焉，鄉黨稱弟焉。」
曰：「敢問其次？」
曰：「言必信，行必果；
硜硜然，小人哉！
抑亦可以為次矣。」
曰：「今之從政者何如？」
子曰：「噫！
斗筲之人，何足算也！」

자공이 물었다. "어떠해야 선비라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 행실에 부끄러움을 알고, 사방에 사신으로 가서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선비라 할 만하다."
자공이 말했다. "감히 그다음을 여쭙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집안에서 효성스럽다고 일컫고, 마을에서 공손하다고 일컫는 사람이다."

자공이 말했다. "감히 그다음을 여쭙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은 반드시 미덥게 하고 행동은 반드시 끝을 보지만,
돌처럼 딱딱하게 구는 소인이다!
그래도 그다음은 될 수 있다."
자공이 말했다. "지금 정사를 맡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아!
한 말 두 되들이 그릇 같은 사람들을 어찌 셈에 넣겠느냐!"

13.21

子曰：「不得中行而與之，必也狂狷乎？
狂者進取，狷者有所不為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도를 행하는 사람을 얻어 함께할 수 없다면,
반드시 뜻이 큰 사람이나 고집스레 지키는 사람과 함께하겠다!
뜻이 큰 사람은 나아가 취하고, 고집스레 지키는 사람은 하지 않는 일이 있다."

13.22

子曰：「南人有言曰：『人而無恒，不可以作巫醫。』
善夫！
『不恒其德，或承之羞。』」
子曰：「不占而已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쪽 사람들 말에 '사람이 한결같지 않으면
무당도 의원도 될 수 없다'고 했다.
좋은 말이다!

'그 덕이 한결같지 않으면 늘 부끄러움을 당한다.'"[6]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점을 쳐 볼 것도 없다."

13.23

子曰：「君子和而不同，小人同而不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어울리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되 어울리지 못한다."

13.24

子貢問曰：「鄉人皆好之，何如？」
子曰：「未可也。」
「鄉人皆惡之，何如？」
子曰：「未可也。
不如鄉人之善者好之，其不善者惡之。」

자공이 물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직 안 된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직 안 된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착한 이들이 그를 좋아하고 착하지 않은 이들이
그를 미워하는 것만 못하다."

13.25

子曰：「君子易事而難說也，說之不以道，不說也，及其使人也，器之。小人難事而易說也，說之雖不以道，說也，及其使人也，求備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섬기기는 쉬워도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도로써 기쁘게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을 부릴 때는 그릇에 맞게 쓴다.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워도 기쁘게 하기는 쉽다. 도로써 기쁘게 하지 않아도 기뻐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부릴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추기를 바란다."

13.26

子曰：「君子泰而不驕，小人驕而不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느긋하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되 느긋하지 못하다."

13.27

子曰：「剛毅木訥，近仁。」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굳세고 꿋꿋하며 꾸밈없고 말이 어눌하면 인에 가깝다."

13.28

子路問曰：「何如斯可謂之士矣？」
子曰：「切切偲偲，怡怡如也，可謂士矣。
朋友切切偲偲，兄弟怡怡。」

자로가 물었다. "어떠해야 선비라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간절하게 권면하고 화기롭게 어울리면 선비라 할 만하다.
벗에게는 간절하게 권면하고, 형제와는 화기롭게 어울린다."

13.29

子曰：「善人教民七年，亦可以即戎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착한 사람이 백성을 칠 년 가르치면 그들을 싸움터에 나가게 할 수 있다."

13.30

子曰：「以不教民戰，是謂棄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데리고 싸우는 것, 이것을 백성을 버린다고 한다."

---

1. 노나라는 주공의 후손, 위나라는 주공의 아우 강숙(康叔)의 후손이 세운 나라다. 두 나라의 정치가 비슷하게 기울었다는 한탄으로 읽는다.

2. 위나라의 공자(公子, 임금의 아들) 형(荊). 원문의 子謂~善居室은 문장 밖 서술이라, 번역은 그 뒤 인용만 따옴표에 넣었다.

3. 세(世)는 삼십 년이다.

4. 염유가 섬기던 계씨 집안의 일을 나라의 정사라 한 것을 바로잡은 말이다. 공자는 이때 벼슬에서 물러나 있었으나 대부의 예우를 받고 있었다.

5. 거보(莒父)는 노나라의 고을.

6. 작은따옴표 안의 구절은 『역』 항괘(恒卦)의 효사다.

제14편 헌문(憲問)

14.1

憲問恥。
子曰：「邦有道穀，邦無道穀，恥也。」

헌이 부끄러움을 물었다.[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 녹을 받는 것, 나라에 도가 없을 때도 녹을 받는 것, 그것이 부끄러움이다."

14.2

「克伐怨欲，不行焉，可以為仁矣。」
子曰：「可以為難矣，仁則吾不知也。」

"이기려 들고, 자랑하고, 원망하고, 탐내는 마음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렵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어진지는 나도 모르겠다."

14.3

子曰：「士而懷居，不足以為士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가 편안한 거처를 그리워한다면 선비라 하기에 모자란다!"

14.4

子曰：「邦有道，危言危行；
邦無道，危行言孫。」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말을 곧게 하고 행동을 곧게 하며,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행동은 곧게 하되 말은 겸손하게 한다."

14.5

子曰：「有德者必有言，有言者不必有德。
仁者必有勇，勇者不必有仁。」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할 말이 있지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 반드시 어진 것은 아니다."

14.6

南宮适問於孔子曰：「羿善射，奡盪舟，俱不得其死然。
禹稷躬稼而有天下。」
夫子不答。
南宮适出，子曰：「君子哉若人！
尚德哉若人！」

남궁괄이 공자께 물었다. "예는 활을 잘 쏘았고 오는 땅 위로 배를 끌고 다닐 만큼 힘이 셌으나, 모두 제명에 죽지 못했습니다.[2]
우와 직은 몸소 농사를 지었는데 천하를 얻었습니다."[3]
공자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남궁괄이 나가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로구나, 이 사람은!
덕을 높이는구나, 이 사람은!"

14.7

子曰：「君子而不仁者有矣夫，未有小人而仁者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이면서 어질지 못한 사람은 있겠지만,
소인이면서 어진 사람은 아직 없었다."

14.8

子曰：「愛之，能勿勞乎？
忠焉，能勿誨乎？」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랑한다면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충실하다면 깨우쳐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14.9

子曰：「為命：裨諶草創之，世叔討論之，行人子羽修飾之，
東里子產潤色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나라에서 외교 문서를 지을 때는 비심이 초안을 잡고, 세숙이 따져 다듬고, 외교관 자우가 고쳐 꾸미고, 동리의 자산이 윤색했다."[4]

14.10

或問「子產」，子曰：「惠人也。」
問「子西」，曰：「彼哉彼哉！」
問「管仲」，曰：「人也，奪伯氏駢邑三百，飯疏食，沒齒無怨言。」

어떤 사람이 자산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혜로운 사람이오."
자서에 대해 묻자 말씀하셨다. "그 사람 말이오, 그 사람 말이오!"[5]
관중에 대해 묻자 말씀하셨다. "인물이오. 백씨의 병읍 삼백 호를 빼앗았는데, 백씨는 거친 밥을 먹으며 죽을 때까지 원망하는 말이 없었소."[6]

14.11

子曰：「貧而無怨難，富而無驕易。」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14.12

子曰：「孟公綽為趙魏老則優，不可以為滕薛大夫。」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맹공작은 조씨나 위씨 집안의 가로라면 넉넉하지만, 등나라나 설나라의 대부는 될 수 없다."[7]

14.13

子路問「成人」。
子曰：「若臧武仲之知，公綽之不欲，卞莊子之勇，冉求之藝，
文之以禮樂，亦可以為成人矣！」
曰：「今之成人者，何必然？
見利思義，見危授命，久要不忘平生之言，亦可以為成人矣！」

자로가 완성된 사람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무중의 지혜, 공작의 욕심 없음, 변장자의 용기, 염구의 재주에 예와 음악으로 꾸밈을 더한다면 완성된 사람이라 할 만하다!"[8]
또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의 완성된 사람이야 어찌 꼭 그래야 하겠느냐?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내놓고, 오래된 약속이라도 평소에 한 말을 잊지 않는다면, 그 또한 완성된 사람이라 할 만하다!"

14.14

子問「公叔文子」於公明賈，曰：「信乎？
夫子不言不笑不取乎？」
公明賈對曰：「以告者過也！
夫子時然後言，人不厭其言；
樂然後笑，人不厭其笑；
義然後取，人不厭其取。」
子曰：「其然！
豈其然乎？」

공자께서 공명가에게 공숙문자에 대해 물으셨다.[9] "정말이오?
그대의 주인은 말하지 않고, 웃지 않고,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명가가 대답했다. "말을 전한 사람이 지나쳤습니다!
그분은 때가 된 뒤에 말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하지 않고,
즐거운 뒤에 웃으시니 사람들이 그 웃음을 싫어하지 않고,
의로운 뒤에 취하시니 사람들이 그 취함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어찌 정말 그렇겠소?"

14.15

子曰：「臧武仲以防，求為後於魯，雖曰不要君，吾不信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무중이 방 땅을 차지하고서 노나라에 자기 후계를 세워 달라고 청했으니, 임금을 협박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믿지 않는다."[10]

14.16

子曰：「晉文公譎而不正，齊桓公正而不譎。」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나라 문공은 속임수를 쓰고 바르지 않았고, 제나라 환공은 바르고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11]

14.17

子路曰：「桓公殺公子糾，召忽死之，管仲不死。」
曰：「未仁乎！」
子曰：「桓公九合諸侯，不以兵車，管仲之力也。
如其仁！
如其仁！」

자로가 말했다. "환공이 공자 규를 죽이자 소홀은 따라 죽었는데 관중은 죽지 않았습니다."[12]
그러고는 말했다. "어질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환공이 제후들을 아홉 번이나 모으면서 병거를 쓰지 않은 것은 관중의 힘이었다.
누가 그의 인만 하겠느냐!
누가 그의 인만 하겠느냐!"

14.18

子貢曰：「管仲非仁者與？
桓公殺公子糾，不能死，又相之。」
子曰：「管仲相桓公，霸諸侯，一匡天下，民到于今受其賜。
微管仲，吾其被髮左衽矣！
豈若匹夫匹婦之為諒也，自經於溝瀆，而莫之知也！」

자공이 말했다. "관중은 어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공이 공자 규를 죽였는데 따라 죽지 못하고 오히려 환공을
도왔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이 환공을 도와 제후의 패자가 되게 하고
천하를 한 번 바로잡았으니, 백성이 지금까지 그 혜택을 받고 있다.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섶을 왼쪽으로 여미고
있었을 것이다![13]
어찌 하찮은 사내와 아낙이 작은 신의를 지키느라 도랑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과 같겠느냐!"

14.19

公叔文子之臣大夫僎，與文子同升諸公。
子聞之曰：「可以為文矣！」

공숙문자의 가신이던 대부 선이 문자와 함께 나란히 공실의 조정에
올랐다.
공자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문(文)이라는 시호를 받을 만하다!"

14.20

子言衛靈公之無道也，康子曰：「夫如是，奚而不喪？」
孔子曰：「仲叔圉治賓客，祝鮀治宗廟，王孫賈治軍旅，夫如是，
奚其喪？」

공자께서 위나라 영공의 무도함을 말씀하시자 강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나라를 잃지 않았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숙어가 손님 접대를 맡고, 축타가 종묘를 맡고, 왕손가가 군대를 맡고 있으니, 그런데 어찌 나라를 잃겠소?"[14]

14.21

子曰：「其言之不怍，則為之也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부끄러움 없이 크게 하면 그것을 해내기 어렵다!"

14.22

陳成子弒簡公。
孔子沐浴而朝，告於哀公曰：「陳恒弒其君，請討之。」
公曰：「告夫三子。」
孔子曰：「以吾從大夫之後，不敢不告也！
君曰『告夫三子』者！」
之三子告，不可。
孔子曰：「以吾從大夫之後，不敢不告也！」

진성자가 간공을 죽였다.[15]
공자께서 목욕재계하고 조정에 나가 애공께 아뢰셨다. "진항이 그

임금을 죽였으니 그를 치십시오."
애공이 말했다. "세 대부에게 알리시오."
공자께서 물러 나와 말씀하셨다. "내가 대부의 뒤를 따르는 몸이라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었는데!
임금께서는 '세 대부에게 알리라'고 하시는구나!"
세 대부에게 가서 알렸으나 그들은 안 된다고 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대부의 뒤를 따르는 몸이라 감히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

14.23

子路問「事君」。
子曰：「勿欺也，而犯之。」

자로가 임금 섬기는 일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속이지 말고, 얼굴을 맞대고 간하라."

14.24

子曰：「君子上達，小人下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

14.25

子曰：「古之學者為己，今之學者為人。」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배우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배웠고, 지금 배우는 사람은 남에게 보이려고 배운다."

14.26

蘧伯玉使人於孔子，孔子與之坐而問焉。
曰：「夫子何為？」
對曰：「夫子欲寡其過而未能也。」
使者出。
子曰：「使乎！
使乎！」

거백옥이 공자께 사람을 보냈다.[16] 공자께서 그와 함께 앉아 물으셨다.
"선생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오?"
심부름 온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께서는 허물을 줄이려 하시지만 아직 잘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심부름 온 사람이 나갔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한 심부름꾼이구나!
훌륭한 심부름꾼이구나!"

14.27

子曰：「不在其位，不謀其政。」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꾀하지 않는다."

14.28

曾子曰：「君子思不出其位。」

증자가 말했다. "군자는 생각이 제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14.29

子曰：「君子恥其言而過其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말이 행동을 넘어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14.30

子曰：「君子道者三，我無能焉：仁者不憂，知者不惑，勇者不懼。」
子貢曰：「夫子自道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의 도가 셋인데 나는 그 어느 것도 해내지 못했다.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공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스스로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4.31

子貢方人。
子曰：「賜也，賢乎哉？
夫我則不暇！」

자공이 남을 견주어 평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는 그렇게 현명하냐?
나는 그럴 겨를이 없다!"

14.32

子曰：「不患人之不己知，患其不能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능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

14.33

子曰：「不逆詐，不億不信。
抑亦先覺者，是賢乎？」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속일까 미리 짐작하지 않고, 남이 나를 믿지 않을까 미리 헤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먼저 알아차린다면, 이 사람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14.34

微生畝謂孔子曰：「丘何為是栖栖者與？
無乃為佞乎？」
孔子曰：「非敢為佞也，疾固也。」

미생묘가 공자께 말했다.[17] "구는 어찌 이리 바삐 돌아다니는가?
말재주를 부리려는 것이 아닌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감히 말재주를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꽉 막힌 것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14.35

子曰：「驥不稱其力，稱其德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리마는 그 힘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덕을 일컫는 것이다."

14.36

或曰：「以德報怨，何如？」
子曰：「何以報德？
以直報怨，以德報德。」

어떤 사람이 말했다. "덕으로 원한을 갚는다면 어떻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덕은 무엇으로 갚겠소?
곧음으로 원한을 갚고, 덕으로 덕을 갚아야 하오."

14.37

子曰：「莫我知也夫！」
子貢曰：「何為其莫知子也？」
子曰：「不怨天，不尤人，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자공이 말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하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아래에서 배워 위로 통달한다.
나를 알아주는 것은 아마 하늘일 것이다!"

14.38

公伯寮愬子路於季孫，子服景伯以告曰：「夫子固有惑志於公伯寮，
吾力猶能肆諸市朝。」
子曰：「道之將行也與？
命也！
道之將廢也與？
命也！
公伯寮其如命何！」

공백료가 계손에게 자로를 헐뜯자, 자복경백이 이를 알리며 말했다.[18]
"그분이 공백료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니, 내 힘으로도 그자를
죽여 저잣거리에 내걸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행해지려는 것도
명이오!
도가 버려지려는 것도
명이오!
공백료가 명을 어찌하겠소!"

14.39

子曰：「賢者辟世，其次辟地，其次辟色，其次辟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피하고, 그다음은 땅을
피하고, 그다음은 낯빛을 피하고, 그다음은 말을 피한다."

14.40

子曰：「作者七人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한 사람이 일곱이다!"[19]

14.41

子路宿於石門。
晨門曰：「奚自？」
子路曰：「自孔氏。」
曰：「是知其不可而為之者與？」

자로가 석문에서 묵었다.
아침에 성문을 여는 문지기가 말했다. "어디서 오셨소?"
자로가 말했다. "공씨 댁에서 왔소."
문지기가 말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려는 그 사람 말이오?"

14.42

子擊磬於衛。
有荷蕢而過孔氏之門者，曰：「有心哉，擊磬乎！」
既而曰：「鄙哉，硜硜乎！
莫己知也，斯已而已矣！
『深則厲，淺則揭。』」
子曰：「果哉！
末之難矣！」

공자께서 위나라에서 경쇠를 치고 계셨다.
삼태기를 메고 공씨의 문 앞을 지나던 사람이 말했다. "마음이 있구나,

경쇠를 치는 이여!"
이윽고 말했다. "비루하구나, 땡땡 울리는 그 고집스러운 소리여!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두면 그뿐이다!
'물이 깊으면 옷을 입은 채 건너고, 얕으면 걷어 올리고 건너라.'"[20]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과감하구나!
그렇게 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겠다!"

14.43

子張曰：「書云：『高宗諒陰，三年不言』何謂也？」
子曰：「何必高宗？
古之人皆然。
君薨，百官總己以聽於冢宰三年。」

자장이 말했다. "『서』에 '고종이 상중에 거처하며 삼 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2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고종뿐이겠느냐?
옛사람은 모두 그러했다.
임금이 죽으면 모든 관리가 제 일을 맡아 삼 년 동안 재상의 명을 들었다."

14.44

子曰：「上好禮，則民易使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백성을 부리기 쉽다."

14.45

子路問「君子」。
子曰：「修己以敬。」
曰：「如斯而已乎？」
曰：「修己以安人。」
曰：「如斯而已乎？」
曰：「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堯舜其猶病諸。」

자로가 군자를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경으로 자신을 닦는다."
자로가 말했다. "그뿐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닦아 남을 편안하게 한다."
자로가 말했다. "그뿐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자신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요임금과 순임금도 어렵게 여기셨다."

14.46

原壤夷俟。
子曰：「幼而不孫弟，長而無述焉，老而不死是為賊。」
以杖叩其脛。

원양이 쭈그리고 앉아 공자를 기다렸다.[22]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려서는 공손하지 않았고, 자라서는 내세울 것이 없었고, 늙어서는 죽지도 않으니 이것이 바로 도둑이다."
그러고는 지팡이로 그의 정강이를 두드리셨다.

14.47

闕黨，童子將命。
或問之曰：「益者與？」
子曰：「吾見其居於位也，見其與先生並行也；
非求益者也，欲速成者也。」

궐당의 소년이 손님의 말을 전하는 심부름을 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배움에 나아가는 아이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어른 자리에 앉아 있고, 선생과 나란히 걸어 다니오.
배움에 나아가려는 아이가 아니라 빨리 어른이 되려는 아이요."

---

1. 공자의 제자 원사(6.3)의 이름 헌(憲).

2. 예(羿)는 하나라 때 활을 잘 쏜 유궁국(有窮國)의 임금으로, 신하 한착에게 죽었다. 오(奡)는 한착의 아들로 힘이 세었는데 하나라 임금 소강에게 죽었다. 원문의 「盪舟」를 「배를 뒤집다」로 읽는 설도 있다.

3. 우(禹)는 물을 다스린 하나라의 시조, 직(稷)은 농사를 가르친 주나라의 시조 후직(后稷)이다.

4. 정(鄭)나라의 대부들. 동리(東里)는 자산이 살던 곳이다.

5. 정나라의 공손하(公孫夏)라고도 하고 초나라의 영윤 자서(子西)라고도 한다. 대답을 피한 말이다.

6. 백씨(伯氏)는 제나라 대부. 병읍(駢邑)은 그의 봉읍이다. 원문의 「人也」를 「이 사람은」으로 읽는 설도 있다.

7. 맹공작(孟公綽)은 노나라 대부로, 욕심이 적었다. 조(趙)·위(魏)는 진(晉)나라의 큰 대부 집안, 가로(老)는 그 집안의 우두머리 가신이다. 등(滕)·설(薛)은 작은 제후국이다.

8. 장무중(臧武仲)은 노나라 대부 장손흘(臧孫紇), 지혜로 이름났다. 변장자(卞莊子)는 노나라 변 땅의 대부로, 범을 찔러 죽였다고 한다.

9. 공숙문자(公叔文子)는 위나라 대부 공손발(公孫拔). 공명가(公明賈)는 그의 가신이다.

10. 장무중은 죄를 짓고 노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자기 봉읍인 방(防)을 차지한 채 집안의 후계를 세워 주면 떠나겠다고 청했다.

11. 진(晉) 문공과 제(齊) 환공은 춘추 시대의 첫 패자들이다.

12. 제나라 양공이 죽자 그 아우 소백(小白)과 규(糾)가 자리를 다투었다. 이긴 소백이 환공이다. 소홀(召忽)과 관중은 규를 섬기던 신하였는데, 소홀은 규를 따라 죽고 관중은 뒤에 환공의 재상이 되었다.

13.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섶을 왼쪽으로 여미는 것은 오랑캐의 풍속이다. 관중이 오랑캐를 막지 않았다면 중원이 오랑캐에게 넘어갔을 것이라는 말이다.

14. 강자(康子)는 계강자. 중숙어(仲叔圉)는 위나라 대부 공문자(5.14)다.

15. 진성자(陳成子)는 제나라 대부 진항(陳恒). 기원전 481년에 임금 간공(簡公)을 죽였다. 세 대부는 노나라의 삼환(三桓)이다.

16. 위나라의 대부 거원(蘧瑗). 백옥은 그의 자다. 공자가 위나라에 머물 때 그의 집에 묵었다.

17. 노나라의 은자로 보인다. 공자를 이름(丘)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18. 공백료(公伯寮)는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라고도 한다. 계손은 계손씨, 자복경백(子服景伯)은 노나라 대부 자복하(子服何)다.

19. 앞 장의 「피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본다. 누구누구인지는 설이 갈린다.

20. 『시』 패풍 「포유고엽(匏有苦葉)」의 구절. 세상의 깊고 얕음에 따라 처신하라는 뜻으로 썼다.

21. 고종(高宗)은 은나라 임금 무정(武丁). 양음(諒陰)은 임금이 상중에 거처하는 곳이라 한다.

22. 원양(原壤)은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옛 벗이다. 어머니의 상을 당해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제15편 위령공(衛靈公)

15.1

衛靈公問陳於孔子，孔子對曰：「俎豆之事，則嘗聞之矣；
軍旅之事，未之學也。」
明日遂行。
在陳絕糧。
從者病，莫能興。
子路慍見曰：「君子亦有窮乎？」
子曰：「君子固窮，小人窮斯濫矣。」

위나라 영공이 공자께 진 치는 법을 물으니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제기를 벌이는 일이라면 일찍이 들은 바가 있으나,
군대의 일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마침내 떠나셨다.
진나라에서 양식이 떨어졌다.
따르던 이들이 병이 나서 일어나지 못했다.
자로가 성이 나서 공자를 뵙고 말했다. "군자도 궁할 때가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본디 궁할 때가 있다. 소인은 궁하면
함부로 넘친다."

15.2

子曰：「賜也，女以予為多學而識之者與？」
對曰：「然，非與？」
曰：「非也！
予一以貫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것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느냐?"
자공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나는 하나로 꿰었다."

15.3

子曰：「由，知德者鮮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덕을 아는 사람이 드물구나!"

15.4

子曰：「無為而治者，其舜也與！
夫何為哉？
恭己正南面而已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함이 없이 다스린 사람은 아마 순임금일 것이다!
무엇을 하셨겠는가?
몸을 공손히 하고 바르게 남면하고 계셨을 뿐이다."

15.5

子張問「行」。
子曰：「言忠信，行篤敬，雖蠻貊之邦行矣；
言不忠信，行不篤敬，雖州里行乎哉？
立則見其參於前也，在輿則見其倚於衡也，夫然後行！」
子張書諸紳。

자장이 행해지는 법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이 충실하고 미더우며 행실이 도탑고 공경스러우면 오랑캐 나라에서도 행해진다.
말이 충실하지 않고 미덥지 않으며 행실이 도탑지 않고 공경스럽지 않으면 제 고을에서인들 행해지겠느냐?
서 있을 때는 그 말이 눈앞에 나란히 늘어서 있는 것이 보이고, 수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멍에에 기대어 있는 것이 보여야 한다. 그런 뒤에야 행해진다."
자장이 이 말씀을 띠에 적었다.

15.6

子曰：「直哉史魚！
邦有道如矢，邦無道如矢。
君子哉蘧伯玉！
邦有道則仕，邦無道則可卷而懷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곧구나, 사어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도 화살처럼 곧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도 화살처럼 곧았다.[1]
군자로구나, 거백옥은!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거두어 품에 감출 줄 알았다."

15.7

子曰：「可與言而不與之言，失人；
不可與言而與之言，失言。
知者不失人，亦不失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더불어 말할 만한데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더불어 말할 만하지 않은데 말하면 말을 잃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15.8

子曰：「志士仁人，無求生以害仁，有殺身以成仁。」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를 구하여 인을 해치는 일이 없고, 제 몸을 죽여서라도 인을 이루는 일이 있다."

15.9

子貢問為仁。
子曰：「工欲善其事，必先利其器。
居是邦也，事其大夫之賢者，友其士之仁者。」

자공이 인을 행하는 법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인이 일을 잘하려면 먼저 연장을 날카롭게 한다.
어느 나라에 살든 그 나라 대부 가운데 현명한 이를 섬기고, 선비 가운데 어진 이를 벗하라."

15.10

顏淵問為邦。
子曰：「行夏之時，乘殷之輅，服周之冕。
樂則韶舞，放鄭聲，遠佞人。
鄭聲淫，佞人殆。」

안연이 나라 다스리는 법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라의 역법을 쓰고, 은나라의 수레를 타고, 주나라의 면류관을 써라.
음악은 소무를 쓰고,[2] 정나라의 노래를 몰아내고, 말재주꾼을 멀리하라. 정나라의 노래는 음란하고, 말재주꾼은 위태롭다."

15.11

子曰：「人無遠慮，必有近憂。」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15.12

子曰：「已矣乎！
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다 되었구나!
나는 덕을 좋아하기를 미색 좋아하듯 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15.13

子曰：「臧文仲，其竊位者與？
知柳下惠之賢而不與立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문중은 자리를 훔친 사람일 것이다.
유하혜가 현명한 줄 알면서도 그와 함께 조정에 서지 않았다."[3]

15.14

子曰：「躬自厚，而薄責於人，則遠怨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꾸짖기는 두텁게 하고 남을 꾸짖기는 가볍게 하면 원망을 멀리할 것이다!"

15.15

子曰：「不曰：『如之何，如之何』者，吾末如之何也已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15.16

子曰：「群居終日，言不及義，好行小慧，難矣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럿이 모여 온종일 지내면서 의로움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잔꾀 부리기만 좋아한다면 어렵구나!"

15.17

子曰：「君子義以為質，禮以行之，孫以出之，信以成之，君子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의로움을 바탕으로 삼고, 예로 그것을 행하고, 겸손함으로 그것을 내보이고, 미더움으로 그것을 이룬다. 그것이 군자다!"

15.18

子曰：「君子病無能焉，不病人之不己知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자기가 무능한 것을 걱정하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15.19

子曰：「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세상을 떠난 뒤에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

15.20

子曰：「君子求諸己，小人求諸人。」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15.21

子曰：「君子矜而不爭，群而不黨。」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엄정하되 다투지 않고, 어울리되 편을 짓지 않는다."

15.22

子曰：「君子不以言舉人，不以人廢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말만 듣고 사람을 들어 쓰지 않고, 사람이 못났다고 그 말까지 버리지 않는다."

15.23

子貢問曰：「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其恕乎！
己所不欲，勿施於人。」

자공이 물었다. "한마디 말로 평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서(恕)일 것이다!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15.24

子曰：「吾之於人也，誰毀誰譽？
如有所譽者，其有所試矣。
斯民也，三代之所以直道而行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남을 대할 때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기렸던가?
기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해 본 바가 있어서다.
이 백성은 하·은·주 삼대가 곧은 도로 다스려 온 그 백성이다."

15.25

子曰：「吾猶及史之闕文也。
有馬者，借人乘之，今亡已夫！」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사관이 모르는 글자를 비워 두던 것을 그래도 보았다.
말이 있는 사람이 남에게 빌려주어 타게 하던 것도 보았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졌구나!"

15.26

子曰：「巧言亂德，小不忍則亂大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교묘한 말은 덕을 어지럽히고,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계획을 어지럽힌다."

15.27

子曰：「眾惡之，必察焉；
眾好之，必察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뭇사람이 미워해도 반드시 살펴보고,
뭇사람이 좋아해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15.28

子曰：「人能弘道，非道弘人。」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

15.29

子曰：「過而不改，是謂過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

15.30

子曰：「吾嘗終日不食，終夜不寢，以思。
無益，不如學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일찍이 온종일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으며 생각해 보았다.
아무 보탬이 없었으니 배우는 것만 못했다."

15.31

子曰：「君子謀道不謀食。
耕也，餒在其中矣；
學也，祿在其中矣。
君子憂道不憂貧。」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도를 꾀하지 먹을 것을 꾀하지 않는다.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배우면 녹봉이 그 안에 있다.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15.32

子曰：「知及之，仁不能守之，雖得之，必失之。
知及之，仁能守之，不莊以涖之，則民不敬。
知及之，仁能守之，莊以涖之，動之不以禮，未善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혜가 거기에 미쳐도 인으로 지켜 내지 못하면 얻더라도 반드시 잃는다.
지혜가 미치고 인으로 지켜 내더라도 장중하게 임하지 않으면 백성이 공경하지 않는다.
지혜가 미치고 인으로 지켜 내며 장중하게 임하더라도 예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직 좋다고 할 수 없다."

15.33

子曰：「君子不可小知，而可大受也。
小人不可大受，而可小知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작은 일로 알아볼 수는 없어도 큰일을 맡길 수 있다.
소인은 큰일을 맡길 수는 없어도 작은 일로 알아볼 수 있다."

15.34

子曰：「民之於仁也，甚於水火。
水火，吾見蹈而死者矣，未見蹈仁而死者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인은 물과 불보다 더 절실하다.
물과 불은 밟다가 죽는 사람을 내가 보았지만, 인을 밟다가 죽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15.35

子曰：「當仁不讓於師。」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을 행할 때는 스승에게도 사양하지 않는다."

15.36

子曰：「君子貞而不諒。」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바르고 굳되 작은 신의에 얽매이지 않는다."

15.37

子曰：「事君敬其事而後其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을 섬길 때는 그 일을 공경히 하고 녹봉은 뒤로 미룬다."

15.38

子曰：「有教無類。」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침에는 가리는 무리가 없다."

15.39

子曰：「道不同，不相為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같지 않으면 함께 일을 꾀하지 않는다."

15.40

子曰：「辭，達而已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은 뜻이 통하면 그뿐이다!"

15.41

師冕見。
及階，子曰：「階也！」
及席，子曰：「席也！」
皆坐，子告之曰：「某在斯！
某在斯！」
師冕出，子張問曰：「與師言之道與？」
子曰：「然，固相師之道也。」

악사 면이 공자를 뵈러 왔다.[4]
섬돌에 이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섬돌입니다!"
자리에 이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리입니다!"
모두 앉자 공자께서 그에게 일러 주셨다. "아무개는 여기 있고,
아무개는 여기 있습니다!"
악사 면이 나가자 자장이 물었다. "그것이 악사와 말하는 도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본디 악사를 돕는 도리이다."

1. 위나라의 대부 사추(史鰌). 어(魚)는 그의 자다. 죽으면서 시신으로 임금에게 간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2. 소무(韶舞)는 순임금의 음악 소(3.25)와 그에 맞추는 춤이다.

3. 노나라의 대부 전획(展獲). 유하(柳下)에 살았고 혜(惠)는 시호다. 곧은 도로 임금을 섬기다가 세 번 쫓겨났다(18.2).

4. 면(冕)은 노나라의 악사로, 앞을 보지 못했다. 그 무렵의 악사는 흔히 눈먼 사람이었다.

제16편 계씨(季氏)

16.1

季氏將伐顓臾。
冉有季路見於孔子曰：「季氏將有事於顓臾。」
孔子曰：「求，無乃爾是過與？
夫顓臾，昔者先王以為東蒙主，且在邦域之中矣，是社稷之臣也，
何以伐為？」
冉有曰：「夫子欲之；
吾二臣者，皆不欲也。」
孔子曰：「求，周任有言曰：『陳力就列，不能者止。』
危而不持，顛而不扶，則將焉用彼相矣？
且爾言過矣。
虎兕出於柙，龜玉毀於櫝中，是誰之過與？」
冉有曰：「今夫顓臾，固而近於費，今不取，後世必為子孫憂。」
孔子曰：「求，君子疾夫舍曰『欲之』，而必為之辭。
丘也聞，有國有家者，不患寡而患不均，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和無寡，安無傾。
夫如是，故遠人不服，則修文德以來之。
既來之，則安之。
今由與求也，相夫子，遠人不服而不能來也，邦分崩離析，而不能守也，
而謀動干戈於邦內，吾恐季孫之憂，不在顓臾，而在蕭牆之內也！」

계씨가 전유를 치려 했다.[1]
염유와 계로가 공자를 뵙고 말했다. "계씨가 전유에 일을 벌이려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야, 이것은 네 잘못이 아니냐?
저 전유는 옛 임금께서 동몽산 제사의 주인으로 삼으셨고, 또 나라의 강역 안에 있으니 사직을 함께 지키는 신하다. 어찌 친단 말이냐?"
염유가 말했다. "그분이 바라는 것이지,
저희 두 신하는 모두 바라지 않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야, 주임이 이런 말을 했다. '힘을 다해 자리에 나아가되, 할 수 없으면 그만둔다.'[2]
위태로운데 붙들지 않고 넘어지는데 부축하지 않는다면 그런 도우미를 어디에 쓰겠느냐?
또 네 말은 틀렸다.
범과 들소가 우리에서 뛰쳐나오고 거북 껍데기와 옥이 궤 속에서 깨졌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염유가 말했다. "지금 저 전유는 성이 견고하고 비 땅에 가까우니, 지금 차지하지 않으면 뒷날 반드시 자손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야, 군자는 '바란다'고 하지는 않으면서 굳이 핑계를 대는 것을 미워한다.
내가 듣기로, 나라를 가진 이와 집안을 가진 이는 적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며,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고 한다.
고르면 가난함이 없고, 화목하면 적음이 없고,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먼 곳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문화와 덕을 닦아 그들이 오게 한다.
이미 왔으면 편안하게 해 준다.
지금 유와 구는 그분을 돕고 있으면서, 먼 곳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데도 오게 하지 못하고, 나라가 갈라지고 무너지는데도 지키지 못하면서,

나라 안에서 창과 방패를 움직이려 꾀하고 있다. 나는 계손의 근심이 전유에 있지 않고 제 집 담장 안에 있을까 두렵다!"[3]

16.2

孔子曰：「天下有道，則禮樂征伐自天子出；
天下無道，則禮樂征伐自諸侯出。
自諸侯出，蓋十世希不失矣；
自大夫出，五世希不失矣。
陪臣執國命，三世希不失矣。
天下有道，則政不在大夫。
天下有道，則庶人不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와 음악과 정벌이
천자에게서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와 음악과 정벌이 제후에게서 나온다.
제후에게서 나오면 열 세대 안에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에게서 나오면 다섯 세대 안에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며,
가신이 나라의 명을 잡으면 세 세대 안에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정사가 대부에게 있지 않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서민이 정사를 논하지 않는다."

16.3

孔子曰：「祿之去公室五世矣，政逮於大夫四世矣。
故夫三桓之子孫微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녹봉을 내리는 권한이 공실을 떠난 지 다섯 세대가 되었고, 정사가 대부에게 넘어간 지 네 세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저 삼환의 자손도 쇠미해졌다."[4]

16.4

孔子曰：「益者三友，損者三友。
友直，友諒，友多聞，益矣。
友便辟，友善柔，友便佞，損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로운 벗이 셋이고 해로운 벗이 셋이다.
곧은 이를 벗하고, 미더운 이를 벗하고, 들은 것이 많은 이를 벗하면 이롭다.
겉치레만 하는 이를 벗하고, 아첨 잘하는 이를 벗하고, 말만 번지르르한 이를 벗하면 해롭다."

16.5

孔子曰：「益者三樂，損者三樂。
樂節禮樂，樂道人之善，樂多賢友，益矣。
樂驕樂，樂佚遊，樂宴樂，損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로운 즐거움이 셋이고 해로운 즐거움이 셋이다.
예와 음악으로 절제하기를 즐기고, 남의 좋은 점 말하기를 즐기고, 현명한 벗이 많은 것을 즐기면 이롭다.
교만하게 노는 것을 즐기고, 빈둥거리며 노닐기를 즐기고, 잔치를 벌이며 즐기기를 즐기면 해롭다."

16.6

孔子曰：「侍於君子有三愆。
言未及之而言謂之躁，言及之而不言謂之隱，未見顏色而言謂之瞽。」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를 모실 때 저지르기 쉬운 허물이 셋이다.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을 조급하다 하고, 말할 때가 되었는데 말하지 않는 것을 숨긴다 하고, 얼굴빛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을 눈이 멀었다고 한다."

16.7

孔子曰：「君子有三戒。
少之時，血氣未定，戒之在色；
及其壯也，血氣方剛，戒之在鬥；
及其老也，血氣既衰，戒之在得。」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경계할 것이 셋 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니 경계할 것은 여색에 있다.
장년에는 혈기가 한창 굳세니 경계할 것은 다툼에 있다.
늙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했으니 경계할 것은 얻으려는 욕심에 있다."

16.8

孔子曰：「君子有三畏：畏天命，畏大人，畏聖人之言。
小人不知天命而不畏也，狎大人，侮聖人之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셋 있다.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해 두려워하지 않고, 대인을 함부로 대하며,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16.9

孔子曰：「生而知之者，上也；
學而知之者，次也；
困而學之，又其次也。
困而不學，民斯為下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으뜸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다음이며,
막힌 뒤에 배우는 사람이 또 그다음이다.
막혔는데도 배우지 않는다면 백성 가운데서도 가장 아래가 된다!"

16.10

孔子曰：「君子有九思：視思明，聽思聰，色思溫，貌思恭，言思忠，事思敬，疑思問，忿思難，見得思義。」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생각하는 것이 아홉 가지 있다. 볼 때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똑똑히 들을 것을 생각하고, 얼굴빛은 온화할 것을 생각하고, 몸가짐은 공손할 것을 생각하고, 말은 충실할 것을 생각하고, 일은 공경스러울 것을 생각하고, 의심이 나면 물을 것을 생각하고, 화가 나면 뒤에 올 어려움을 생각하고, 얻을 것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한다."

16.11

孔子曰：「見善如不及，見不善而探湯，吾見其人矣，吾聞其語矣！隱居以求其志，行義以達其道，吾聞其語矣，未見其人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것을 보면 따라가지 못할까 하듯 하고, 좋지 못한 것을 보면 끓는 물에 손을 넣었다 뺀 듯이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았고, 그런 말도 들었다!
숨어 살며 제 뜻을 구하고, 의로움을 행하여 제 도를 이룬다. 나는 그런 말은 들었으나 그런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16.12

「齊景公有馬千駟，死之日，民無德而稱焉。
伯夷、叔齊餓於首陽之下，民到于今稱之，其斯之謂與？」

"제나라 경공은 말 사천 필을 가졌으나 그가 죽던 날 백성이 그 덕을 기릴 것이 없었다.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 아래에서 굶어 죽었으나 백성이 지금까지 그들을 기린다.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5]

16.13

陳亢問於伯魚曰：「子亦有異聞乎？」
對曰：「未也。
嘗獨立，鯉趨而過庭。
曰：『學詩乎？』
對曰：『未也。』
『不學詩，無以言。』
鯉退而學詩。
他日，又獨立，鯉趨而過庭。
曰：『學禮乎？』
對曰：『未也。』
『不學禮，無以立。』
鯉退而學禮。
聞斯二者。」
陳亢退而喜曰：「問一得三，聞詩、聞禮，又聞君子之遠其子也。」

진항이 백어에게 물었다.[6] "그대는 선생님께 남다른 가르침을 들은 것이 있소?"
백어가 대답했다. "없습니다.

한번은 아버지께서 홀로 서 계실 때 제가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가는데,
'『시』를 배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러 나와 『시』를 배웠습니다.
다른 날 또 홀로 서 계실 때 제가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가는데,
'예를 배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러 나와 예를 배웠습니다.
들은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진항이 물러 나와 기뻐하며 말했다. "하나를 물어 셋을 얻었다. 『시』에 대해 듣고, 예에 대해 듣고, 또 군자가 제 아들을 멀리한다는 것을 들었다."

16.14

邦君之妻，君稱之曰夫人，夫人自稱曰小童，邦人稱之曰君夫人，稱諸異邦曰寡小君，異邦人稱之亦曰君夫人。

나라 임금의 아내를 임금은 「부인」이라 부르고, 부인은 스스로 「소동」이라 부르며, 나라 사람들은 「군부인」이라 부르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과소군」이라 부르며,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군부인」이라 부른다.[7]

---

1. 전유(顓臾)는 노나라 안에 있던 작은 제후국. 이 무렵 계씨의 가신으로 있던 염유와 자로가 함께 와서 아뢴 것이다.

2. 주임(周任)은 옛날의 훌륭한 사관이라고 한다.

3. 원문의 소장(蕭牆)은 임금의 문 안쪽에 세운 가림벽이다. 계씨의 근심이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곧 노나라 임금과의 사이에서 생길 것이라는 말이다.

4. 삼환(三桓)은 노나라 환공의 세 아들에게서 나온 맹손·숙손·계손씨다.

5. 이 장은 첫머리에 「孔子曰」이 없고,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앞에 글이 없다. 집주는 12.10 끝의 『시』 두 구절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말 사천 필은 원문의 천사(千駟), 곧 네 마리씩 천 벌이다.

6. 진항(陳亢)은 자금(1.10), 백어(伯魚)는 공자의 아들 공리다(11.7).

7. 소동(小童)은 어린아이라는 뜻의 낮춤말이고, 과소군(寡小君)은 덕이 적은 우리 작은 임금이라는 뜻의 낮춤말이다.

제17편 양화(陽貨)

17.1

陽貨欲見孔子，孔子不見，歸孔子豚。
孔子時其亡也，而往拜之。
遇諸塗。
謂孔子曰：「來！
予與爾言。」
曰：「懷其寶而迷其邦，可謂仁乎？」
曰：「不可。」
「好從事而亟失時，可謂知乎？」
曰：「不可。」
「日月逝矣！
歲不我與！」
孔子曰：「諾，吾將仕矣！」

양화가 공자를 만나려 했으나 공자께서 만나 주지 않으시자, 공자께 삶은 돼지를 보냈다.[1]
공자께서는 그가 집에 없는 때를 엿보아 사례하러 가셨다.
그런데 길에서 그와 마주쳤다.
양화가 공자께 말했다. "이리 오시오!
내가 그대와 할 말이 있소."
양화가 말했다. "보배를 품고서 나라를 어지럽게 버려둔다면 어질다고 할 수 있겠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수 없소."
"일하기를 좋아하면서 자주 때를 놓친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수 없소."
"해와 달은 흘러갑니다!
세월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알겠소. 나도 벼슬을 하겠소!"

17.2

子曰：「性相近也，習相遠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타고난 성품은 서로 가깝지만, 익힌 습관이
서로를 멀어지게 한다."

17.3

子曰：「唯上知與下愚不移。」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만은 바뀌지 않는다."

17.4

子之武城，聞弦歌之聲，夫子莞爾而笑曰：「割雞焉用牛刀？」
子游對曰：「昔者，偃也聞諸夫子曰：『君子學道則愛人，
小人學道則易使也。』」
子曰：「二三子！
偃之言是也，前言戲之耳！」

공자께서 무성에 가셨다가 거문고 소리에 맞춰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다. "닭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
자유가 대답했다.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들으니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얘들아!
언의 말이 옳다. 아까 한 말은 농담이었다!"

17.5

公山弗擾以費叛，召，子欲往。
子路不說，曰：「末之也已，何必公山氏之之也？」
子曰：「夫召我者，而豈徒哉？
如有用我者，吾其為東周乎！」

공산불요가 비 땅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키고 공자를 부르자, 공자께서 가려고 하셨다.[2]
자로가 언짢아하며 말했다. "갈 데가 없으면 그만이지, 하필 공산씨에게 가시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부르는 사람이 어찌 공연히 부르겠느냐? 나를 써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동쪽에 주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

17.6

子張問「仁」於孔子。
孔子曰：「能行五者於天下，為仁矣。」
「請問之？」
曰：「恭、寬、信、敏、惠。
恭則不侮，寬則得眾，信則人任焉，敏則有功，惠則足以使人。」

자장이 공자께 인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를 천하에 행할 수 있으면 어질다."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손함, 너그러움, 미더움, 재빠름,
은혜로움이다.
공손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너그러우면 뭇사람을 얻고, 미더우면 남이 일을 맡기고, 재빠르면 공을 세우고, 은혜로우면 넉넉히 사람을 부릴 수 있다."

17.7

佛肹召，子欲往。
子路曰：「昔者由也聞諸夫子曰：『親於其身為不善者，君子不入也』。
佛肹以中牟畔，子之往也，如之何？」
子曰：「然，有是言也。
不曰堅乎？
磨而不磷；
不曰白乎？
涅而不緇。
吾豈匏瓜也哉？
焉能繫而不食！」

필힐이 부르자 공자께서 가려고 하셨다.[3]
자로가 말했다.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들으니 '제 몸으로 좋지 못한 짓을 하는 자에게 군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필힐은 중모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선생님께서 가신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런 말을 했지.
그러나 단단하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

갈아도 닳지 않는다.
희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
검은 물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는다.
내가 어찌 박이겠느냐?
어찌 매달려 있기만 하고 먹히지 않겠느냐!"

17.8

子曰：「由也，女聞六言六蔽矣乎？」
對曰：「未也。」
「居！
吾語女。
好仁不好學，其蔽也愚；
好知不好學，其蔽也蕩；
好信不好學，其蔽也賊；
好直不好學，其蔽也絞；
好勇不好學，其蔽也亂；
好剛不好學，其蔽也狂。」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너는 여섯 가지 말과 여섯 가지 가림을 들어 보았느냐?"
자로가 대답했다.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앉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 주마.
인을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가림은 어리석음이 되고,
지혜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가림은 방탕함이 되고,
미더움을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가림은 남을 해치는 것이 되고,
곧음을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가림은 각박함이 되고,

용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가림은 어지러움이 되고,
굳셈을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가림은 무모함이 된다."

17.9

子曰：「小子！
何莫學夫詩？
詩，可以興，可以觀，可以群，可以怨。
邇之事父，遠之事君，多識於鳥獸草木之名。」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얘들아!
어찌 『시』를 배우지 않느냐?
『시』로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세상을 살필 수 있고, 남과 어울릴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며,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된다."

17.10

子謂伯魚曰：「女為周南召南矣乎？
人而不為周南，召南，其猶正牆面而立也與？」

공자께서 백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주남」과 「소남」을 공부했느냐?[4]
사람이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지 않으면 담장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

17.11

子曰：「禮云禮云，玉帛云乎哉？
樂云樂云，鐘鼓云乎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다, 예다 하지만 옥과 비단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음악이다, 음악이다 하지만 종과 북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17.12

子曰：「色厲而內荏，譬諸小人，其猶穿窬之盜也與。」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얼굴빛은 엄한데 속은 여린 것을 소인에 견주면, 벽을 뚫고 담을 넘는 도둑과 같을 것이다."

17.13

子曰：「鄉原，德之賊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고을의 착한 체하는 사람은 덕을 해치는 도둑이다."[5]

17.14

子曰：「道聽而塗說，德之棄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는 것은 덕을 버리는 것이다."

17.15

子曰：「鄙夫可與事君也與？
其未得之也，患得之；
既得之，患失之。
苟患失之，無所不至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비루한 사람과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얻지 못했을 때는 얻을 것을 걱정하고,
얻고 나면 잃을 것을 걱정한다.
잃을 것을 걱정한다면 못 할 짓이 없다!"

17.16

子曰：「古者民有三疾，今也或是之亡也。
古之狂也肆，今之狂也蕩；
古之矜也廉，今之矜也忿戾；
古之愚也直，今之愚也詐而已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백성에게는 세 가지 병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없어진 듯하다.
옛날의 뜻 큰 사람은 거리낌이 없었는데 지금의 뜻 큰 사람은 방탕하고,
옛날의 긍지 높은 사람은 모가 났는데 지금의 긍지 높은 사람은 성내고 사납고,
옛날의 어리석은 사람은 곧았는데 지금의 어리석은 사람은 속일 뿐이다."

17.17

子曰：「巧言令色鮮矣仁。」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사람 가운데 어진 이는 드물다."

17.18

子曰：「惡紫之奪朱也，惡鄭聲之亂雅樂也，惡利口之覆邦家者。」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줏빛이 붉은빛을 빼앗는 것을 미워하고, 정나라의 노래가 바른 음악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하고, 날카로운 입이 나라와 집안을 뒤엎는 것을 미워한다."

17.19

子曰：「予欲無言！」
子貢曰：「子如不言，則小子何述焉？」
子曰：「天何言哉！
四時行焉，百物生焉，天何言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자공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네 계절이 돌아가고 온갖 것이 자라는데,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17.20

孺悲欲見孔子，孔子辭以疾，將命者出戶，取瑟而歌，使之聞之。

유비가 공자를 만나려 했으나 공자께서는 병을 핑계로 사양하셨다.[6]
말을 전하러 온 사람이 문을 나서자 비파를 가져다 노래를 불러 그가 듣게 하셨다.

17.21

宰我問：「三年之喪，期已久矣！
君子三年不為禮，禮必壞；
三年不為樂，樂必崩。
舊穀既沒，新穀既升；
鑽燧改火，期可已矣。」
子曰：「食夫稻，衣夫錦，於女安乎？」
曰：「安！」
「女安則為之。
夫君子之居喪，食旨不甘，聞樂不樂，居處不安，故不為也。
今女安，則為之。」
宰我出。
子曰：「予之不仁也！
子生三年，然後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天下之通喪也；
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재아가 물었다. "삼년상은 한 해만으로도 이미 깁니다!
군자가 삼 년 동안 예를 행하지 않으면 예가 반드시 무너지고,
삼 년 동안 음악을 하지 않으면 음악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묵은 곡식이 다하면 햇곡식이 나고,

불씨를 얻는 나무도 철마다 바꾸니, 한 해면 그만둘 만합니다."[7]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는 것이 너에게 편안하냐?"
재아가 말했다. "편안합니다!"
"네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거라.
군자는 상중에 있을 때 맛난 것을 먹어도 달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거처해도 편안하지 않으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네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거라."
재아가 나갔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는 어질지 못하구나!
자식은 태어나 삼 년이 지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난다.
삼년상은 천하에 두루 통하는 상이다.
여도 그 부모에게서 삼 년의 사랑을 받지 않았겠느냐?"

17.22

子曰：「飽食終日，無所用心，難矣哉！
不有博弈者乎？
為之猶賢乎已！」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불리 먹고 온종일 마음 쓰는 데가 없으면 어렵구나!
쌍륙이나 바둑이라는 것도 있지 않으냐?
그것이라도 하는 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17.23

子路曰：「君子尚勇乎？」
子曰：「君子義以為上。
君子有勇而無義為亂，小人有勇而無義為盜。」

자로가 말했다. "군자는 용기를 높이 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의로움을 으뜸으로 삼는다.
군자가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난을 일으키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도둑질을 한다."

17.24

子貢曰：「君子亦有惡乎？」
子曰：「有惡。
惡稱人之惡者，惡居下流而訕上者，惡勇而無禮者，惡果敢而窒者。」
曰：「賜也亦有惡乎？」
「惡徼以為知者，惡不孫以為勇者，惡訐以為直者。」

자공이 말했다. "군자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미워하는 것이 있다.
남의 나쁜 점을 떠벌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헐뜯는 사람을 미워하고, 용감하기만 하고 예가 없는 사람을 미워하고, 과감하기만 하고 꽉 막힌 사람을 미워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너도 미워하는 것이 있느냐?"
자공이 대답했다. "남의 것을 엿보아 지혜인 체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불손함을 용기로 여기는 사람을 미워하고, 남의 비밀을 들추는 것을 곧음으로 여기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17.25

子曰：「唯女子與小人為難養也！
近之則不孫，遠之則怨。」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여자와 소인은 대하기가 어렵다!
가까이하면 불손하고, 멀리하면 원망한다."

17.26

子曰：「年四十而見惡焉，其終也已。」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마흔이 되어서도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

1. 양화(陽貨)는 계씨의 가신 양호(陽虎). 한때 노나라의 정권을 쥐었다. 대부가 선비에게 선물을 보내면, 선비는 그 집에 가서 절하고 사례하는 것이 예였다.

2. 계씨의 가신. 기원전 502년 무렵 비 땅에서 계씨에게 맞섰다.

3. 진(晉)나라 대부 조씨(趙氏)의 가신으로, 중모(中牟)의 읍재였다.

4.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은 『시』 국풍(國風)의 첫 두 편이다.

5. 원문의 향원(鄕原)은 고을에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실은 세상에 아첨하는 사람이다.

6. 노나라 사람. 애공의 명으로 공자에게 상례를 배웠다고 한다.

7. 옛날에는 철마다 다른 나무를 비벼 불씨를 얻었으므로, 한 해면 불씨 나무가 한 바퀴 돈다.

제18편 미자(微子)

18.1

微子去之，箕子為之奴，比干諫而死。
孔子曰：「殷有三仁焉！」

미자는 떠나갔고, 기자는 종이 되었고, 비간은 간하다가 죽었다.[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나라에는 어진 사람이 셋 있었다!"

18.2

柳下惠為士師，三黜。
人曰：「子未可以去乎？」
曰：「直道而事人，焉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何必去父母之邦！」

유하혜가 옥을 맡는 관리가 되었다가 세 번 쫓겨났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대는 아직도 떠날 수 없소?"
유하혜가 말했다. "도를 곧게 하여 사람을 섬긴다면 어디로 간들 세 번 쫓겨나지 않겠소!
도를 굽혀 사람을 섬긴다면 어찌 꼭 부모의 나라를 떠나야 하겠소!"

18.3

齊景公待孔子曰：「若季氏則吾不能，以季、孟之間待之。」
曰：「吾老矣。
不能用也。」
孔子行。

제나라 경공이 공자를 대우하는 일을 두고 말했다. "계씨처럼은 내가 할 수 없으니, 계씨와 맹씨의 중간으로 대우하겠다."
그러고는 또 말했다. "나는 늙었다.
그를 쓸 수가 없다."
공자께서 떠나셨다.

18.4

齊人歸女樂，季桓子受之，三日不朝，孔子行。

제나라 사람이 노나라에 여자 악사들을 보내오자 계환자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흘 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다. 공자께서 떠나셨다.[2]

18.5

楚狂接輿，歌而過孔子曰：「鳳兮！
鳳兮！
何德之衰？
往者不可諫，來者猶可追。
已而！
已而！
今之從政者殆而！」
孔子下，欲與之言。
趨而辟之，不得與之言。

초나라의 광인 접여가 노래를 부르며 공자의 수레 곁을 지나갔다.[3]
"봉황이여!
봉황이여!
어찌 덕이 이리도 쇠했는가?
지나간 일은 간할 수 없지만, 다가올 일은 아직 좇을 수 있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지금 정치에 나선 사람들은 위태롭다!"
공자께서 수레에서 내려 그와 이야기하려 하셨다.
그는 종종걸음으로 피해 가 버려 함께 이야기하지 못하셨다.

18.6

長沮桀溺耦而耕。
孔子過之，使子路問津焉。
長沮曰：「夫執輿者為誰？」
子路曰：「為孔丘。」
曰：「是魯孔丘與？」
曰：「是也。」
曰：「是知津矣！」
問於桀溺，桀溺曰：「子為誰？」
曰：「為仲由。」
曰：「是魯孔丘之徒與？」
對曰：「然。」
曰：「滔滔者，天下皆是也，而誰以易之？
且而與其從辟人之士也，豈若從辟世之士哉？」
耰而不輟。
子路行以告，夫子憮然曰：「鳥獸不可與同群，吾非斯人之徒與而誰與？
天下有道，丘不與易也。」

장저와 걸닉이 나란히 밭을 갈고 있었다.[4]
공자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자로를 시켜 나루터를 물어보게 하셨다.
장저가 말했다. "저 수레 고삐를 잡은 이는 누구요?"
자로가 말했다. "공구이십니다."
장저가 말했다. "노나라의 공구 말이오?"
자로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장저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루터쯤은 알 것이오!"
걸닉에게 묻자 걸닉이 말했다. "그대는 누구요?"
자로가 말했다. "중유입니다."
걸닉이 말했다. "노나라 공구의 무리요?"
자로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걸닉이 말했다. "도도히 흘러가는 물처럼 천하가 다 이러한데, 누구와 더불어 이것을 바꾸겠소?
게다가 그대는 사람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느니, 차라리 세상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는 것이 어떻소?"
그러고는 씨앗 덮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자로가 돌아와 이 일을 아뢰자, 공자께서 서글프게 말씀하셨다. "새나 짐승과는 함께 무리 지어 살 수 없으니, 내가 이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하겠느냐?
천하에 도가 있다면 나도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18.7

子路從而後，遇丈人，以杖荷蓧，子路問曰：「子見夫子乎？」
丈人曰：「四體不勤，五穀不分，孰為夫子！」
植其杖而芸。
子路拱而立。
止子路宿，殺雞為黍而食之，見其二子焉。
明日，子路行以告。
子曰：「隱者也。」
使子路反見之。
至，則行矣。
子路曰：「不仕無義，長幼之節，不可廢也。
君臣之義，如之何其廢之？
欲潔其身，而亂大倫。
君子之仕也，行其義也，道之不行，已知之矣！」

자로가 공자를 따라가다가 뒤처졌는데, 지팡이에 대바구니를 걸어 메고 가는 노인을 만났다. 자로가 물었다. "어르신께서는 저희 선생님을 보셨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팔다리를 부지런히 놀리지 않고 오곡도 가리지 못하는데, 누가 선생이란 말이오!"
그러고는 지팡이를 꽂아 두고 김을 맸다.
자로는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노인은 자로를 머물러 묵게 하고,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지어 먹이고, 두 아들을 인사시켰다.
이튿날 자로가 길을 떠나 공자께 이 일을 아뢰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숨어 사는 사람이다."
자로를 시켜 돌아가 그를 만나 보게 하셨다.
자로가 이르러 보니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자로가 말했다. "벼슬하지 않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다. 어른과 아이 사이의 예절도 버릴 수 없는데,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로움을 어찌 버리겠는가?
제 몸을 깨끗이 하려다 큰 윤리를 어지럽힌다.
군자가 벼슬하는 것은 그 의로움을 행하려는 것이다. 도가 행해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18.8

逸民：伯夷、叔齊、虞仲、夷逸、朱張、柳下惠、少連。
子曰：「不降其志，不辱其身，伯夷叔齊與？」
謂柳下惠、少連：「降志辱身矣；
言中倫，行中慮，其斯而已矣！」
謂虞仲、夷逸：「隱居放言，身中清，廢中權。」
「我則異於是，無可無不可。」

세상을 버리고 숨어 산 사람으로 백이·숙제·우중·이일·주장·유하혜·소련이 있었다.[5]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 뜻을 굽히지 않고 제 몸을 욕되게 하지 않은

사람은 백이와 숙제일 것이다!"
유하혜와 소련을 두고는 말씀하셨다.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했으나, 말은 윤리에 맞고 행실은 사려에 맞았으니, 그뿐이다!"
우중과 이일을 두고는 말씀하셨다. "숨어 살며 거리낌 없이 말했으나, 몸가짐은 깨끗함에 맞았고 세상을 버린 것은 저울질에 맞았다."
"나는 이들과 달라서, 꼭 그래야 하는 것도 없고 꼭 안 되는 것도 없다."

18.9

大師摯適齊，亞飯干適楚，三飯繚適蔡，四飯缺適秦；
鼓方叔，入於河；
播鼗武，入於漢；
少師陽，擊磬襄，入於海。

태사 지는 제나라로 가고, 아반 간은 초나라로 가고, 삼반 요는 채나라로 가고, 사반 결은 진(秦)나라로 갔다.[6]
북을 치던 방숙은 황하로 들어가고,
소고를 흔들던 무는 한수로 들어가고,
소사 양과 경쇠를 치던 양은 바다로 들어갔다.

18.10

周公謂魯公曰：「君子不施其親，不使大臣，怨乎不以。
故舊無大故，則不棄也。
無求備於一人。」

주공이 노공에게 말했다.[7] "군자는 제 친족을 버리지 않고, 대신이 써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게 하지 않는다.
옛 신하에게 큰 잘못이 없으면 버리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갖추기를 바라지 않는다."

18.11

周有八士：伯達、伯适、仲突、仲忽、叔夜、叔夏、季隨、季騧。

주나라에 여덟 선비가 있었다. 백달·백괄·중돌·중홀·숙야·숙하·계수·계와다.[8]

---

1. 은나라 마지막 임금 주(紂)의 친척들. 미자(微子)는 주의 배다른 형으로 나라를 떠났고, 기자(箕子)는 미친 체하여 종이 되었으며, 비간(比干)은 간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2. 공자가 노나라 사구로 있을 때 노나라가 강해질 것을 두려워한 제나라가 여자 악사 여든 명을 보냈다고 한다. 계환자(季桓子)는 계강자의 아버지 계손사(季孫斯)다.

3. 접여(接輿)는 초나라의 은자. 미친 체하며 세상을 피했다고 한다. 「접여」를 이름이 아니라 「공자의 수레에 다가간 사람」으로 읽는 설도 있다.

4. 둘 다 은자다. 이름은 그 모습에서 지어 붙인 것이라 보는 설이 있다.

5. 우중(虞仲)·이일(夷逸)·주장(朱張)·소련(少連)은 모두 옛 은자로 보이나 자세한 일은 알 수 없다. 공자의 평에 주장은 나오지 않는다.

6. 노나라 악관들이 흩어진 일을 적었다. 아반(亞飯)·삼반(三飯)·사반(四飯)은 임금의 둘째·셋째·넷째 식사 때 음악을 맡은 악사다.

7. 노공(魯公)은 주공의 아들 백금(伯禽). 노나라의 첫 임금이다.

8. 한 어머니가 쌍둥이를 네 번 낳았다고 전한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제19편 자장(子張)

19.1

子張曰：「士見危致命，見得思義，祭思敬，喪思哀，其可已矣。」

자장이 말했다. "선비가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내놓고, 얻을 것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제사 때는 공경을 생각하고, 상을 당하면 슬픔을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19.2

子張曰：「執德不弘，信道不篤，焉能為有？
焉能為亡？」

자장이 말했다. "덕을 지키되 넓지 못하고, 도를 믿되 도탑지 못하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들 무엇이 있겠으며,
없다고 한들 무엇이 없겠는가?"

19.3

子夏之門人，問「交」於子張。
子張曰：「子夏云何？」
對曰：「子夏曰：『可者與之，其不可者拒之。』」
子張曰：「異乎吾所聞：『君子尊賢而容眾，嘉善而矜不能。』
我之大賢與，於人何所不容。
我之不賢與，人將拒我，如之何拒人也！」

자하의 문인이 자장에게 사귐을 물었다.
자장이 말했다. "자하는 무어라 하더냐?"
문인이 대답했다. "자하께서는 '사귈 만한 사람이면 함께하고, 사귈 만하지 않은 사람이면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자장이 말했다. "내가 들은 것과는 다르구나. '군자는 현명한 이를 높이면서 뭇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잘하는 이를 기리면서 못하는 이를 가엾게 여긴다'고 했다.
내가 크게 현명하다면 남의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느냐?
내가 현명하지 못하다면 남이 나를 물리칠 텐데, 어찌 내가 남을 물리치겠느냐!"

19.4

子夏曰：「雖小道，必有可觀者焉；
致遠恐泥，是以君子不為也。」

자하가 말했다. "작은 도라도 반드시 볼 만한 것이 있다.
그러나 멀리 가는 데 걸림이 될까 두려워 군자는 하지 않는다."

19.5

子夏曰：「日知其所亡，月無忘其所能，可謂好學也已矣！」

자하가 말했다. "날마다 제가 모르던 것을 알고, 달마다 제가 할 줄 알게 된 것을 잊지 않는다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 만하다!"

19.6

子夏曰：「博學而篤志，切問而近思，仁在其中矣。」

자하가 말했다. "널리 배우되 뜻을 도탑게 하고, 절실하게 묻되 가까운 데서부터 생각하면, 인은 그 안에 있다."

19.7

子夏曰：「百工居肆，以成其事，君子學以致其道。」

자하가 말했다. "온갖 장인은 일터에 머물며 제 일을 이루고, 군자는 배워서 제 도를 이룬다."

19.8

子夏曰：「小人之過也必文。」

자하가 말했다. "소인은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꾸며 댄다."

19.9

子夏曰：「君子有三變：望之儼然，即之也溫，聽其言也厲。」

자하가 말했다. "군자는 세 번 달라 보인다.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온화하고, 그 말을 들으면 엄정하다."

19.10

子夏曰：「君子信而後勞其民，未信則以為厲己也。
信而後諫，未信則以為謗己也。」

자하가 말했다. "군자는 백성의 믿음을 얻은 뒤에 백성을 부린다. 믿음을 얻지 못했으면 백성은 자기를 괴롭힌다고 여긴다.
임금의 믿음을 얻은 뒤에 간한다. 믿음을 얻지 못했으면 임금은 자기를 헐뜯는다고 여긴다."

19.11

子夏曰：「大德不踰閑，小德出入可也。」

자하가 말했다. "큰 덕이 울타리를 넘지 않는다면, 작은 덕은 조금 드나들어도 괜찮다."

19.12

子游曰：「子夏之門人小子，當洒掃，應對，進退，則可矣。
抑末也；
本之則無，如之何？」
子夏聞之曰：「噫！
言游過矣！
君子之道，孰先傳焉？
孰後倦焉？
譬諸草木，區以別矣。
君子之道，焉可誣也？
有始有卒者，其惟聖人乎！」

자유가 말했다. "자하의 문하 젊은이들은 물 뿌리고 비질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일은 괜찮다.
그러나 그것은 끝가지다.
근본이 되는 것은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자하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아아!
언유가 지나치구나!
군자의 도에서 무엇을 먼저라 하여 전하고,
무엇을 나중이라 하여 게을리하겠는가?
풀과 나무에 견주면 종류에 따라 구별하여 기르는 것이다.
군자의 도를 어찌 함부로 꾸며 말하겠는가?
처음과 끝을 다 갖춘 이는 오직 성인뿐일 것이다!"

19.13

子夏曰：「仕而優則學，學而優則仕。」

자하가 말했다. "벼슬하면서 여력이 있으면 배우고, 배우면서 여력이 있으면 벼슬한다."

19.14

子游曰：「喪致乎哀而止。」

자유가 말했다. "상을 치를 때는 슬픔을 다하면 그만이다."

19.15

子游曰：「吾友張也，為難能也，然而未仁。」

자유가 말했다. "내 벗 장은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지만, 아직 어질지는 못하다."

19.16

曾子曰：「堂堂乎張也，難與并為仁矣。」

증자가 말했다. "당당하구나, 장은! 그러나 함께 인을 행하기는 어렵다."

19.17

曾子曰：「吾聞諸夫子：『人未有自致者也，必也親喪乎！』」

증자가 말했다. "내가 선생님께 들으니, '사람이 스스로 정성을 다하는 일은 아직 없지만, 있다면 반드시 어버이의 상일 것이다'라고 하셨다."

19.18

曾子曰：「吾聞諸夫子：『孟莊子之孝也，其他可能也，
其不改父之臣與父之政，是難能也。』」

증자가 말했다. "내가 선생님께 들으니, '맹장자의 효에서 다른 것은 남들도 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신하와 아버지의 정사를 고치지 않은 것은 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셨다."[1]

19.19

孟氏使陽膚為士師，問於曾子。
曾子曰：「上失其道，民散久矣！
如得其情，則哀矜而勿喜。」

맹씨가 양부를 옥을 맡는 관리로 삼자, 양부가 증자에게 물었다.[2]
증자가 말했다. "윗사람이 도를 잃어 백성이 흩어진 지 오래되었다!
만일 죄의 실상을 알아내더라도 가엾게 여기고 슬퍼할 일이지 기뻐하지 마라."

19.20

子貢曰：「紂之不善，不如是之甚也。
是以君子惡居下流，天下之惡皆歸焉。」

자공이 말했다. "주의 악함은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3]
그래서 군자는 낮은 곳에 머무는 것을 싫어한다. 천하의 악이 모두
그리로 모여들기 때문이다."

19.21

子貢曰：「君子之過也，如日月之食焉。
過也，人皆見之；
更也，人皆仰之。」

자공이 말했다. "군자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허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보고,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본다."

19.22

衛公孫朝問於子貢曰：「仲尼焉學？」
子貢曰：「文武之道，未墜於地，在人。
賢者識其大者，不賢者識其小者，莫不有文武之道焉。
夫子焉不學，而亦何常師之有！」

위나라의 공손조가 자공에게 물었다.[4] "중니는 어디서 배웠소?"
자공이 말했다. "문왕과 무왕의 도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현명한 이는 그 큰 것을 알고, 현명하지 못한 이는 그 작은 것을 알아,

문왕과 무왕의 도를 지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디선들 배우지 않으셨겠으며, 또 어찌 정해진 스승이 있었겠습니까!"

19.23

叔孫武叔語大夫於朝曰：「子貢賢於仲尼。」
子服景伯以告子貢。
子貢曰：「譬之宮牆。
賜之牆也及肩，窺見屋家之好；
夫子之牆數仞，不得其門而入，不見宗廟之美，百官之富。
得其門者或寡矣！
夫子之云，不亦宜乎！」

숙손무숙이 조정에서 대부들에게 말했다.[5] "자공이 중니보다 낫소."
자복경백이 이 말을 자공에게 전했다.
자공이 말했다. "궁궐의 담장에 견주어 보지요.
저의 담장은 어깨 높이라 집 안의 좋은 것을 넘겨다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담장은 여러 길 높이라, 그 문을 찾아 들어가지 못하면 종묘의 아름다움과 온갖 관원의 성대함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문을 찾은 사람이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19.24

叔孫武叔毁仲尼。
子貢曰：「無以為也！
仲尼不可毁也。
他人之賢者，丘陵也，猶可踰也。
仲尼，日月也，無得而踰焉。
人雖欲自絕，其何傷於日月乎？
多見其不知自量也！」

숙손무숙이 중니를 헐뜯었다.
자공이 말했다. "그러지 마십시오!
중니는 헐뜯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현명함은 언덕과 같아 오히려 넘을 수 있습니다.
중니는 해와 달이라 넘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끊으려 한들 해와 달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제 분수를 모른다는 것만 드러낼 뿐입니다!"

19.25

陳子禽謂子貢曰：「子為恭也，仲尼豈賢於子乎？」
子貢曰：「君子一言以為知，一言以為不知，言不可不慎也！
夫子之不可及也，猶天之不可階而升也。
夫子之得邦家者，所謂立之斯立，道之斯行，綏之斯來，動之斯和。
其生也榮，其死也哀，如之何其可及也？」

진자금이 자공에게 말했다. "선생께서 겸손하셔서 그렇지, 중니가 어찌 선생보다 낫겠습니까?"
자공이 말했다. "군자는 한마디 말로 지혜롭다고도 여겨지고 한마디 말로 지혜롭지 못하다고도 여겨지니, 말을 삼가지 않으면 안 되네!

선생님께 미칠 수 없는 것은 하늘에 사다리를 놓아 오를 수 없는 것과 같네.
선생님께서 나라나 집안을 맡으셨다면, 이른바 세우면 서고, 이끌면 따라가고, 편안하게 하면 모여들고, 움직이면 화합했을 것이네.
살아 계시면 영광스럽고 돌아가시면 슬퍼할 것이니, 어떻게 미칠 수 있겠나?"

---

1. 노나라 대부 중손속(仲孫速). 맹헌자(孟獻子)의 아들이다.
2. 맹씨는 맹손씨 집안. 양부(陽膚)는 증자의 제자라고 한다.
3. 주(紂)는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으로, 포악한 임금의 대명사가 되었다.
4. 위나라의 대부. 중니(仲尼)는 공자의 자다.
5. 노나라 대부 숙손주구(叔孫州仇).

제20편 요왈(堯曰)

20.1

堯曰：「咨！
爾舜！
天之歷數在爾躬，允執其中！
四海困窮，天祿永終。」
舜亦以命禹。
曰：「予小子履，敢用玄牡，敢昭告于皇皇后帝，有罪不敢赦，帝臣不蔽，
簡在帝心！
朕躬有罪，無以萬方；
萬方有罪，罪在朕躬。」
「周有大賚，善人是富。」
「雖有周親，不如仁人；
百姓有過，在予一人。
謹權量，審法度，修廢官，四方之政行焉。
興滅國，繼絕世，舉逸民，天下之民歸心焉。
所重民，食喪祭。
寬則得眾，信則民任焉。
敏則有功，公則說。」

요임금이 말했다. "아!
너 순아!
하늘의 차례가 네 몸에 있으니, 진실로 그 가운데를 잡아라!
천하가 곤궁해지면 하늘이 내린 녹이 영영 끊어질 것이다."

순임금도 이 말로 우에게 명했다.

탕임금이 말했다.[1] "저 소자 리는 감히 검은 수소를 바쳐 지극히 크신 상제께 감히 밝게 아룁니다. 죄 있는 자를 감히 용서하지 않고, 상제의 신하를 덮어 두지 않을 것이니, 가려 쓰는 일은 상제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제 몸에 죄가 있다면 온 세상 탓이 아니요,

온 세상에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제 몸에 있습니다."

"주나라는 크게 베풀어, 착한 사람이 부유해졌다."[2]

"가까운 친척이 있다 해도 어진 사람만 못하다.

백성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나 한 사람에게 있다."

저울과 되를 삼가 바로잡고, 법도를 살피고, 없어진 관직을 다시 세우니, 사방의 정사가 행해졌다.

멸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대를 잇게 하고, 숨은 인재를 들어 쓰니, 천하의 백성이 마음으로 따랐다.

소중히 여긴 것은 백성과 먹을 것과 상례와 제사였다.

너그러우면 뭇사람을 얻고, 미더우면 백성이 일을 맡긴다.

재빠르면 공을 세우고, 공평하면 기뻐한다.

20.2

子張問於孔子曰：「何如斯可以從政矣？」
子曰：「尊五美，屏四惡，斯可以從政矣。」
子張曰：「何謂五美？」
子曰：「君子惠而不費，勞而不怨，欲而不貪，泰而不驕；
威而不猛。」
子張曰：「何謂惠而不費？」
子曰：「因民之所利而利之，斯不亦惠而不費乎？
擇可勞而勞之，又誰怨！
欲仁而得仁，又焉貪！
君子無眾寡，無小大，無敢慢，斯不亦泰而不驕乎！
君子正其衣冠，尊其瞻視，儼然人望而畏之，斯不亦威而不猛乎！」
子張曰：「何謂四惡？」
子曰：「不教而殺謂之虐，不戒視成謂之暴，慢令致期謂之賊，
猶之與人也，出納之吝，謂之有司。」

자장이 공자께 물었다. "어떠해야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 아름다움을 높이고 네 가지 악을 물리치면 정치를 할 수 있다."
자장이 말했다. "다섯 가지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않고, 수고롭게 하되 원망을 사지 않고, 바라되 탐내지 않고, 느긋하되 교만하지 않고, 위엄이 있되 사납지 않다."
자장이 말했다.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이 이롭게 여기는 것을 따라 이롭게 해 주니, 이것이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수고롭게 할 만한 일을 가려 수고롭게 하니, 또 누가 원망하겠느냐!
인을 바라서 인을 얻으니, 또 무엇을 탐내겠느냐!
군자는 사람이 많든 적든, 일이 크든 작든 감히 소홀히 하지 않으니,

이것이 느긋하되 교만하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군자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눈길을 위엄 있게 하여, 엄숙한 모습에
사람들이 바라보고 두려워하니, 이것이 위엄이 있되 사납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자장이 말했다. "네 가지 악이란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것을 잔학하다 하고, 미리
경계하지 않고 성과만 따지는 것을 포악하다 하고, 명령은 늦게
내리면서 기한을 다그치는 것을 해친다 하고, 어차피 남에게 줄
것이면서 내주는 데 인색한 것을 창고지기 같다고 한다."

20.3

子曰：「不知命，無以為君子也。
不知禮，無以立也。
不知言，無以知人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

1. 원문에는 말하는 이가 없다. 리(履)는 은나라를 세운 탕임금의 이름으로, 하나라의 걸(桀)을 칠 때 하늘에 고한 말이라고 집주는 보았다. 검은 수소(玄牡)는 제물로 바친 소다.

2. 이 장의 뒷부분은 주나라 무왕의 말과 그 정치를 적은 것으로 본다. 앞뒤 따옴표는 말하는 이가 바뀌는 자리를 원문의 낫표대로 따랐다.

판권면

논어

원제 · 論語 (논어). 20편

지은이 · 공자(孔子, 기원전 551~479)의 제자와 그 문인들이 스승의 말과 행적을 엮었다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성립 · 전국 시대 초기(기원전 5~4세기)부터 엮이기 시작해 한나라 때 지금의 20편 본으로 굳었다. 장 나눔은 남송 주희(朱熹)의 『논어집주(論語集注)』를 따랐다.

저본 · 지금 널리 통행하는 20편 한문 본문의 전자 텍스트. 한문 원전에서 직접 옮겼으며, 제임스 레그(James Legge)의 영어 번역 《Confucian Analects》(The Chinese Classics 제1권, 1861, 개정 1893)는 대조에만 썼다.

분량 · 원문 한자 15,914자(부호 제외) · 20편 499장 · 구절 1,504줄 · 옮긴이 주 193개

바로잡은 곳 · 저본 전자 텍스트의 빈칸 일곱 자리(인코딩 손실)와 오식·부호 오류를 통행본에 따라 바로잡아 원문에 실었다. 판본에 따라 글자가 갈리는 자리는 통행본대로 두었다.

저작권 · 원저작물은 기원전에 이루어진 글이다. 대한민국(저작권법, 저작자 사후 70년)과 미국 모두에서 보호기간이 오래전에 끝난 퍼블릭 도메인이다. 저본 본문은 고대 원문 그대로라 새 저작권이 생기지 않으며, 대조에 쓴 레그의 영어 번역(1861·1893)도 퍼블릭 도메인이다.

한국어 번역 · 이 한국어 번역은 에테르 라이브러리가 만들었다. 번역문의 저작권은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CC BY-NC 4.0) 조건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읽고 공유할 수 있다.

판 · 1.0판 · 2026년 11월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28